



3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3호

(루게 461)



◆◆◆◆◆◆◆◆◆◆

차 례

◆◆◆◆◆◆◆◆◆◆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주체사상교양에 더 힘있게 이바지하자	4
최고사령부의 밤	6
청봉에서	7
우등불가에서	7
불멸의 봉화	8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9
왕재산을 찾아서	11
3대혁명전위들 앞으로!	13
평양	14
빛나는 삶	15
《용광원》(외 1 편)	20
우리의 말	20
내나라	21
낯설은 거리도 낯설지 않네 (외 1 편)	31
빈자리	31
바다처럼 설레일밖에	31
마흔해전 그 봄날은	32
항구의 밤이여	32
길	33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41
보내는 마음	42
통소	48

형상의 진실성과 생활탐구	58
고향의 내가에서	63
만수대언덕	64
차갈이공에게	64
잊혀지지 않는 모습	65
그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있다	67
전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우에 (외 2 편).....	68
잠 못들어... ..	68
삼일포 처녀들	69
행복의 총계우에 올라	70
흙냄새 (외 2 편).....	71
땅과 청춘	71
대지만은 알고있어라.....	71
수로왕과 허황옥	72
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	74
반미, 반피뢰 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75
작은 새	77
락동강 모래 한줌 (외 1 편).....	78
목련화	78
음모에 미친 백악관 (외 1 편)	79
돈에 미친 월가	79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주체사상교양에 더 힘있게 이바지하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 사상사업에서 우리가 언제나 선차적힘을 넣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지금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며 우리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세가 첨예하고 복잡한 때일수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어떤 정황속에서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적원칙성과 계급적리익을 고수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임무가 무겁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수록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옹계 구현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더 잘 이바지해야 하는것은 또한 주체의 인간학으로써의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이 다른 모든 문학, 인간학 일반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은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고 그 기본요구를 체현하고있는데 있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문학의 본성이 있다.

따라서 문학이 참다운 인간학이 되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완벽한 해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인간학이 의거해야 할 인간의 사회적본질에 대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줄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인간 생활과 사회적투쟁의 근본동기, 력사발전의 근본요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밝혀낼수 있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인간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그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바로 사상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모든것을 지배할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주체사상이 밝혀준 이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의 중심에 서있으며 그 주인이고 지배자인 인간을 보여주며 인간에게 복무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이 참다운 의미에서 공산주의인간학, 주체의 인간학이 되자면 마땅히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옹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구현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학작품에 심오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사람, 80년대 새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것을 말하며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어떤 성격형상을 창조하는가, 이것은 모든 문학에서 기본문제로 된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어나가야 하는가를 기본으로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의 생활이 이러한것만큼 작가들이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마땅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지 않는다면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할수 없으며 순간을 살아도 영생할수있는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줄수 없다. 현시기 우리 문학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80년대 새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통하여 밝혀진다.

주체사상의 요구를 옹계 구현한 80년대 새형의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대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말하자면 남에게 매이거나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진 새형의 인간들의 형상을 옹계 창조하는것이다.

그러한 인간은 때로 자기의것에 정통하고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인간의 형상으로, 때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인간의 형상으로, 때로는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거기서 나라의 경제적위력의 원천을 찾고 당과 혁명을 위해 묵묵히 모든것을 바쳐 일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때로는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며 또는 온갖 기성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격형상의 기초에는 어떤 경우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놓여 있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80년대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의 핵이며 모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능력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대해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에 대해 말할수 없다.

80년대인간들의 전형적성격,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의하

여 정치적생명의 고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사람들이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에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과정에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빛내일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혁명이란 본래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 각오와 결심에 의하여 하는것이며 그 누구의 도움에 의거하여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 80년대인간의 전형적성격에서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바로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스스로의 자각과 결심에 의하여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체득한 투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간직하게 된것이라는데 있다. 바로 그러한 충실성을 지니였기때문에 그들은 것처럼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고 창조적인 지혜와 힘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발양시킬수 있는 사람들로 되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구현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작가들이 문학작품에 담는 성격과 생활들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감정, 우리 인민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형상하는것이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할수 있고 자기 민족의 모든 문화와 생활풍습, 도덕을 더 잘 알게 함으로써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여주어 모든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게 할수 있다.

문학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잘 참가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인민에게 리해되여야 하며 감정정서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을데 대한 창작원칙을 옹계 구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아야 혁명의 근본리익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문학을 창작할수 있다.

그것은 이 원칙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지향과 요구, 인민대중의 생활감정과 예술적기호를 전면적으로 반영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작가들은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은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주체적인 문학,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의 참다운 모범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주체의 심원한 사상을 더욱 풍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더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할것이다.

최고사령부의 밤

민항숙

여기가 최고사령부 작전실이라고
여기서 수령님은 그날 그 밤에
원아들의 잃어버린 생일도 찾아주셨다고
감격에 설레이며 목메이던
해설원의 이야기도 이제는 끝났는데
발걸음 떼지 못하는 이 마음
다시금 조용히 다가선다

다가선다
오늘도 하많은 생각 불러오는
작전대, 전화기, 색연필
우러르면 우러르면
마음속엔 흐르는 포연, 날리는 재빛 눈보라
수복이 쌓여지는 이 작전대에서
간밤도 수령님 지새우신듯
아, 불빛속에 숨엄히 안겨오는
아버이 그 영상

닿으면 아직도 그이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을 포근히 덮혀주실듯
이 마음 한없이 이끌여주는
전화기앞에 섰노라니
오늘도 세월을 넘어 뜨겁게 울려오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
-원장동무,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들의 나이와 생일은 알고있소?

눈시울 뜨거워라
포화의 불바다에 잠긴 조국
모든것을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리는 그이의 손길따라
끝없이 이어지고이어지는
작전의 붉고푸른 화살표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명령

전설같은 사랑의 그 이야기
뜨거운 마음안고 그 영상 우러르면
아, 가슴에 젖어와라
자신계선 침식마저 잊으시면서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생일을
차려주겠는가
전쟁을 이기는것도 그애들을 위해서가 아닌가고
따뜻이 일깨워주신 아버지 손길

어려온다
뜨거운 이 가슴에
집 잃고 부모 잃고
몰아치는 광풍에 거슬리고 찢기여
모습조차 가려볼수 없는 술한 고아들
눈물에 젖은 그 어린 가슴가슴을
한품에 안아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안겨주신
아버이 그 사랑, 따사론 그 미소

아, 작전으로 날이 밝고
싸움으로 날이 저물던
최고사령부의 밤
그 밤은 정녕 우리의 밝은 미래가
그이의 품에 안겨
끝없이 끝없이 태어나던 밤

죽어서도 죽어서도 그 품을 떠날수 없었던
우리의 수많은 전사들이
아버이 그 사랑, 그 믿음 안고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높이 부르면
거인처럼 일떠서 원수의 화점을 향해
한치한치 나아간
승리의 밤이었나니

사랑과 믿음으로 새 세계를 열어놓으시며
원수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내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

아, 무수한 작전의 그 밤따라
조국은 아득히 달려왔어도
수령님 우러러 설레이는 인민의 마음속에
그날의 위대한 그 영상 고이 담아시고
더욱 밝게 흐르는 사령부의 이 불빛
세대에 세대를 이어 만대의 심장속에
충성의 화불로
길이 불타오르리라
오, 최고사령부의 밤
사랑의 밤이여!

청봉에서

김성환

울창한 숲새로 새여드는 밝은 바람도
그날에 흐르던 숲결소리인듯
밀림우에 비긴 아름다운 노을도
그날에 날리던 붉은 기발인듯

청 봉
내 옮겨드는 발걸음조차
절로 승엄해지는
혁명의 전적지여

한줄기 불빛 꺼질 줄 모르던
사령부의 천막을 지켜선 투사들
그 하루밤에
천만년 조국의 앞날을 안아본
성스러운 숙영지

여기였구나
밤하늘의 총총한 별빛 눈동자에 담고
종다리 우짖는 고향의 봄들판에
한생을 꽃피울 행복 새겨안딘곳은

여기가 아닌가
한떨기 진달래꽃앞에서도
조국땅에 망울터칠 삶의 기쁨을 보며
활짝 핀 송이송이에 얼굴 묻던곳은

아, 항일혈전의 장장 수만리
그립고그립던 조국땅에 안긴
그 하루밤에 한생을 살아 누릴수 있는 기쁨을
그 한순간에 한생을 바쳐 찾을수 있는 보람을
뜨겁게 새겨안은 투사들의 마음이어

그 마음 높뛰는 숨결이 되어
내 옮기는 발걸음 활기에 차넘치고
그 마음 날리는 기발이 되어
내 가는 길엔 험한 령도 두렵없어라

청봉이여, 청봉숙영지여
그날은 하루밤이여도
나에겐 삶의 한생처럼 소중한구나
하루밤의 숙영지도
만대에 넘겨줄 재부로 빛나는구나

우등불가에서

김만영

숙영의 하루밤을 쉬어서 가기엔
너무도 바람 세찬 여기
하늘의 별들도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수림속 한가운데에
뚜렷이 안겨오는 우등불자리

둘러앉으면 그날의 그 밤처럼
황황 불길의 일것만 같은데
귀기울이니 아, 들려온다
우등불가에 울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
그러자 고요한 밀림을 흔들며
숲속에 터지는 호탕한 웃음소리

눈앞엔 승엄히 안겨온다
꼬마대원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리운 고향 만경대
못잊을 정다운 이야기로
백두의 한밤을 즐기시는 장군님

타오르는 불가에 조용히 앉으시여
젖은 신발 하나하나 말리우시고
찢어진 위장포도 한뼘한뼘 누벼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우등불에 비치는 환한 모습들
해방된 그날 만경대에 함께 가자고
장군님께 줄라대며 약속하는
작식대원 처녀의 또렷한 눈동자
김정숙동지께 허물도 없이
어리광 부리며 군복을 벗어주는
기관총수 익살군의 웃음어린 두볼

아마도 고향의 아버지앞에
저녁이면 둘러앉는 아들들인듯
고향의 인자한 어머니앞에
응석을 부리는 딸들인듯
마치도 한가정의 단란한 저녁이
여기 우등불가에 펼쳐진듯

비록 여기에 찬바람 막아주는
네면의 벽체와 기와지붕
편히 누울 따뜻한 아래목은 없다 해도
외로움도 추위도 투사들은 몰랐다

잠을 자도
래일의 꿈을 꾸며 단잠을 잤고
날이 새면

사랑의 손길 어린 군복을 입고
용기백배 멸적의 길 이어갔거니

아, 우등불가
그것은 정녕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김정숙어머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언제나 언제나 가득차있는
더없이 소중한 투사들의 집이었다

이 사랑의 요람
혁명의 집에서 투사들 역세계 자라
사선의 고비를 넘고넘으며
원췌 일제를 쳐물리치고

언제부터 네 이름
봉화산이라 불렀더뇨?!
자옥자옥 숨엄한 사색을 없으며
걸음걸음 세월의 락엽 헤치며
나는 네 기슭으로 오른다

내 어깨를 스치는
소나무 푸른 가지들아
너는 못잇을 그날
선생님 옷자락 스쳤던
그 유서깊은 나무아지 아니냐

무릎 꿇고
두손으로 쓸어안는다
이끼 푸른 바위터!
너는 오늘도
선생님 체온으로 뜨거운가

눈앞에 어려오누나
거룩하신 그 영상
조선국민회원들을 맞아주시던 그날처럼
내 손도 잡아주실듯
열정에 찬 이야기 들려주실듯

오 조선독립은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그 한길에 겨레들을 뭉쳐세우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높이신 뜻 어려있는
봉화산!

탁류속을 헤매며 방황하던
민족주의운동의 방향타를 잡으시여

조국광복의 새봄을 당겨왔거니

오, 백두의 우등불가여
여기서
나의 집
나의 생활
나의 가정이 옮겨왔어라

여기서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나아가는
나의 조국- 사회주의 대가정의
영원한 행복이 꽃피었어라

불멸의 봉화

리준

공산주의운동의 대하속에 돌려놓으신
선생님의 그 거룩하신 자취 력력한
력사의 봉우리!

산아, 말하라
그날에 선생님 추켜드신
조선국민회의 화불
그것은 어두운 강토를 밝히는
거대한 봉화가 아니었더냐

정녕 언제부터
네 이름 봉화산이라 불렀는지
내 다 알길 없어도
그날부터 네 진정
봉화산이 되지 않았더냐!

아, 그래서
소나무 푸른 숲과
이끼 푸른 바위...
어디 가나 흔히 보는 산이건만

봉화산아
내 눈엔 네 봉우리가
김형직선생님 그 위업
만대에 길이 전해주며
오늘도 활활 불타오르는
불멸의 봉화로 보이는구나!

저 멀리 솟아빛나는
대동강반의 주체사상탑
그 찬란한 화불에
한줄기 밝은 빛을 더해주며, 더해주며...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량강도 포태리 중흥등관에서-

리성덕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든 지도자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전국의 작가들과 함께 나는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답사하는 영광을 지니였었다.

빠스가 유서깊은 력사의 땅 보천보를 떠나 24km 정도 달리니 어느덧 보서리마을도 뒤에 남고 길은 굽이굽이 예돌면서 높은 산등으로 뿔아올랐다.

여기가 중흥등판이다.

산등에 올라서자 눈뿌리 아득한 무연한 대지가 펼쳐졌다. 이갈나무, 분비, 가문비나무, 쇠스레나무, 붓나무들이 키다툼하며 자라는 푸르디푸른 천리수림의 바다가 저 멀리로 펼쳐지고 가까이로는 살찐 황소의 잔등처럼 누렇게 익은 밀밭과 엷은 보라빛비단을 덮어놓은듯 꽃핀 감자밭이 아득히 펼쳐졌다.

빠스가 벗어나서자 우리를 안내하는 일군이 말하였다.

《여기가 량강도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의 중흥등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3년 8월 9일, 이곳에 머무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길옆에 회백색깨돌로 곱게 다듬어 세운 키높은 비둘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주신 교시가 정중히 아로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누구나 다 여기를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곳에 와보아야 제 나라가 아름답고 위대하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무어라 말할수 없이 숭엄한 깨달음이 가득차올랐다. 분명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주신 말씀이시였다.

오랜 세월 그 누구나 그저 흘러지나던 이 평범하고 이름없던 백두대지의 등판.

하지만 이 등판에서 조국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발견하시여 사람들에게 참다운 애국의 진리를 깨우쳐주신분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우리 수령님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땅은 기름져 오곡백과 무르익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찬 나라,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인민이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 조국입니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중흥등판을 다시 둘러보았다.

서북쪽으로 백두산의 장엄한 련봉들이 희속희속 바라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천리수림의 바다속에서 우뚝우뚝 섬과도 같이 솟아있는 소백산, 간백산 그리고 포태산, 배개봉, 와사봉, 청봉산...

모두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런 력사가 흘러지나간 유서깊은 지점들이였다.

돌아서서 동남쪽을 바라보자 시야는 더욱 넓게 펼쳐졌다. 반도 삼천리가 다 내려다보이고 출렁이는 동해와 남해도 금시 보일것만 같았다.

밀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저 한끝, 푸르디푸른 지평선우에는 광막한 공간이 열리고 거기에는 고원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웅장한 암회색구름의 산악들이 서서히 움직이고있었다. 그것은 잠자리 떠도는 어느 들끝에 가볍게 걸린 꽃구름 따위가 아니였다. 지나간 세기와 세기를 한몸으로 뒤덮어갈만한 거창하고 장엄한 존재들이였다. 그리고 그아래로는 누렇게 익은 수천정보의 이곳 종합농장의 밀밭은 무겁게 숙인 이삭을 실레이며 금파도를 일으키고있었다.

아,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새기고 이 등판에 서면 조국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더욱 새롭게 느낀 크나큰 감격이 가슴에 북받쳐오른다.

그리고 이 등판에 서면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어제와 오늘이 보이고 보다 빛나는 래일이 보인다.

저 백두의 련봉들을 마주하고 서면 항일혁명의

그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았던곳에서 날리던 붉은 기발이 지금도 그곳에서 펄럭이는듯 하고 그날의 혁명투사들이 조국땅 저 수림속을 헤쳐오는 진군의 발자국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이 등판에 서서 무르익어 설레이는 무연한 밀밭과 포태마을의 아름다운 다충문화주택들을 마주보노라면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이 안겨온다.

그리고 오직 한마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며 살고 일하는 이곳 농장원들과 창밖은 학교의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노라면 무궁히 설레이는 저 밀림의 바다처럼 끝없이 번영하고 부강해질 조국의 래일이 보이는것이다.

중흥등판!

이곳은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의 북변고원의 한 지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은 조국이 담고있는 모든것, 위대한 력사와 보람찬 오늘과 빛나는 미래, 그리고 조국이 지닌 그 모든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한곳에 체현한 조국의 축도와 같은곳이다.

백두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결에 등판의 밀밭이 설레이고 숲이 설레이고 나의 옷자락이 펄럭이었다.

이제 그 바람이 불어나갈 끝없이 열린 공간을 따라 나의 생각도 끝없이 달려가고있었다.

과연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등판에서 친히 깨우쳐주신 조국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저 무연히 펼쳐진 밀밭무르익는 대지일까, 끝없이 설레이는 수림의 바다일까? 저 지평선우에 떠도는 장엄한 고원의 구름일까.

나는 다시금 등판을 둘러보았다.

저 백두산, 청봉산, 배개봉, 홍두산! 이 산들을 우리 인민모두가 것처럼 숭엄하게 대하고 아름답게 보는것은 그 봉우리마다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의 발자국을 찍으시며 몸소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이 력력히 어려있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저 설레이는 황금밀밭을 두고 말하더라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첫시기 이곳에 공산주의문화농촌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몸소 가꾸어주신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조국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게 될 때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하기전에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의 창조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한것으로 안겨오는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것이다.

금강산이나 묘향산 그 어느곳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강산을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깃들어있다.

그리고 주체조선의 절경인 저녁노을 붉게 타는 강선의 강철지구나 은물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강철비단필이 물결쳐나오는 김철의 아름다운 밤노을을 볼 때에도 잠간 더듬으면 반드시 그곳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쳐오신 위대한 창조의 력사,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깃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조국땅은 그 어느곳이나 끝없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으로 불타오르고 만사람의 가슴속에서는 주체조국에 대한 꺼질줄 모르는 애국의 불씨가 타오르고있는것이 아닐가.

정녕 조국의 아름답고 위대한 그 모든것,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서 몸소 개척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것들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가꾸시고 꽃피우시여 우리인민에게 안겨주신 그 모든것인것이다.

그렇다!

아, 아름답고 위대한 나의 조국!

어찌하여 나의 조국은 저 서해한끝 간석지마을로부터 백두대지의 이름없던 등판과 동해한끝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곳이나 나날이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전변되고있는것일까.

나는 문득 백두산이 높이 솟은 푸르디푸른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거기서는 이 세계의 위대한 천체인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고있었다.

빠스에 오른 나는 깊은 생각과 걱정애 잠긴채 중흥등판을 내리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 빛나는 등판이 더욱 높이 솟아오르고 더욱 크게 자리잡고있었다.

왕재산을 찾아서

최치영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온다.

청진안내소를 떠나 부령과 고무산, 무산, 가라지봉밀영 그리고 회령, 남양을 거쳐 여기 온성군 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에 도착하여 하루밤을 숙영한 우리 답사대원들의 마음은 한없이 설렘이었다.

그것은 이번 왕재산답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초시기 몸소 국내에 진출하시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의 봉화를 올린 역사적인 장소에로의 행군길이기때문이다.

먼 답사로정을 걸어왔지만 우리모두는 날밝기 전에 왕재산마루에 올라 장쾌한 해돋이를 보자고 누구 하나 힘든 기색없이 이른새벽부터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드디어 행군이 시작되었다.

대오의 앞에는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우리들의 마음인양 붉은기가 펄럭인다.

아직은 날이 채 밝기전 어둑 새벽이었지만 서늘로운 바람결에 풍겨오는 난알향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나무잎새들이 설레이는 소리로 조국땅 최북단 북방의 9월을 느낄수가 있었다.

우리가 걷는 길양옆으로는 눈썹이 무너지게 머리숙인 벼이삭들이 설레이는데 눈벌은 저 멀리 두만강기슭까지 펼쳐졌다. 우리가 답사소를 떠나 얼마쯤 왔을 때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희미하게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조국땅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려한 산발들속에 왕재산대기념비 봉화탑이 나타났다.

동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왕재산봉화탑을 바라보며 환성을 질렀다.

왕재산은 오늘도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을 거느리고 민족수난의 그 세월에 민족재생의 빛을 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혁명업적을 전하여주는듯 붉게붉게 타오른다.

행군은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앞선 동무들은 산정으로 오르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는 나이많은 답사대원들이 저저마다 먼저 오르겠다고 걸음을 다그쳤다.

산정으로 오르는 비탈마다에는 참나무, 이팝나무, 분비, 가문비나무들이 가을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반기고있다.

보통때는 자주 집이 되군하던 녀동무들도 이런 때는 가쁜한 적위대복차림으로 항일유격대의 녀대원들처럼 씩씩 오른다.

한잠만에 행군대오는 왕재산마루에 올랐다.

왕재산회의장소에 이른 우리는 부풀어오른 가슴을 안고 움직일줄을 몰랐다. 어떤 동무들은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잊지못하시어 자주 회고하신다는 그날의 한그루 참나무앞에 숭엄한 감정을 안고 서있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항일전의 그날 이 나무결에 서계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우뚝이 떠올랐다. 답사대원들중 누군가가 즉흥시를 읊었다.

두만강 푸른 물도 노래하며 기슭을 치고
떠가던 흰구름도 흐름을 멈추는 여기
한그루 싱싱한 참나무여
그날의 그 영광 못잊어 설레이는가

일제의 검은 구름 덮이어
하늘의 해도 빛을 잃었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왕재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피바다에 잠긴 조국땅을 굽어보시며
장군님 높이드신 주체의 해불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그 높이신 뜻 나래쳐
겨레의 심장속에
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몰아왔나니

아, 말하라 참나무여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 걸으신
주체의 자욱따라 굽이쳐흐른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진군로
불멸의 로정을 이야기하라
...

안도의 수림속에서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어 한 해도 채 못되던 역사적인 1933년 3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만원정의 길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몸소 온성지구예로의 첫 조국진출을 하시

였다.

그러시고는 왕재산에 올라 바로 이 참나무결에서 해돋이를 보시고 이미 파견하였던 국내공작원들과 몸소 키워오신 지하공작원들을 만나시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여 국경일대에서 적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라격을 줌으로써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반일유격대가 창건된후 한해동안의 투쟁성과와 당시의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발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를 위해 두만강연안의 유격구와 잇닿아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창설하고 공고화하며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에 확대발전시키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왕재산회의 방침은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방침이며 전민적 조선혁명을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지당한 방침이었다.

어디선가 한줄기 아침해살이 수림속을 뚫고 비쳐들었다.

《아, 정말 아름답군요!》

《저쪽이 동쪽이구만...》

수림속에서 답사대원들은 푸름한 동쪽을 가리키며 웅성거린다.

안내원은 참나무결에 서서 밝아오는 동녘하늘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재산에 오르시여 처음으로 조국땅에서 아침해돋이를 맞으신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없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나는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보셨던 저 멀리 조국의 산밭을 바라보았다.

젖빛안개를 서서히 헤치며 머리를 쳐드는 조국의 수려한 산밭들, 아침해빛을 받아 눈부신 은백색을 뿌리는 아담한 탄광마을, 로동자주택들과 렬을 지어 달리는 자동차, 기관차들...

조국의 북변에 자리잡은 탄광마을은 창조의 희열이 넘치는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나 50여년전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을 바라보셨을 때는 오늘의 문화주택대신 로동관에 시달린 처서군들의 숨가쁜 움막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기울어진 굴뚝들에선 하루 한때마저 연기가 제대로 피어오르지 못하였다. 나라 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복간도를 떠나던 류량의 긴 행렬은 이 산아래 저 장덕나루가에 그칠줄 몰랐고 원한은 하늘땅에 사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맞으신 그날의 해돋이는 길일을 몰라 해매는 인민들에게 민족재생의 불씨를 안겨주며 봉화를 일으키는 혁명의 장쾌한 해돋이였다.

왕재산회의 방침에 따라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은 즉시 이곳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풍서리도선장습격전투, 세선리전투, 남산지주집습격전투, 장덕나루습격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불려일으켰다. 지하공작원들과 이곳 인민들은 《농민상조회》를 비롯한 반일지하혁명조직들을 못고 유격대를 적극 도와나섰다.

이리하여 이곳 두만강연안일대에서는 밤낮으로 풍서리세선부락나루와 심정리장덕나루 등을 통해 많은 원호물자들이 두만강을 건너 수십리되는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았던 소왕청 마촌으로 꼬리를 물고 련이어 흘러갔다.

하기에 이곳 풍서리에서 나서자란 세선리우물집할아버지는 우리를 만나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때 이 일대는 평장했지요. 대낮에도 도선장순사놈을 술집으로 꺾여다 처먹이고는 그사이 그놈들의 큰 배로 술한 로동화, 팜목, 소금, 성냥, 쌀, 의약품 심지어 닭, 돼지까지 건너보냈지요. 그러면 저 소왕청 마촌에서 달구지를 가지고와서 실어갔수다. 하긴 나두 그때 저 량수천자 구룡바위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시여 이 일대를 위락파락하고계신다는 이야기를 어른들한테서 종종 들었으니깐요...》

이처럼 이곳 인민들은 수많은 혁명조직들을 못고 부녀자들까지 모두가 떨쳐나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원호물자를 마련하였고 공작원들은 도처에서 경찰, 악질지주들을 처단하였다고 한다.

그후 이에 공포를 느낀 지들은 가슴에다 방탄피를 무겁게 띠고 다니였고 인민들과 접근할 때에는 10메터앞에서부터 손을 들고 접근하게 하였다고하니 이 일대 인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활발

하였는가를 짐작할만하였다.

우리는 얼마후 참나무결을 떠나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에 왕재산을 향해 소왕청 마촌을 떠난 항일유격대가 십리평을 거쳐 솔골을 지나 3월의 얼음장을 타고 조국땅인 타막골에 들어섰었다는 력사의 두만강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는 디디는 걸음마다 생각이 깊어졌다. 산굽이를 에돌며 분비, 가문비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들이 무성한 내리막길을 따라 한 5리 내려가니 것처럼 보고싶던 두만강 푸른 물이 소리치며 흐르고있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그날에 걸으신 길이며 우리 수령님께서 한자루의 도끼를 위하여 후한 값을 치루어주시고도 손때묻은 자기 물건을 잃은 주인의 아쉬움이야 어디 가겠는가고 하시며 맵쌀 겨울날 칼바람을 헤치고 나오시여 빠뜨린 도끼를 찾느라고 애쓰시던 그 두만강이다.

답사대원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흐르는 두만강에 제먼저 손을 잠가보자고 달려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재산을 것처럼 귀중히 여기시여 수십여년전 잃으신 도끼를 잊지 못하시고 항일혁명전적지답사를 떠나는 한 혁명투사에게 랑수천자부락에 가면 그 주인을 찾아 다시한번 사과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신 부락은 바로 강건너부락이 아닌가.

우리의 이런 심정을 가늠한듯 안내원이 말한다.

《저 강건너부락이 랑수천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골짜기가 솔골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곳에 나왔던 항일유격대원들이 하루밤을 휴식한곳은 저 건너편 집들이 있는곳이고 그 아래나무가 무성한곳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끼값을 물어주신 중국인 로인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간고한 혁명의 길에 한자루의 도끼가 무엇이길래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과 집주인이 것처럼 만류하시는데도 그 도끼를 찾으시겠다고 눈보라치는 두만강얼음장우에 나서시었던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숭엄한 영상이 흐르는 두만강물결우에 어려와 우리는 쉽게 걸음을 뗄수 없었다.

왕재산! 실로 왕재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국내공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한 거점이었고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혁명이 나갈 주체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장소이다.

한낮이 되어 우리는 답사숙영소를 향해 타막골을 떠나 다시 왕재산마루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마루에는 봉화탑의 화불이 영원히 번치 않을 우리의 마음인양 여전히 눈부시게 반짝인다.

나는 이글거리는 뜨거운 불덩이를 심장에 안듯 봉화탑의 화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왕재산을 내려였다.

가사

3대혁명전위들 앞으로!

리종률

우리는 청춘 시대의 불길

미래로 달리는 선봉대

가는곳마다 당의 뜻 심어

충성의 한길로 부른다

세 폭의 붉은기 힘차게 날려라

당중앙 따라서 3대혁명전위들 앞으로

우리의 열정 탐구에 바쳐

새 기술 창조해나간다

속도전 불길 세차게 지퍼

비약의 한길로 달린다

세 폭의 붉은기 힘차게 날려라

당중앙 따라서 3대혁명전위들 앞으로

우리의 노래 울리는곳에

문명한 새생활 꽃피고

우리의 기발 날리는곳에

락원은 더 높이 솟는다

세 폭의 붉은기 힘차게 날려라

당중앙 따라서 3대혁명전위들 앞으로

평양

부바까르 까마라

나날이 번영하는 조선의 평양
그림에서만 꿈속에서만 본 그대 모습
여덟해전
내 머나먼곳에서 그대를 보러 갔을제
아름다운 그대 모습에 매혹되어
내 환성을 올렸어라
-아, 평양!
오늘 그대 모습은 너무도 황홀하여
꿈속에서조차 그려볼수 없구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대동강의 흐름
거대한 변혁의 시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전하여라
대동강물위에 비낀것은 주체사상탑이 아닌가
170미터의 높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
물결위에 그 웅장한 모습 비낀 주체사상탑
장엄한 그 모습앞에 강물도 흐름을 멈추어라
춤추며 흘러가던 흰구름도 걸음 멈추고
탑신에 새겨진 주체의 금문자 굽어보아라

주체!
고유한 이 조선말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용어
그것으로 하여
주체사상탑이 그토록 높이 솟아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하여
탑의 머리에 투쟁의 화불 세계를 밝혀주고있지
않는가
오, 주체사상탑이여
그대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사상의 상징

탑위에 올라서면
영웅도시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 한눈에
바라보인다
자주시대의 중심지
주체의 빛발 영원히 빛날 평양
기념탑에선
마주선 인민대학습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들려온다
이것은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뜻이 어린 봉화리의
종소리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장군님 교유수에서
울리시던
혁명의 종소리

그 종소리 오늘
인민대학습당에서 울림은
온 사회의 지식인화의 형마루에로 부르며 학습을
고무하는것이 아닌가

여기 모란봉기슭
개선의 환호성 높이 올리던곳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
첫발자국을 디디신곳
장군님 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신 역사의 땅
이곳에 개선문 높이 솟아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길이 전하여라
개선문에 새겨진 년대기 1925-1945
김일성주석의 20년의 혁명력사를
어찌 다 기록할수 있으랴
이 년도들은 얼마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웅장한 그 기념비적건축물들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여라
그이의 불멸의 발자취따라 꽃피난 오늘의 행복
현대조선의 자랑이여라

이 기념비들을 세우신이 어느분이신가
무슨 힘으로 그것들을 일떠세우셨는가
설계가의 이름도 건축가와 조각가의 이름도
기념비엔 새겨져있지 않건만
대동강은 전하여라
모란봉의 푸른 숲은 속삭여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는 말하여라
그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고

전체 인민과 인류의 뜨거운 념원 담아
그이께서 원대한 구상 무르익히시였거니
기념비들을 세우리라
세계의 중심에
지구의 제일 높은곳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혁명의 수도 평양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 숲으로 솟아
세계에 빛나라

(필자 세네갈시인)

빛나는 삶

리일복

(전호에서 계속)

3. 영원한 인간의 빛

의리란 인간이 인간으로 되게 하는 참된 기준의 하나이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바가 없다.

더구나 정도자께 향한 전사의 의리는 참된 혁명가의 기본속성의 하나이며 이것을 떠나 인간의 양심을 말할수 없다. 그러나 그 의리란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가지게 되는것도 아니다. 자각과 공감이 없으면 의리가 없고 의리가 없으면 신념이 없다. 이 의리와 신념이 체질화될 때 그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고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준엄한 시기에 이것은 더욱 여실히 실증되어 그 한계선은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사람들의 의리와 신념의 농도를 재는 시금석이기도 하였다.

작가 김사랑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혁명의 성지에 집을 정하고 창작을 진행하고있는 한 로시인은 우리와 만나자 이렇게 말을 뱉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자 김사랑동무는 제일 선참으로 전선종군을 탄원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해 바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에 접한 김사랑동무는 흥분을 견잡지 못하고 나의 손목을 이끌고 해당 상급당으로 달려가 종군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는 벌써 남해열차에 올라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마다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 존함이 모셔진 영예의 종군과전장이 당원증과 함께 소중히 안겨져있었습니다.

원췌와의 싸움마당으로 용약 달려나가는 김사랑동무는 벽차오르는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러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그해 6월 11일 당보인 《로동신문》 2면에 《평화적조국통일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김사랑동무의 담화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야망과 전쟁도발책동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한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문화의 융성발전을 기원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조국의 운명이 이같이 위험한 길에 빠져들어가고있는것을 이 이상 더 참을수 없다.

...공화국의 기치를 앞세우고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두리에 뭉친 인민들의 력량은 무한히 강대하다.

우리의 진군을 방해하는자들은 용감히 소탕하며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의 실현을 위해 나는 내가 지키는 창작의 초소에서 모든 힘을 다한것을 조국앞에 맹약한다.>

그 글발들을 생각하니 바로 이렇게 선참으로 종군을 탄원해나선 그의 심정은 깊이 리해할수가 있었습니다.》

로시인은 반공격의 그 통쾌한 격전장들을 지금도 눈앞에 그려보는듯 열정에 번쩍이는 눈길로 실감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0년 7월 4일, 김사랑동무는 벌써 남진하는 인민군대의 포차에 올라 서울의 한강을 건넌지요.

노도와 같이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대오에서 군관복을 입은 허우대 큰 김사랑은 마치 일선부대지휘관인듯 앞장에서 내달리고있었습니다.》

김사랑은 수원해방전투때는 땅크에 올라 내달렸다. 그는 서울해방의 앞장에 섰던 105땅크사단의 최선두대오의 땅크에 올라 수원시가지로 돌입하였다.

발악하는 적들을 보기좋게 깔아뭉개며 달려들어난 수원, 적의 중요소굴이었던 수원경찰서를 들이치고 달려들어갔을 때 그는 원췌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시체를 눈앞에 보게되었다.

눈뜨고는 차마 바라볼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앞에서 그의 분노는 활화산마냥 끓어올랐다.

그는 후에 종군기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썼다.

《이 원췌놈들과 어느 하늘을 같이 이고 살것인가?... 놈들이 호흡하고있는 한 인민들은 질식한다. 그렇다. 이 뿔치쳐참할 원췌들을 이 땅덩어리우에서 자취도 없이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지구의 끝까지라도 놈들을 추격해야 한다!》

이처럼 원쑤에 대한 그의 증오심은 하늘끝에 닿아 정말 지구의 끝이라도 따라가 놈들을 모조리 소탕할 그런 기세였다.

복수에 끓는 그 가슴을 안고 그는 병사가 되어 원쑤를 죽였으며 선동원이 되어 병사들을 승리로 고무했으며 예리한 작가의 필봉으로 보고 느낀것을 수첩에 적어나갔다.

그는 계속 돌격하는 땅크에 올라 적들을 쓸어 넘히며 평택을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천안으로 육박해갔다.

천안시내로 달려들어갈 때였다. 문득 김사랑이 탄 땅크옆구리에 적 반땅크포탄이 날아와 맞았다. 땅크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땅크조종사는 어쩔줄 몰라 땅크를 멈춰세웠다.

더 멈춰있으면 안되었다. 적의 반땅크포가 재차 조준하여 사격할 단 한초의 여유도 더 주어서는 안되었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 벼락같이 김사랑의 목소리가 조종사의 뒤에서 울렸다.

《주저 말고 빨리 앞으로 나가자! 돌격 앞으로!》

마치 지휘관의 명령과도 같이 단호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땅크는 다시금 질풍같이 앞으로 내달려 적의 반땅크포를 짓뭇개버리었다.

적들의 참호를 돌파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땅크를 멈춰세운 그들은 달렸던 불을 끄고 다시 돌격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김사랑은 병사들을 고무하면서 불비속을 누비고 달려나아갔다.

그는 금강을 도하했고 금강대안의 전호속에서 대전해방전투의 준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력사적인 대전해방전투의 포위환이 이루어지던 무렵, 김사랑은 모터찌클을 타고다니면서 전선형편을 확인하였으며 류레없는 이 력사적인 포위작전을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볼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전법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때의 일을 종군기 《대전시가전》에서 이렇게 썼다.

《7월 20일 새벽, 아직도 동이 트기전 정확히 말하면 2시 45분-

...공화국영웅 부대장이 명령을 내린다. 대전시 돌입의 선봉땅크의 영예를 지니고저 대원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자원한다. **김일성** 장군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본받아 혈혈단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동무들!》 부대장의 목소리는 거위고도 힘차다...

감격적인 악수들이 교환된다. 뒤이어 땅크떼가

대렬을 정리한다.

이윽고 지휘관들이 전진을 개시한 땅크들의 록크문을 열고 솟아서서 부대장에게 심심한 거수경례를 보낸다.

나는 홀로 말없이 손을 흔들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머금었다.

(영광이 있으라! 그대들에게, 인민은 그대들을 노래하리라!)

이때 멀리 산너머로부터 새벽공기를 흔들며 《만세! 만세!》 하는 돌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그는 락동강계선까지 전초부대에서 전투에 직접 참가하면서 목격한 사실들을 부지런히 종군수첩에 적어나갔고 달리는 포차와 땅크우에서 불비 쏟아지는 전호속에서 종이에 갈겨쓴 종군기며 정론, 수필들을 신문사와 출판사들에 보냈다.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중앙신문들과 문예잡지들에 그의 화약내에 절은 종군기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그가 쓴 《종군일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지리산을 지나며》, 《락동강반 전호속에서》, 《바다가 보인다》 등 수많은 현지보도와 종군기들은 이렇게 출판물에 널리 보도되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을 승리로 이끌기시킴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김사랑의 이 작품들에 일관하게 흐르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법에 대한 칭송과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용감성, 애국심으로 일관되어있었으며 원쑤증오의 사상이 맥맥히 흐르고있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로시인은 자기의 서가 깊은곳에서 퇴색한 문고판의 자그마한 책을 꺼내는것이였다.

뚜껑에 원쑤를 향해 불을 뿜는 중기사수의 모습이 그려진 그 책은 전쟁시기에 출판된 김사랑의 종군일기집 《바다가 보인다》였다.

우리는 강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 책을 번지였다. 거기에 실린 3권의 종군기들은 모두 아직도 화약내가 풍기는듯한 생동한 전선화폭들이 그려진것들이였다.

우리는 그 종군기들을 번지며 화선천리 불길속을 내달리던 작가 김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굴줄마다에서 그날에 맥박치던 그의 박동과 호흡을 느낄수 있었다.

어느 글에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그의 충성심과 흠모의 심정이 뜨겁게 안겨오고있었으며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의 한길에서 변함없을 그의 투지와 신념이 뜨겁게 느껴졌다.

특히 김사랑이 쓴 마지막 종군기이며 가장 대표적인 종군기인 《바다가 보인다》를 펼쳤을 때 마산지구의 서북산고지우에 서있는 그의 모습이

방불히 눈앞에 그려졌다.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조국의 남해바다, 포연탄우속을 누비며 달릴 때 병사들 가슴마다 힘을 주며 손저어부르던 조국의 최남단,

남해바다를 발아래 굽어보며 아직도 초연이 가득 서린 고지우에서 펜을 날렸을 김사량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도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진해만을 발아래 굽어보며 마산을 지척간에 둔 남쪽하늘 한끝 푸른 바다가의 서복산 7백고지우에 지금 나는 인민군대동무들과 같이 진중에 있다.

...흐늘어지게 아름다운 바다-

...이제 피에 굶주린 잔악한 적군놈들을 물깊은 저 바다속으로 끌어넣을 때도 머지 않았으며 또 동남쪽의 끝항구 부산항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니 우리들의 금같은 조국땅을 고스란히 끌어안을 때도 거의 림박하였다.

저 아름다운 바다도 우리들의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땀 종군기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사실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나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끝을 맺고있었다.

《아! 울려라 우리의 군단포!

노래하라 지스테리! 막심!

땅크들이여 원썬들의 가슴을 타라!

모터찌클이여 구름처럼 달리라

동무들 돌격앞으로!!

우리들은 고기비늘같은 만신의 상처들을 더듬으며 거인파도 같이 이 산악에서 내려가리라!

...오각별삼색기 펄럭이며 위대한 령수 노래부르며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바다가 보인다. 거제도도 보인다.

바로 여기가 남해바다이다.》

참으로 작가의 격조높은 심정이 그대로 안겨오는 감동적인 종군기였다.

로시인은 우리의 격동된 심정에 함께 공감하는 듯 힘주어 말하는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직접적인 참가자, 목격자로서 작가 김사량이 쓴 이 귀중한 종군기들은 사실주의적인 필치와 생동한 묘사, 격조높은 사상의 분출로 하여 우리 문학의 성과작 계열을 차지할뿐 아니라 전쟁의 력사기록적인 성격으로 하여 후대들에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를 길이 전하는 생동한 화폭으로 빛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의 말에 공감했다.

《웁습니다. 참으로 김사량은 혁명적으로 살며 글을 썼다고 봅니다. 글은 그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종군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며 흠모했고 충성다하기 위해 애썼고 얼마나 조국과 인민을 사랑했는가를 느

낄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였기에 김사량은 가장 준엄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날에 것처럼 참되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시기가 왔다.

작가 김사량은 상급의 지시에 따라 후퇴의 길에 올랐다. 그의 일행중에는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이 끼여있었다. 일행 4명은 진주를 출발하여 순천, 화순, 광주, 대전을 거쳐 조치원에 다달르게 되었다.

때는 1950년 9월말이였다.

조치원에서 곧장 북으로 들어오려던 그들은 인천에 상륙한 적들로 하여 길이 막혔기때문에 하는수 없이 큰길을 버리고 차령산맥의 험준한 산발을 타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 후퇴하는 10여명의 사람들을 더 만나 대오가 불어나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대렬책임자를 선출할것과 림시당조직을 무을것을 먼저 김사량이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소부대형식의 정연한 대오는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을 당부조장으로 하고 질서있는 행군을 하게 되었다. 길은 험하고 간고하였다. 불의에 적과 맞다드는 때도 있었고 낯알 한알 입에 넣지 못하고 걷는 날도 있었다.

산속길로 접어들어 며칠이 지난 어느날

주리고 지친 대오는 깊은 산간의 외딴집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며칠만에 낯알맛을 보니 노그라저 저절로 잠이 들었다.

그러나 김사량은 주위의 동정도 살필겸 토방에 나가앉아 종군수첩을 정리하고있었다.

문득 앞산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나서 건너다보았을 때 그의 눈엔 집을 향해 달려드는 총을 비껴든 원썬의 무리가 바라보였다.

그는 급히 동무들을 깨웠다. 구들장을 파서 거기에 의지하여 적과의 조우전을 벌리게 되었다.

밤이 깊도록 결사전을 벌린 뒤끝에야 대오는 뒤문으로 빠져 산발을 타게 되었다.

대오를 점검해보니 한사람이 없었다. 겁에 질려 도주했던것이다.

김사량은 분노하여 웨치듯 말했다.

《비렬한놈은 어데 가거나 제 목숨도 건지지 못할것이요. 우리는 한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자, 모두 복두칠성을 바라보며 갑시다. 저 벌이 빛나는곳에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오!》

그의 힘찬 말은 가슴들에 신심을 주고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그들은 오직 이 하나의 신념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며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나날이 행군이 힘겨워지니 김사량이 이미 앓던 심장병이 도지기 시작했다. 그는 필수룩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부어오르고 각혈을 하게 되자 어쩔수 없이 동무들의 부축을 받게 되었다. 날이 감에 따라 병은 더하여 마침내는 걸음마저 제대로 옮길수 없어 담가에 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문에 대오의 걸음은 떠졌고 원쑤가 내려다보이는 남한강기슭에 이르러서는 하루를 지체하게 되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사량은 의식을 회복하자 근심스레 자기를 지켜보는 동무들을 미안쩍은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동무들, 나 하나때문에 길을 지체하지 말고 나를 두고 어서 떠나주시오. 하지만 동무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되오.

우리 뒤에는 중대가 있고 중대뒤에는 대대가 있으며 사단이 있소.

그리고 우리모두의 뒤에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십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이깁니다!》

신념에 넘쳐 비장하게 말하는 그를 붙잡고 모두들 울음을 터뜨렸다. 동무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꼭 함께 가자고 애타게 말하였다.

고마운 눈길로 동무들을 바라보던 김사량은 당분조장인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을 조용히 만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 몸상태로는 더 따라갈 형편이 못되니 지체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 이러다가는 한사람때문에 모두가 위험속에 들수 있다고 간절히 타일렸다.

어서 가야 최고사령부의 연락임무도 수행할수 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그는 말마디에 힘을 주어 이렇게 말했다.

《당중앙위원회에 가거든 내가 부득이 이런 상황에서 떨어졌는데 절대로 변함이 없이 싸우겠다는 이 결심을 꼭 전해주오. 이대로 죽느니 싸우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사량은 이제 적후투쟁을 벌리는 동무들이 꼭 있을터이니 거기 찾아가서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덧붙이는것이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동무들의 부축을 받아 담가에서 일어나있더니 종군수첩장을 뜯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였음을 아직 그때는 그도, 동무들도 알수 없었다.

《나는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일행과 함께 후퇴도중 원주계선에서 이 글을 쓴다.

26일발 조치원서부터 산을 타고 걷기 시작하였다. 천안에 미군땅크가 들어와 차길이 막혔기때문이다.

처음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일행과 동작을 같이 하려 하였으나 나는 도저히 그들의 뒤를 따를수 없다. 고질의 심장병이 나를 여러 동무들과 섭섭하게도 갈라지게 한다.

지금 여기는 원주를 불과 20여리에 둔 남한강나루가이다. 진천의 미군을 피하느라 차령산맥을 타는바람에 나의 심장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산을 넘을 때 동무들이 끌고밀고하였다.

나는 ○○고 ○○에 물론 ○기로 작성하고 달라붙였다. 처음엔 30보만에 그러나 나중엔 다섯보, 세보만에 턱턱 쓰러진다.

심장이 파열하는지 모른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도중에 마비라도 일으켜 죽으면 무엇하랴.

나는 여기서 동무들에게 웃음으로… (이하 한 줄은 전해지는 과정에 지워져 잘 보이지 않음)

나의 당원증은 당중앙위원회에, 종군수첩은 작가동맹에 전해다오.

승리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1950년 10월 1일

김사량》

(중간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그후 전달되는 과정에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글자들임)

이렇게 편지를 다 쓴 김사량은 그 편지와 함께 경건히 자기의 조선노동당 당원증과 소지품들을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적후에 홀로 남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자그마한 락망과 비애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에게서 두개의 수류탄을 받아 품속에 간수하는 것이였다. 그러더니 동무들의 손을 꼭 잡으며 군세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깁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에 꼭 이깁니다.

죽지 말고 승리한 다음 다시 만납시다. 그때 우리 옛말처럼 오늘을 두고 말합시다!》

그의 두눈에선 신념의 빛이 섬광과도 같이 번쩍이였다.

《그 마지막 편지와 마지막 말은 김사량이 죽어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로시인은 눈가에 물기를 번뜩이며 격한 음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도 저오기 격동된 심정으로 말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답게 의리를 지켜 싸우겠다는 심장의 토로라고 볼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자기에게 광명을 주고 인간다운 삶의 빛을 안겨 주신 은인이시며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충

성의 맹세를 다졌던것입니다.》

우리는 열려진 창문으로 저 아득한 수림의 바다너머 백두산이 솟아있는쪽을 바라보았다.

혁명의 성산 저 백두산의 정신을 한번 가슴깊이 안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다시금 가슴가득히 차오르는것이였다.

《그후 김사량은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적후에서 싸우는 인민유격대를 찾아들어갔다지요?》

우리의 물음에 로시인은 다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적후인민유격대에서 김사량과 함께 싸운 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기서 출판사업과 선전선동사업에 투신하면서 헌신적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발에 동상을 입어 병치료점 병동아지트에 입원해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적<토벌대>놈들이 달려들었답니다.

그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김사량은 북녁하늘을 우러르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고 가지고다니던 수류탄 안전고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치욕스럽게 적들에게 잡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혁명의 지조를 지키리라 생각했기때문에 것처럼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것입니다.》

《참으로 영웅적인 희생이였군요!》

우리는 뿔어오르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잠시 묵묵히 앉아있기만했다.

이윽고 로시인은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달리는 행동할수 없었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길이였고 전사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생은 같은 식으로 시작되지만 그 인생들은 각이하게 끝맺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야만 생이 빛나는게 아니지요. 또 짧아도 빛나게 살줄 안 그 생이 더 빛나는 법이지요.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김사량은 그 삶의 빛을 언제나 잃지 않을겁니다.

승리한 다음 옛날처럼 그날을 이야기하자던 그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살면서 정말로 그날의 이야기를 뜨겁게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곁을 떠난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그를 회상하시면서 그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듬해인 195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다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당부문일군으로부터 김사량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김사량동무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있는가, 그 동무가 마지막으로 당원증을 보낸곳이 남강원도 원주계선이였지 라고 하시면서그는 정의감이 강하고 량심적이며 신념이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거운 믿음을 표시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공화국을 위하여 싸운 사람들의 공로를 바로 평가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주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의리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김사량의 가족들을 문화상이 직접 만나보고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라고 간곡히 이르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김사량의 가족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렬사증을 수여받게 되었으며 수많은 배려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의 이 은혜, 이 사랑에 더하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으니 김사량이 어찌 우리곁을 떠났다 하랴.

최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김사량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비록 그는 일제시기에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문필활동을 한 진보적인테리의 한사람이며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열렬히 칭송한 재능있는 작가이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혁명적인 작가라는 믿음을 표시하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었으나 이처럼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 속에 작가 김사량의 인간적빛은 사라지지 않는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어느 한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눈덮인 들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있는》 김사량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으며 일본의 어느 한 작가는 김사량은 빛을 찾지 못했다고 외곡하여 말하였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김사량은 그토록 그리던 빛을 똑바로 찾은 사람이며 그 빛발아래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똑똑히 깨닫고 그 길우에서 보람차게 살았으며 참되게 값있게 생을 마칠 사람이다.

《일본의 한 늙은 작가는 <김사량의 생애는 강한 빛발을 뿌리면서 공간의 한끝을 날아가버린 류성과 같이 생각된다.>고 썼는데 잘못 생각한것이라고 봅니다.

김사량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번쩍하고 사라진 류성과 같은것이 아니였습니다. 그의 삶은 류성이 아니라 언제나 태양의 궤도를 따라 도는 하나

의 위성과 같은것이였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로시인은 걱정예 넘쳐 마치 시의 한 대목을 읊듯 자기의 주장을 터쳐놓는것이였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말을 보렸다.

《옳은 말입니다. 그의 생은 태양을 따라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과도 같은것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불변의 광원인 태양의 빛발을 받아 빛나는 별은 영원히 그 빛을 잃지 않음을 김사량은 길지 않은 자기의 삶으로 뚜렷이 증명했지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생명을 지닌 인간의 빛은

그의 육체적생명과도 관계없이 영원한 빛을 뿌리기 마련인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창박에 시선을 던졌다.

아득히 천리수해를 거느리고 거연히 솟은 백두의 웅좌가 우렁이 가슴들에 안겨왔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자주적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참된 삶이 뿌리내리기 시작된 혁명의 성산은 백두의 그 기상, 그 정신으로 빛나게 살라고 다시금 깨우쳐주는듯 하늘가에 높이 솟아있었다.

(끝)

《용광원》 외 1 편

백하

불덩이를 밟고다닌
우리의 가족신발밑에
붉고 푸른 보석을 박아
찬란한 보석꽃을 박아주고

불연기에 끄는
우리의 초록빛 안전모우에
천만의 수정구슬을 꿰어
눈부신 무리등을 엮어주신 사랑

그 사랑
기암피석사이로
칼칼 솟는 뜨거운 불로
날마다 온몸을 씻어주고
땀에 젖은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앉으면

식탁이 넘치도록 기쁨을 엮어주나니

불연기에 덮인 용광로결에
대리석으로 지어준 사랑의 집
아름다운 벽체를 어루만지며
목메이는 마음들을 담아
우리 삼가 이름지어 올리였다
《은덕원》, 《사랑원》...

허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이름들을 다 그으시고
《용광원》이라 손수 이름지어
창공높이 엮어주셨으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용해공들을
하늘에 받들어 올려주셨구나!

우리의 말

우리는 말수가 적은 사람들
온나절 로상에 서있어도
누구나 말이 없다
가슴속에 회열이
쇠물처럼 북받칠 때도
눈언저리에 빙그레
미소가 내비칠뿐

몰아치는 불연기속에
오가는 눈짓이 우리의 말
쇠장대로 출선구를 터치는
로동의 룰동이 우리의 말

우리는 수식사를 모른다

걸치레는 더욱 몰라
그 누가 와서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짧다
작업총화때
조국앞에 아뢰는
우리의 대답도 한마디

허나
그 짧은 말속에 담긴
그 무게는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나니
천만마디의 말에도 다 담을수 없는
우리의 말은
쇠물의 톤수!

내나라

양해도

(1)

…우리는 어슬턱에야 강홍행 열차에 갈아탔다.
오래간만에 맛보는 협궤열차의 독특한 진통을
온몸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벌써 고향집
문턱을 넘어서는 심정이 되었다.

날은 아주 어두워졌다. 차창을 올리니 선선한
가을바람에 먼거리러행으로 화끈 달아오른 얼굴
을 씨원스레 어루만지는데 어둠속에서 얼핏얼핏
스치는 불밝은 창문들이 고향집 정다운 방안의
풍경을 눈앞에 그려보게 한다.

내 고향이 가까와온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제일 궁벽한곳으
로 알려진 고장이었다.

우리 나라 그 어디나 있는 명승지 하나 없고
흔하디흔한 약수터 하나 없는 고장이지만 나에게
는 내고향이상 정다운곳이 없다. 허나 이번 출장
길에도 나는 내 고향역을 그저 지나가야 했다.

얼마전 서부지구에서 새로 개발된 XX광산의
들끓는 생활이 기자인 나의 걸음을 재촉하고있었
던것이다.

고향의 정다운 사투리가 더 자주 귀전에 들려
온다.

입에 오른 저 사투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내 일
마나 동무들의 유쾌한 말밥에 울랐으며 그 말투
를 버리려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원심을 쓰군했
던가. 허나 지금은 그 사투리의 임자를 찾아 차
안을 둘러본다.

그들가운데 나의 친척이나 반가운 이웃사람들
이 꼭 있을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낮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그들의 부모나
형제, 이웃들을 따지고들면 꼭 나와 련결될것만
같아 나는 한사람 한사람을 눈여겨본다.

회색 봄가을외투에 림름한 풍채를 한 60대의
남자가 천천히 내옆에 다가온다.

《옆에 자릴 잡아도 일없겠나요?》

역시 내고장악양이 배인 목소리였다.

《어서 앉으십시오!》

나는 패히 자리를 권했다.

그는 봄가을외투를 벗어서 옷걸개에 걸어놓고
듬직한 자세로 내옆에 앉았다.

나의 맞은편에는 해양일군제목을 입은 40대의
혈색좋은 남자가 앉았는데 건강미가 흐르는 등실
한 얼굴이 펴 호방한 인상을 주었다.

해양일군옆에 앉은 젊은 청년은 두툼한 책을

펼쳐놓고 거기에만 정신을 쏟아붓고있어서 얼굴
모습을 가려볼수 없었다.

기차가 움직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에 우리 좌석사람들은 허물없이 통하게 되었다.

두터운 책에 정신을 쏟던 청년(알고보니 그는
갑산군 식료공장노동자였다.)도 책을 덮어놓고 좌
석의 화제에 끼웠다. 그는 강홍식료공장에서 만
들어내는 고구마튀개를 사가기 위해서 일부러 기
차길을 에돌아간다는것이였다.

내가 강홍에서 자랐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나에게 물었다.

《강홍고구마튀개가 갑산까지 가는 길에 변질되
지 않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고구마튀개라구요? 그게 … 도대체…》

내고장을 떠난 뒤 오래동안 와보지 못한 나는
우리 군 식료공장제품이 그렇게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잘 몰랐던것이다.

그런데 이때 내 맞은편에 앉았던 무역선의 항
해사가 나를 대신하여 대답하는것이였다.

《갑산이 아니라 지구의 끝까지 가도 변질은 고
사하고 그 고유한 맛까지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항해사의 말은 나의 호기심을 부쩍 돋구어주었
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고장의 고구마튀
개는 그런 속성하나만으로도 당당히 명산물에 속
할수 있지 않는가.

어느새 항해사의 이야기는 좌석의 초점으로 되
였다. 이 세상 그 어느곳에도 다 가보았다는 그
의 입에서 그 어떤 신기한 이야기인들 안오랏.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무역선 《장수산》호가 한번 조국을 떠날 때
면 이름난 각 지방 명산물, 특산물들을 많이 싣
고가군한다. 예로부터 이름난 개성의 《고려인삼》
으로부터 오화탕과 대동강의 숭어, 평양의 군밤
과 안변의 감, …현대에 와서 유명해진 강계의
《장생술》이며 삭주의 《뽕술》, 창성의 산과실
통줄임, 동창의 고추씨기름, 녕원의 고사리절임,
온천의 조개젓, 문덕의 건등이젓, 성천의 약밥과
평원의 사과, 법동의 다래단묵, 고산의 파일통절임,
김화의 깨고추장, 웅진의 꽃감, 배천의 잣과자,
회령백살구, 경성역의 열차빵, 파일군의 도수높은
파일주들이며 신포의 털게, 《갑산고추장》과 광
명리의 약수사이다… 강홍의 고구마튀개까지 들
어있었다. 그중에도 강홍지방의 들깨일향기가 꼭

배이게 가공한 고구마튀개는 얼마든지 오래두어도 맛조차 변하지 않아서 특별히 좋아들었다.

망망한 대양우에서나 물설고 땅설은 수록만리 먼 이국땅에 올라서도 조국의 명산물들은 선원들의 마음에 조국의 향취, 그리운 고향사람들의 숨결을 몸가까이 느끼게 해준다.

《장수산》호가 안개 침침한 아메리카대륙의 어느 항구에 닻을 내리웠을 때였다.

때마침 이 항구의 선원구락부 음식광고에 우리나라 고구마튀개와 류사한 식료품이 굉장하게 소개되었다. 거기에는 값비싼 고급향료와 감미제, 건강과 장수에 효과가 큰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다 들어갔다는 내용이 여러 나라 말로 찍혀있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때여서 선원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고구마튀개를 연상시키는 그 식료품을 정했다고 한다….

《…금지와 은지로 포장한 우에 울긋불긋하게 찍은 상표만 봐도 마음을 끌리게 했소.

그런데 포장을 벗기고 맛을 보니 아니더란말이요.》

항해사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아니 그럼 그 나라 선원구락부에서 거짓말 광고를 했단말입니까?》

갑산청년이 성급하게 묻는데 항해사는 대답대신 능청스런 웃음을 짓고 창턱에 놓인 담배곽에서 한대를 피워물었다.

갑산청년은 물론 온 좌중이 호기심은 누를길 없어 선원의 대답을 재촉하는데 선원은 맛스레 들이키던 담배연기를 다 내뿜고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라니요? 광고에 소개된대로야 다 넣었지요. 아무리 많은것을 넣었다해도 우리 나라 강홍땅의 들깨잎향기가 흠뻑 배인 강홍고구마튀개맛이야 어떻게 바랄수 있겠습니까. 그건 서양사람구미에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에게엔 맞지 않더란말입니다.》

좌석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선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것은 우리 좌석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우리 등뒤에서 불쑥 청춘은 목소리가 들렸다.

《자 그러니 강홍고구마튀개를 만든 설비자체에 비밀이 있다는 소리군요.》

그러자 그옆에서

《아니요, 그 이야기야말로 고구마튀개에 그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첨가제가 들어갔다는걸 말해주고있소.》라고 먼저 주장을 반박했다.

알고보니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래동안 론쟁해오던 참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이 론쟁의 범위가 온 차간안으로 확대되었다.

정말 차간에 앉으면 세상 못듣는 소리가 없다.

설비냐? 첨가제냐? 문제는 방방곡곡에서 생겨난 이름난 식료가공품들이나 공업용품으로까지 전개되었다.

나라의 서북단에 있는 공장의 신비로운 금속합금술에 대하여 말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나라의 북단 선봉의 털가죽제품에서 화제는 다시 김책의 면도칼로, 함흥의 수지제품과 장판지, 전천의 수예품과 초산의 창호지, 위원의 버루, 정평의 법랑철기, 덕천의 향라와 고성 of 참대제품, 풍산의 기류제품과 운흥의 초불, 청진의 《용광로》표 석유곤로며… 나는 현대에 와서 그렇게 많은 지방특산물들과 명산물들이 생겨난줄 몰랐고 그속에 그렇듯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연들이 얹혀있는 줄은 몰랐다.

물론 그 이야기들에는 제나름대로의 과장과 운색이 진하게 풍겼지만 나는 점점 그 내용에 빠져들었다.

사리원의 한 노동자는 한때 세계시장에까지 나갔던 《경암》표구두약이 그 기술자가 타곳으로 조동된 후에 명성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만이 구두약의 비밀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나니 설비냐 원료냐 하는 론쟁이 사람이라는 문제로 점점 깊어졌다.

이때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내열의 풍채있는 손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좀 의견을 말해야겠군요.》

그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다.

그래 자연 손님들의 무질서한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그 손님에게로 관심이 쏠렸다.

《…나는 25년전에 강홍식료공장 지배인으로 배치받았던 사람입니다.》

손님의 자기 소개는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그 시기로 말하면 내가 고중을 출입하고 군 농기계공장에서 일할 때였다.

식료공장과 우리 공장과는 불과 300여미터거리를 둔 이웃에 있었다.

나는 친척이나 동창생이라도 만난것 같은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의 듬직한 체구와 나이보다는 10년 더 젊어 보이는 동일한 얼굴은 낯익은것 같기도 했고 전혀 생소한것 같기도 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제대되자 강홍땅에 배치되어 10여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교장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손님은 서글픈 어조로 이렇게 말을 떴었다.

《이 교장을 인차 떠났기때문인가요?》

나는 이 질문이 적중치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아니지요. 내 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손님의 의미심장한 어조에 우리들은 입을 다물었다. 무엇인가 운명적인 이야기가 나올것만 같았다.

《내가 강홍땅에 배치장을 받았을 때 난 이고장이 마음에 없었지요.

나이많은 분들은 강홍땅의 과거사를 알겠지만 옛날부터 여기서 이름난것이란 8~9월달에 강냉이농사를 망치게 하던 태풍과 사체에 널린 돌각담들밖에 없었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고장을 현지도하시면서 태풍피해를 받는 강냉이대신 키낮은 고구마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신후에 터밭에서나 가꾸던 고구마를 대대적으로 경지에 심어 인젠 고구마고장으로 이름이 났지만...》

《그럼 그때에 배치장을 도로 바쳤는가요?》

갑산청년이 성급한 어조로 물었다.

《배치장을 바치다니요? 병사시절을 겪은분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 상급의 명령에는 싫건 좋건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몰랐지요.

그때 나는 나 개인의 취미나 희망같은것을 다 희생시키면서도 조국이 요구하고 당이 배치하는 곳으로 무조건 가서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손님에 대하여 존경이 갔다. 허나 본인은 자신에게 쏠린 신뢰와 존경의 눈길들을 느끼는 순간 모욕이나 받은듯 얼굴을 붉히며 갑자기 어성을 높였다.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어리석었습니다. 한갓 의무감만으로야 어떻게 식료공장지배인이라는 나의 직분을 잘 지켜갈수 있었겠습니까.

생활은 사랑하고 창조할것을 요구합니다.》

손님의 말은 점점 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어서빨리 본론에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2)

강홍식료공장정문에 들어서면 위대한 수령님의 이고장에 대한 현지교시관이 정중히 세워져있습니다. 강홍땅에 고구마를 많이 심으라고 하신 교시전문이 청바위라고 부르는 그고장 돌판우에 또 박포박 새겨져있지요.

공장건물쪽으로 몇걸음 더 가면 룡각지붕을 뻗시있게 엮어놓은 식료제품진렬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공장에서 만드는 식료품들이 평장하게 진렬되어있었습니다. 그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지배인으로서 남모르는 자량과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곤했지요.

그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위해서 바친 나의 노력이 적지 않았답니다.

사랑, 과자같은것으로부터 고급당과류에 이르기까지 없는게 없고 그 모양과 색깔도 여러가지였지요. 그 식료품때문에 나는 도내는 물론 먼고장까지 찾아다니며 좋다는 원료들은 다 끌어들이는것입니다.

어느날 군당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우리 공장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술한 사람들앞에 내가 지시봉을 쥐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나가던 나는 당과류진렬대 한켠에 생긴 빈자리를 발견하고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분명 누가 손을 댔것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부아가 나서 전딜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참관대렬이 떠나갈 때를 기다렸지요.

우리 공장력사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이 무질서한 《교란자》를 빨리 알아내고 단단히 취급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인》이 제스스로 나의 사무실에 찾아들어왔습니다. 경공업대학에서 실습을 나와있던 처녀였지요.

《지배인동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전 공장참관이 있다는걸 모르고...》

처녀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욕설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지요?》

나는 이렇게 물었을뿐입니다.

처녀는 무용배우처럼 날씬한 몸매에 옷을 때마다 불우물까지 곁게 짓는 귀여운 대학생이었는데 이때에만은 그의 이러한 미모도 나의 격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였습니다.

《갑자기 꼭 쓸일이 생겼는데 상점마다 다녀봐야없어서... 전 지배인동지가 후에 말씀올리면 리해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다나니 공장참관이 있다는것을 그만 잊고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꺼냈단말지요?》

나는 이 한마디 물음속에 어떻게 하면 더 중한 질책을 담겠는가 생각하며 처녀를 마주보았습니다.

나는 처녀가 눈길을 떨구어버리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뜻밖에도 나의 눈을 당돌하게 마주보며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

처녀의 자신만만한 자세에 오히려 내가 어쩔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지배인동지도 저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을거예요.》

처녀의 말이 어찌나 확신에 넘쳐 울리었던지 격해졌던 나의 마음까지도 진정시켜주는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진렬대의 당과류를 헐어내다 꼭 쓸일이란 뭐요?》

나는 어조를 낮추며 대범하게 물었습니다.

점점 제리성으로 돌아온 나는 이 처녀실습생에 대하여 좀더 공정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처녀가 우리 공장에 와서 해놓은 좋은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녀가 공장에 와서 도입한 고구마시약처리방법은 말쑥많은 지표인 고구마의 저장과 가공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만 시약처리된 고구마는 지기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나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나는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요구되면 나한테 직접 말만 하오.》

나의 이 관대한 용서에 처녀는 기뻐서 물리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처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동지, 저는 시제품진렬대가 참관자들만을 위한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윽고 처녀는 발음이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지요.

《저 진렬대에 일단 올려놓은 식료품은 어느때나 이고장의 상점들에서 공급될수 있는 제품들이여야 하지 않습니까?》

처녀의 묻는 말이었지요.

나는 그제야 그 말의 진의도를 알아차리고 허구쁜 웃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허허, 그럴수 있다면야 작히나 좋겠소? 그런데 원료가 문제란말요 원료가.》

나는 안타깝게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거야 뭐 원료를 우리 고장걸로 바꾸면 되잖나요?》

처녀의 순진스런 말에 나는 폭소로 대답하였습니다.

처녀는 웃는 나의 얼굴을 면바로 쏘아보더군요. 사랑스러워만 보이던 처녀의 얼굴이 그 순간엔 어찌나 엄해보이던지 나는 웃음을 거두고 정색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뭐 이고장 원료로말이요?》

나는 처녀의 생각이 얼마나 허당한것인가를 이 한마디의 억양속에 다 담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는 나의 억양같은덴 아랑곳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웁니다.

《고구마같은것두 시약처리만 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만 하면 여러가지 맛좋은 식료품을 늘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애티가 가지지 않은 대학생처녀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오돌지고 씨박힌 주장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건 그렇소. 하지만 고구마를 그대로 저장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것 이란걸 이고장 태생인 동무도 알게요. 썩하면 썩어지고 썩치고... 시약처리 방법이 나온후부터 우린 마음을 놓게 됐소.》

나의 이 말에 처녀는 생각에 잠기더구만요. 그러더니 잠시후에 은근한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지배인동지, 오늘 도소재지에서 돌아오는 차간에서 저는 친정집을 다녀오는 한 아주머니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섯살짜리 처녀애가 어찌나 칭얼대는지 열리고열려도 듣질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이웃군 역전매대에서 군밤을 미쳐 사지 못했는데 그걸내라고 졸라대는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 공장진렬대에서 본 당과류들이 생각나서 군밤보다 더 맛있는 고구마단묵이랑 많이 주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했답니다.

강흥에 내려서 상점마다 다녀봐야 그 애에게 약속한건 신통히도 없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공장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손집이 너무 많아서 빼스역전까지 날라다 주었는데 거기에는 친정집이 있는 군식료공장에서 만든 식료품들 지어 고추장단지까지 있었습니다.

비판이라면 이보다 더 가혹한 비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녀의 절절한 고백에 나는 공감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고장 실정을 잘 모르는 처녀실습생의 지나친 욕망이라고 쳐도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의 본심이야 얼마나 기특한것입니까.

《동무의 생각은 다 옳소. 하지만 우리고장의 원료원천은 우리의 큰 욕심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단말이요.》

처녀는 나의 말에 불만인듯 서운한 눈길로 마주보더군요. 또 한바탕 론쟁이라도 벌릴듯이, 허나 뜻밖에도 눈길을 돌리고말았습니다. 빛나던 눈이 초점을 잃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부터 앞세운것 같아요.》

그가 피롭게 번지는 말이었습니다.

(3)

《…그후 그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현장기사로 우리 공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고장으로 배치받은 모양이지요?》

《배치받았다기보다 자기가 자진해서 찾아왔다고 봐야겠지요. 그는 언젠가 나에게 강홍땅이 다른 고장처럼 살기 좋다고 이름난곳이었다면 구태여 자기가 오지 않아도 되었을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였을가요?》

《강홍땅에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었다면 구태여 강홍사람인 자기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지요.》

《…》

《…처녀기사가 공장에 온후부터 내가 세워놓은 공장의 사업질서와 전례가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다른 고장 원료에 의거했던 지표들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게 어디 간단한 일인줄 압니까!

제일 혼하고 많은게 고구마인데 그걸 1년내내 저장하자면 저장고를 지어야지, 설비들을 만들거나 뜯어고쳐야지, 게다가 생산기술문제까지 새로 해결해야지…

핑장한 일판이 벌어지니 모두가 전보다 바쁘게 돌아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나자신이 지난날에 짜고들었더라면 할수 있었을 일이었지요.

고구마저장고를 지을 때만해도 누구나 일이 끝나면 곡괭이나 삽을 들고 사회로동에 나서게 되었는데 지배인인 나도 제몫을 해야 했지요.

땅을 파느라맨 맨 돌바탕이었습니다.》

《에익, 빌어먹을 돌때문에 들었던 정도 떨어져서 간다니까.》

몇번 안찍어 무더여지는 곡괭이를 보며 내가 입에 오른 욕설로 퍼붓는데 내앞에서 돌을 취내던 처녀기사가 이마에 흐르던 땀을 훔치며 나를 바라보는게 아니겠소. 그 눈길이 얼마나 서운한 빛을 띠었던지.

《지배인동지, 돌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저에게 이고장 돌들은 아주 쓸모가 많다고, 전쟁이 끝나면 비싸게 쓸수 있을게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시기 전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으며 버릇처럼 이 고장에 불평을 터뜨리던 자신을 나무람했습니다.

사실 그후 우린 그 돌의 신세를 톡톡히 졌습니

다. 저장고도 보조시설건물도 다 그 혼한 돌로 벽을 쌓았고 몇해후에는 구내길까지도 다 돌로 포장하였습니다.

어느듯 처녀기사가 공장에 온지도 3년이 지나고 그동안 우리 공장도 몰라보게 변했지요.

처녀기사는 자기가 온 녀을 더 기울여 해놓은 일도 그것에 자주 불만을 느꼈고 그때마다 서슴없이 부정해버리고는 다시 새로 시작하곤했지요.

이렇게 저장고도 여러번 뜯어고쳤고 식료가공설비들도 쉽없이 개조하곤했습니다.

그의 진취적인 성격이나 행동이 처음에는 나의 자존심을 은근히 건드리기도 하였으나 나는 어느새 처녀의 그런 행동에 습관이 되고 나자신도 그와 함께 어울려 돌아가는것을 스스로 발견하였습니다.

어느날 나는 그와 함께 강홍땅에서도 제일 외진벽촌으로 알려진 구랑리로 식료품 원료들을 확보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있었습니다.

빠스시간을 놓치다나니 80리길을 걷게 되었는데 저녁녘이 되자 그 유명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홍의 봄가을바람은 바위돌을 날려서 소대가리를 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랑손으로 눈을 가리운채 허둥지둥 읍으로 걸었습니다. 공장정문에 들어서서야 입안으로 쓸어든 모래알을 뱉어내고 눈확에 들어간 먼지를 손수건으로 씻어냈습니다.

이고장에 어느정도 안착이 가다가도 이런 때면 짜증어린 욕설만이 튀어나옵니다.

《기사동무, 우리 나라에 예보다 못한 고장도 있을까?》

나의 톡담기어린 질문에 처녀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배인동지는 이고장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얼굴을 담새우던 바람조차 못견디게 그리워하실거예요.》

《동문 랑만주의자야.》

야유조가 다분히 섞인 어조로 내가 빈정댈니다.

《대학시절에 동무들도 나보고 그렇게 말한적이 있답니다. 전 그 말을 별로 탓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아버지가 락동강기슭에서 숨을 거둘 때 마음속에 안고간 땅이 이 돌 많고 바람새 사나운 강홍땅이란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락동강기슭에서 숨을 거둘 때 마음속에 안고간 땅이 이 돌 많고 바람새 사나운 강홍땅이란걸 생각하면…

처녀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녀에게는 이고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깊은 감명과 큰 충격으로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일하였던것입니다.

하나의 색다른 식료품이 나가서 사람들이 기뻐하는것을 볼 때 그는 힘든줄 몰랐고 간혹 시비를 즐기는 사람이 무심히 던지는 우리 제품에 대한 한마디의 불만을 듣고는 밤새껏 고민하며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런 깊이에까지 그를 리해하지 못하였지요. 왜냐 하면 나 자신이 덜된 인간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때까지도 그 고장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당적과업앞에서의 의무감이 아니라면 벌써 그곳을 떠난지가 오랬을것입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제는 내가 여길 떠나도 량심에 꺼리낄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즈음에 그 처녀기사가 X X 연구소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시내물처럼 거침없이 흐르는 손님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지난날 나의 생활에서 가까웠던 한 녀성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다.

내고장에 늦은 여름부터 늦가을절기까지 들판과 언덕, 길가에 무데기로 피어나는 백일홍처럼 생신한 처녀, 류달리 유쾌한 웃음소리며 마주보면 온세상이 다 비치는듯한 맑은 눈동자까지도 나의 눈앞에 되살아왔다.

더우기 X X 연구소으로의 소환이란 말을 들으니 나는 나의 생각이 꼭 들어맞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손님, 그 처녀기사가 장운레이지요?》

나의 이 웨침끝에 술한 눈길들이 불만스레 일제히 나에게로 쓸렸다.

나는 당황했다.

《아니 장운례와 아는 사이인가요?》

이야기군만이 나의 주책없는 웨침을 너그럽게 받아 이렇게 되묻는것이였다.

아, 그러니 장운례가 틀림없다. 나의 소꿉시절부터 친근했던 동무, 35년전 고증을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윤례의 소식을 여기에서 듣게 되다니...

나의 가슴은 터질듯이 부풀어올랐다.

돌 많고 바람사나운 고향마을, 거기서 흘러간 가지가지의 사연들...

마음속으로나마 잊을수 없는 동요시절로 되돌아갈 때처럼 행복한 때가 또 어데 있으랴.

윤례와 나는 앞뒤집이였고 공부에서도 1, 2등을 다투었다. 우린 누구보다도 친했지만 자주 말다툼을 했다.

학교뒤동산에서 발견한 색다른 야생꽃의 이름을 가지고도 저마끔 제주장이 옳다고 우기다가 며칠씩 말을 안하기도 했다.

우린 어느해 여름 중앙소년단야영소에 함께 간 일이 있었다.

바다가백사장에서 해조임을 하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제고장자랑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니 별의별 자랑이 다 나왔다.

하지만 나와 윤례는 할말이 없었다.

제고장이 제일이라고 으시대는 아이들앞에서 마침내 윤례가 참지 못하고 입을 뗐다.

《우리 강흥엔 돌이 많다. 그런데 그 돌들은...》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자칫하면 웃음거리나 될수 있는 돌자랑을 하다니!

《그런데 그 돌을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금속이 없는게 없더란다.》

마지막말은 지어낸 말같았다. 나는 그렇게도 끈은 윤례가 거짓말 하는것을 이때 단한번 보았다.

《그래 너의 고장에 광산이 썼니?》

나라의 제일 금산지에서 왔다는 아이가 따지고 들었다.

윤례는 말문이 막혀 나를 마주본다.

《아직은... 광산이 없다... 하지만... 이제...》

《와-하!》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윤례와 나를 막다른 곤경에 몰아넣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프락포르 《천리마》가 실려왔을 때 윤례는 역전마당에 부리운 프락포르 결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고운 들꽃으로 프락포르운전대를 단장시켜놓고 차체옆에 새긴 《기양》이란 글자를 손으로 쓸고 또 쓸었다.

《기양에 사는 애들은 얼마나 좋을가!》

차에 발동이 걸리고 그때만해도 울퉁불퉁하던 행길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윤례는 수업시간이다 되였다는것도 잊어버리고 맨발로 그뒤를 따라달렸다.

강흥식료공장이 일어섰을 때 윤례가 쓴 작문은 학교복도에 오래동안 붙어있었다.

《...나는 소년단야영소에 가보기전만해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이 내 고향인줄만 알았다.

그런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온 다른 애들에게는 다 자기고장의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없었다.

날마다 교복과 학용품이 실려오고 프락포르가 실려오고 모든것이 실려만오고 아무것도 실려나가지 못하는 내고장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랴.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고장에서도 식료품들이 생산되어 다른 고장으로, 온 나라로 실려가게 되였다...》

나는 영화화면처럼 겹쳐드는 윤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고증을 졸업한후 윤례는 경공업대학에 갔고 나는 군농기계공장으로 나갔다.

그때 호미, 낫가락이나 버리고 강냉이 탈곡기 따위나 조립하던 작업, 이름없는 농기구공장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내 열정의 전부를 기울여 후회가 없을 공장, 그런 일터는 먼곳에 있었다.

벽찬곳, 시대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곳, 나는 그런곳을 찾아 서슴없이 내고장을 떠났다.

나는 생활의 기본흐름이 소용돌이치는곳에, 생활이 들끓는 시대의 흐름의 와류속에 직접 뛰어들고싶다는 욕망으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내가 북방의 대야금기지건설장에서 일하고있을 때 윤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의 식료공장에 배치되었으며 거기서 전도있는 기사로 인정받아 연구기관에 소환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나의 성공처럼 기뻐했다.

나는 윤례가 앞으로 학계에 반드시 혜성처럼 나타나게 될것을 바랐다.

그러나 윤례는 연구소로 끝내 가지 않았다.

초조해난 나의 편지에 윤례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었다.

《...석철동무, 동무의 축하편지는 나에게 큰 기쁨으로 되었을뿐아니라 나를 분발하게 하고 더 높은 목표로 줄달음치게 하는 큰힘으로 되었어요.

석철동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렇듯 뜨겁고 진정에 넘친 축복이 있었기에 나같은 철부지 <행복동이>도 사회에서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게 되었고 별로 큰 탈선없이 자기 목적을 향하여 살아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위에 언제나 그런 뜨거운 축복이 있기에 이번에도 나는 연구소라는 하나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설자리에 굳건히 서있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꿉시절부터 나를 잘 이해해온 동무는 나의 이런 결심을 이해할것이며 지지해주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윤례의 결심을 이해하지도 지지하지도 못했다. 소꿉시절에 내가 여러번 겪은 윤례의 그 남다른 웅고집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에 펼쳐진 무지개를 지워버리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사연을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차간에서 듣게 된것이다.

손님은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갔다.

파연 윤례를 연구소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힘은 무엇이었던가?

(4)

《장윤례,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입니다. 모두들 윤례의 소환을 기뻐했고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나 역시 리성으로는 그의 소환을 지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자고 하니 공장일이 걸립니다.

그는 현장기사로서 식료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 문제들을 다 맡아안다싶이하였습니다. 뿐아니라 원료기지조성과 원료보관 특히 한해에도 수백톤씩 다루어야 하는 고구마의 저장과 가공기술에선 누구도 윤례를 대신할수 없었지요.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나는 고구마저장고의 온도와 습도, 통풍관리가 그렇게도 품이 들어야 하는줄을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윤례의 일을 다른 사람이 인계받은후 며칠이 지나서부터 고구마가 무데기로 썩어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례가 손을 떼자마자 그전에는 잘 팔리던 고구마제품들이 점차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나는 저장고에서 썩은 고구마를 골라서 무쳐놓고 너무나 화가 나서 <에익, 까다로운놈의것, 썩다 썩어져버리고말아라!> 하고 혼자 푸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니 지배인이라는게 아낙네들처럼 녀드리를 한 무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누가 듣지나 않았나하고 주변을 휘돌러보는데 뜻밖에도 윤례가 심각한 얼굴로 서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동수숙을 다 끝내고도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미루어오던 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온 모양입니다.

그는 나의 눈길과 마주치자 <지배인동지, 전이 공장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에다 그렇게 제기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아니 동무가?!...》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례의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던지!

그는 고구마저장이며 자기가 손을 뺐 모든 일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더 큰일들이 기다리는 연구소로의 길을 포기해버린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생각할수록 공장일을 위하여 그를 언제까지든 붙잡고싶어한 방금전까지의 나의 속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개인적인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윤례의 그런 숭고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수록 윤례를 연구소로 무조건 보내주어야 한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윤례, 동무는 연구소로 가야 해. 여기 일은 걱정 말라구. 우리를 믿으라구!》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친동생에게나 하듯이 진정으로 타일렸습니다. 그러나 윤례의 눈빛을 보자 나는 그의 결심을 그 무엇으로도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윤례는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배인으로서 내가 구실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만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례가 하던 일을 누구나 다 할수 있도록 뒤늦게나마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습니다. 윤례가 혼자서 운영하던 기술준비실에도 사람들을 더 배치하고 실험기구들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것이 나의 계획대로 진척된 다음 이번에는 윤례의 소환을 내힘으로 웃기판에 상정시키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내가 도인민위원회의 소환장을 받고 강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몇해전에 그런 소환장을 받았더라면 나는 매우 기뻐했을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의 생활에 애착을 느끼고있었습니다. 윤례와 같은 사람들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한쪽이 텅 비는것만 같았습니다. 더우기 윤례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채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강흥땅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봄날저녁, 유명한 바람이 또 휘몰아쳤습니다. 역홈에서 10년동안 정든 공장사람들속에 서있는 나에게서는 모래알을 사정없이 얼굴에 들쑤우는 그 바람조차 정답고 귀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작별의 시각을 재촉하듯 기차가 목메인 소리로 기적을 울립니다.

나는 사람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고 열차의 승강대에 올라섰습니다. .

이때 사람들속을 헤치고 윤례가 보꾸레미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마에 내뿜은 땀방울들은 그가 얼마나 급한 걸음으로 달려왔는가를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윤례의 손을 쥐고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례는 은근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지배인동지는 제가 연구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지배인동지에게 전 언제든지 이야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초학도에 불과한 저를 권위있는 연구소에까지 소환하도록 상정된것도 제가 여기서 일한덕분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궁벽한 내고장사람들결에서 그들의 기쁨과 만족, 그들의 요구를 몸가까이 느낄수 없었다면 저는 아무일도 하지 못했을것입니

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기관도 저에게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이상 그래도 이곳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허영일것입니다. 자기기관 일것입니다...》

윤례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야 나는 내가 너무나도 이 처녀기사를 알지 못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윤례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도중식사꾸레미를 안겨주면서 《이건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일날마다 해주던 특식입니다. 아버지가 전선으로 나갈 때 무명보자기에 싸서 배낭에 넣어주던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고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면 고향과 고향사람들을 잊지 않고 배반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이고장에서 예로부터 터밭에서 심어오던 고구마를 말리워서 들깨잎과 기름에 튀긴것이었는데 그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윤례가 하던 말과 그 고구마튀기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떠나면 이고장을 배반할수 없다는 말의 뜻이 세월이 흐를수록 새롭게 생각됩니다...》

손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어느새 차창이 환히 밝아오는데 쿵, 쿵, 쿵, 차바퀴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릴뿐 그 누구도 말이 없다.

항해사도, 갑산내기청년도 또 평양에서부터 론쟁해왔다는 등뒤에 앉은 길손들도 제각기 생각에 잠겨있다.

(아아 그래서 윤례, 너는 그때 수도로 오지 못하였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강흥역이다!》

누군가 웨치는 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안이 법석 끓었다.

차가 벗어나기전부터 설레이던 사람들이 차칸에서 역홈으로 앞을 다투어 내리고있었다. 강흥역을 지나 먼길을 가야 할 손님들까지도 다 홈으로 내리는것을 보고 나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잠시후에 차칸에는 나와 몇몇 몸이 불편해보이는 로인들이 남았을뿐 텅 비다싶이 되었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홈에 내렸다.

그러자 이외의 광경앞에 넋을 빼앗기고말았다.

콩크리트로 포장한 넓은 홈안에 이동매대들이 짝 들어섰는데 매대와 매대마다 사람들로 붐비었다. 매대마다 몇겹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저마다 돈을 내들고 식료품들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고소한 들깨일향기가 달큰한 고구마냄새와 엷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독한 술처럼 온몸에 퍼지며 나를 향수에 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차칸에서 들은 강홍의 고구마튀기 생각이 났다. 그렇게도 유명해진 내 고향의 명물을 나도 맛을 보고싶었다.

나는 바로 곁에 있는 매대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비닐봉지에 꽃문양까지 놓은 여러빋갈의 식료품들이 높이 쟁겨진 매대는 잠간사이에 거덜이 나고 또 새로 실려오곤 했다.

아이들과 늙은이들, 멋쟁이처녀들이나 풍채 좋은 부인들, 체육인가방을 든 툼툼한 청년도, 무용수같은 몸매의 젊은 녀성도, 트렁크와 배낭, 손가방, 그 무엇에나 터질듯이 욕심스레 사서 쟁겨놓고 있었다. 나도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매대앞에 돈을 내밀었다.

《고구마튀기를 다 주시오.》

《고구마튀기는 다 팔렸습니다. 새로 나온 고구마단묵이 있는데요.》

친절한 처녀판매원은 나에게 새로 나온 고구마단묵에 대하여 신이 나서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윤례의 힌생이 바쳐진 고구마튀기이외의 다른것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식료공장 봉사자가 곧 올거예요.》

판매원의 말을 듣고 나는 풍성한 역구내를 천천히 거닐었다.

윤례의 고구마튀기가 이렇듯 큰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 한적하던 고향역을 흥성거리는데곳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나는 이 순간 오래전에 내가 찾아떠났던 시대의 벽찬 원줄기가 바로 여기 고향땅에도 줄기차게 뻗어있음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20~30대의 젊은 나이에 대형용광로나 해탄로, 압연분공장과 같은 만년대계의 벽찬 건설에 참가한것을 한생의 자랑으로 여겨왔으며 그후 기자가 된후에도 그것으로 하여 시대의 한복판에서 줄기차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고향의 작은 식료공장에 남은 윤례의 생활은 너무나 미미하게 흘러간다고 섭섭하게 생각했었다.

허나 고향역에 펼쳐진 한쪽의 생활은 윤례가 얼마나 벽차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주고있었다. 그야말로 시대의 기본흐름에 소용돌이치는 와류속에서 줄기차게 살아온 것이다.

대기념비적건물을 일으키는 과정도 아니고 학계를 놀래우는 발명도 아닌 내가 하찮게 여긴 작은것-고향의 고구마를 통하여 시대의 복판에 뛰여든 윤례! 그에 비겨보니 내가 걸어온 지난날과 그에 대한 긍지감조차 나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빛을 잃는것처럼 되어보였다.

아무리 벽찬 건설장에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윤례와 같은 열렬한 사랑을 송두리채 바치지 못한다면 그가 선 자리는 생활의 복판이 아니라 변두리로 되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곳에라도 거기에 윤례처럼 온 넋을 바친다면 그곳은 생활의 한복판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내가 취재목적지로 삼은 들끓는 생활이란 새로 개발된 광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나는 열차칸우에로 급히 뛰어올랐다. 선반에서 러행용 가방을 내리운 나는 잠시후에는 벌써 강홍을거리를 걷고있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 강홍식료공장에도 들려보려는 것이었다. 기차칸에서 듣고 역홈에서 본 사실들에서 받은 흥분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했다. 한시바삐 윤례를 만나고싶었다.

...윤례 ...생각만해도 가슴이 막 뚫어올랐다.

30년전 학창시절... 나는 환각에 빠지다싶이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다.

아, 소꿉시절의 그때처럼 잠시라도 만나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이런 누를수 없는 그리움과 욕망으로 하여 나의 눈앞이 뿌옇게 흐렸다. 가지가지의 동요시절의 일들이 되살아왔다.

새로 지은 5층살림집들이 준비하게 일어난 군당위원회 앞거리를 지나니 중앙은행지점앞에서 갈라진 도로길도 돌로 포장되어있었다.

그 길을 따라 한참 가서야 왼쪽으로 강홍식료공장의 정문이 바라보인다. 고향의 독특한 들깨일향기가 거기까지 미쳐왔다.

나는 달리다싶이 정문앞에까지 이르렀다.

《장윤례동무가 어느곳에 있습니까?》

나는 점수구에 대고 물었다.

《저기로 가보시오.》

점수구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청사쪽을 가리킨다. 흥분으로 하여 숨결은 더욱 높아만 진다. 지배인실에도 기사장실에도 나는 걸음을 멈추었으나 끝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사무실》이라고 쓴 방안을 기웃거리는데 한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왔다. 분홍색 문양이 있는 나이론브라우스를 입은 20대의 처녀였다.

나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를 장윤례로 빗보았던 것이다.

《누구를 찾나요?》

처녀가 묻는다.

《장윤례동무라구...》

처녀는 내가 말끝을 맺기도전에 청사 높은쪽 건물을 가리켜준다.

그 건물안에서는 기계소리가 들렸다. 기계소리

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이윽고 그 건물앞에 이른 나는 흥분을 애써 누르며 출입문고리를 당겼다.

건물안에서는 국수기계가 돌아가고있었는데 기대앞에 섰던 한 녀인이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그에게 장운례를 물으려 했다.

그런데 뚫어지게 마주보는 그 녀인의 눈길이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

주름으로 덮인 넓은 이마아래 쌍까풀진 맑은 눈이 몹시 눈에 익어보인다.

《석철동무!》하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거의 동시에 나의 입에서도 《운례!》라는 웨침이 터져나갔다.

운례는 랑팔을 벌리고 나에게로 마주 다가왔다. 그리고는 가루가 묻은 손으로 나의 손과 옷자락을 힘주어 부여잡는 것이었다.

《석철동무 변하지 않았구만요!》

《!》

맑고도 은근하던 운례의 목소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부드럽던 손길은 쫘쫘하고 거칠어졌다.

나는 아무말도 못했다. 서글프다고 할지 내 감정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문득 그의 귀밑에서 흰머리칼 하나가 나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무엇인가 예리한 칼이 가슴을 허비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다시 찬찬히 보니 흰머리칼은 귀밑과 뒤더수기에 몇대 더 보였다.

어쩐지 나의 가슴은 그 어떤 자책과 말로는 표현 못할 회오로 하여 찢어지는 듯 저리여왔다. 우리의 동요시절과 학창시절, 그뒤로 흘러간 30여년의 공감이 생생한 표상으로 가슴에 육박해왔다.

《...운례는 변했구만, 난 하마트면 몰라볼번했소.》

나는 저도 모르게 입에 배인 북쪽억양으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왜 변하지 않았나요. 벌써 우리 만이가 군대 가서 분대장이 되었는데...》

《분대장이라? 그거 대단하군.》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운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인상적인 그의 얼굴우에 내가 본 적이 없는 애젊은 분대장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운례의 아들이 강홍땅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안고간 고향은 돌 많고 척박한 고장만이 아니었으리라. 온 나라에 고구마고장으로 알려진 고향땅, 그것으로 하여 더욱 흥성거리게 된 벽찬 이고장

을 아들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운례와 같은 사람들이 한생을 바쳐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젊은 시절에 벽찬곳을 찾아 떠나간 땅, 내가 뒤에 남기고 떠나간 고향땅에 운례는 툇툼히 발을 붙이고 오랜 나날 값비싼 노력으로 오늘의 벽찬 고향을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나는 그앞에 뚫뚫하지 못했다. 큰일을 하기전에는 고향사람들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속다짐하며 떠나간 이후 어찌다 고향을 지나는 때에도 자신을 다잡고 그냥 스쳐지나기를 30여년동안...

그런 내가 오늘까지 이 땅에 보탬을 준것은 무엇인가?

돌아가는 기계는 더 요란한 소음을 내며 짙은 김을 피워올렸다.

운례가 기계와 나를 번갈아보며 미안한듯 속삭인다.

《귀한 손님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저 기계시운전이 있어서...》

《아, 그거야 기쁜일인데 내가 방해해선 안되지.》

나는 진심으로 새 기계의 시운전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자 운례는 나의 손을 놓더니 나의 손과 옷자락에 묻은 흰가루를 조심스레 털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날렵한 동작과 긴장한 몸가짐, 허식을 모르는 참된 웃음에서 다시 옛날의 운례를 보는 것만 같았다.

첫 대면에 나를 서글프게 했던 그 이마의 주름살들과 몇오리의 흰머리칼들은 이제 보니 운례의 젊음을 빼앗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맑은 눈길에선 영원히 늙을 줄 모르는 열정이 불타올랐고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에게서만이 볼수 있는 끝없는 환희만이 넘실거렸다.

...며칠후에 나는 운례가 만든 강홍의 식료품들, 들깨잎에 튀긴 고구마튀기와 고구마단묵, 각종 당과류와 이번엔 새로 만든 기계에서 뽑아낸 고구마국수로 트렁크를 가득 채워들고 역전으로 나갔다.

운례의 바래움을 받으면서 나는 새삼스레 내가 강홍태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운례와 같은 인간들이 그 어디나 있는 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흐뭇한지 몰랐다.

운례가 흔드는 손길이 점점 벌어져갈수록 나는 내 고향의 고구마튀기를 가지고 떠나면 이고장과 이고장 사람들을 잊지 않고 배반하지 못한다는 옛 전설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되었다.

낯설은 거리도 낯설지 않네 외 1편

한원희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가던 길 저만큼 되돌아가서
나를 불러 친절히 가리켜주네
아이들도 젊은이도 나 많은분도

그러면 낯설은 거리도 낯설지 않고
나서자란 고향처럼 정다워지네
푸르른 가로수도 충높은 집도
그 모두 내 집처럼 사랑이 가네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갈 때면
나도 그쪽으로 간다고

선뜻 내 짐을 들어주네
아이들도 젊은이도 나 많은분도

그러면 낯모를 사람들이 낯설지 않고
친근한 형제처럼 뜨거이 안겨오네
푸르른 하늘도 딛고선 땅도
나를 위해 있는듯 살뜰해지네

아, 내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가
이런 인민을 키워낸 조국을 위함이라면
이 한몸 서슴없이 바쳐갈 생각
문득문득 가슴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빈자리

두 손님이
전차에 오르니
빈자리는 하나였네
서로 낯모를 손님들
서로 앉기를 권했네
서로 굳이 사양하며
이렇게 한 정류소

이렇게 또 한 정류소
끝끝내 종착까지 남아있었네
빈자리 그 빈자리 하나

하지만 두가슴엔 빈자리가 없었네
평범한 나날에 남을 위한 그 마음
준엄한 나날엔 조국을 위할 한 마음
천금처럼 만금처럼 자리잡았네!

바다처럼 설레일밖에

구희천

어로공젊은이
먼 바다로 떠났어요
포구에 가공도선이 닿으면
제마음 실어보낼줄 알라며
사랑 없이야
그 무슨 청춘의 바다겠어요
그래서 천리밖 원양선단에 있어도
끝없이 실려오는 고기가 지척으로 만드느걸요

아, 그럴수밖에
떠날 때 내 가슴에
긴말 대신
또하나의 사랑의 바다를 옮겨놓고 간걸요
그러니 내 마음 설레일밖에
그저 기쁘고
그저 행복해

마흔해전 그 봄날은

정성환

그날을 생각하면
끝없이 걷고만싶구나
빵처럼 부푼 누런 흙덩이가
발밑에 푹푹 부서지는
논을 따라 밭을 따라 두령을 따라

마흔해전 봄이여
제이름 석자를 큼직이 써서
이 땅에 박으면서도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낮이 설던 그 말이여

예나 오늘이나 떨어져 못사는건 땅이건만
한목숨 불일 한치 땅이 없어
대대로 남의 살이 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
얼마나 많은 목숨 이 땅에 묻었던가

땅에 명줄을 걸고도
제땅을 한번 가져보기보다는
하늘의 별 따기가 더 쉽다는 생각
진정 마음에서 놓아본적 있었던가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해살처럼 퍼지는 꿈같은 소식
소문으론 신통 믿지를 못해
제 정신을 의심하던 그 마음들

가사

제땅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얼마나 목메여 울고 울었던가
-뵈옵고싶은 수령님
우리가 지금 제 밭을 갑니다

종다리 고운 노래 봄하늘에 띄워놓고
땅이 생겨 처음으로 제밭갈던 농민들
기쁘고 눈물겹고 자랑 많던 그날을
씨앗처럼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줄 때
해마다 봄은 어김도 없어
이제는 마흔번째-

땅이 생명인 그때문이었던가
땅이 주권인 그때문이었던가
땅이 그대로 설음이던 세상을
흘러간 세월끝에 구겨박고
어머니 가슴같이
안겨 시름없는 이 땅에
거름을 내는 화창한 이 봄날

배미마다 트랙포르 기세를 돋우고
기계화작업반 창고마다엔
기계들이 제철을 기다리거니
아, 정녕 마흔해전 그 봄날은
농민에게 생을 주고 주인된 권리를 준
영원한 봄날의 씨앗이었더라

항구의 밤이여

리광제

고요히 밤은 깊어 물결도 잔잔한데
바다의 젊은이들 잠들지 못하네
아,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 못잊어
배머리에 불 밝은 항구의 밤이여

파도에 거칠어진 이 손을 잡으시고
수령님 오래도록 항구에 계셨네

아, 바다의 청춘 우리 손목 잡아주신
아버이사람에 잠 못드는 밤이여

안개 낀 산천이여 정다운 거리여
또다시 파도넘어 우리는 떠나리
아, 수령님 그 사랑 가슴마다 뜨거워
맹세로 불라는 항구의 밤이여

렬차는 한산한 들판의 어느 한 작은 역에 멎어 손님 몇을 부리우고 또 그만한 수의 새 사람들을 태우고나자 기적소리를 울리며 서서히 떠나가 버리고말았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역홈에는 방금 렬차에서 내린 길손들만이 외롭게 남아있었다.

길손들이라야 극상해서 네사람뿐이었는데 하반바지저고리에 검정조끼를 이은 로인이 하나, 아이를 돌쳐업고 보통이를 든 농촌아낙네, 멀지 않은 친척집에 얼핏 다녀오는상실은 곤색학생복의 중학생, 그리고 흙 한끝 멀찌감치에 처녀가 외로이 서있을뿐이었다. 그 처녀는 이 사람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듯,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어깨를 파고들사한 소매 없는 하들하들한 분홍색원피스에 굽높은 하얀 구두를 신고 손에는 시누런 밤색트렁크를 들고있었다.

끄트머리에 반파마머리에 닭알형의 가름하면서 새하얀 얼굴, 쑥 빠진 가느다란 목에서는 노란 나비수건이 바람에 나풀대고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큰 기대가 일시에 허물어져나간듯 의기소침하여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빈번한 플레트홈에는 역원 한두명이 오락가락할뿐 자기를 마중하여나온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함흥에서 청진행 렬차를 타고올 때만 해도 얼마나 큰 기대와 꿈을 안고있었던가!!

비록 키낮은 간이역 지붕이긴 하지만 탄광처녀들이 꽃다발을 안고 달려나오고 악사들이 번쩍이는 악기들을 불어대며 열광적으로 환영해줄줄만 알았었다.

처녀는 역맞은쪽을 초연히 바라봤다. 거기서는 이쪽으로 너조역이 걸어오고있었다. 빨간 등글모자에 치마깃이 장판지우까지 내려올사한 철도제복을 입은 중년나이의 녀인이었다. 푸른 신호기와 빨간 신호기를 한손에 말아쥐고 목에는 호각을 걸머뻤는데 그것은 등뿔한 앞가슴우에서 간조롱히 흔들거렸다. 처녀는 한동안 망설이는 기색으로 조역을 지켜보다가 꺼져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기가 영천역이냐요?》

너조역은 선뜻 멈춰서서 의아한 표정으로 처녀의 아래우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마치 역사간판에 찍여진 글을 못보느냐고 따져묻기라도 할듯, 그리고는 출찰구쪽을 훑듯 가로보고 부드러운 목

소리로 말했다.

《예, 여기가 영천역이예요.》

《그럼 저… 명선탄광에 지원해온 사람들은 없었나요?》

《…아참, 젊은 청년들이 어제 저녁차로 탄광에 왔어요!》

잠시후 조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년을 하루같이 걸어다닌 이 구내길이 못내 정다운듯 사뻐사뻐 걸개말쪽에 다가가 거기에 꽂힌 통표를 가볍게 뽑아 한어깨에 둘러메자 사령실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처녀는(그의 이름은 최영옥이다.) 그늘진 낮빛에 고개를 짓속이고 출찰구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역을 나선 그는 한동안 하늘가를 쳐다봤다. 어둡기전에 탄광에 가낼수 있겠는지 아니면 어느려관집에 들어가 할지 망설여졌다.

영옥은 터빌터빌 맥없이 걸었다. 탄광지역임을 말해주듯 길 좌우편 가로수들, 정원수들 그리고 높낮은 집담벽과 집지붕들에는 탄가루가 배여 읍거리는 한결 거무칙칙해보였다.

회색작업복에 캡을 눌러쓰고 어깨에는 큰 팍사를 둘러멘 청년 하나가 허청허청 걸어오자 영옥은 무춤 걸음을 멈췄다. 마주오던 젊은이도 저자기 놀란듯 그자리에 우뚝 서버리고말았다.

영옥은 미안한 생각에 제면저 말을 건넸다.

《저… 저… 탄광에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젊은이는 무뚝뚝한 얼굴에 애써 선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낮이 찌프러졌다.

《이 길을 꼭 따라 곧추만 가십시오. 한 삼십리 될거웁니다.》

《그럼 려관은요?》

《려관이요? 이 길로 꼭 따라가다가 왼쪽길로 꺾어도십시오. 그럼 삼층집이 나지는데 그게 려관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만원일거웁니다. 더구나 녀자들이 따로 들…》

청년은 요즘처럼 손님이 많아서야 녀자들이 들방이 있겠느냐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다 말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영옥은 차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승리-58》형 자동차가 뽀얀 먼지속에서 달려오고있었다.

화물차가 옆을 지나려 하자 처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높이 추켜들었다.

《좀 타고가자요!》

순간 뻥-하고 자동차바퀴가 지칠어졌다.

차문이 벌컥 열리며 운전사가 튀어나왔다. 영옥은 차를 세워 안되었다는듯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차를 좀 타자요. 명선탄광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그럼 제각 올라타시오. 이 차가 명선탄광에 갑니다. 여, 철삼이 적재함에 올라타라구. 운전칸은 처녀한테 양보하구...》

《뭘 뭐... 네가요? 아, 나야... 아, 나야... 운전법을...》

젊은이는 어리벉벉해서 놀란 눈을 디룩거렸다.

《잠자코 올라가라면 올라가라구.》

운전사가 정색해서 말하자 림철삼은 영옥이 쪽을 흘끔 눈짓해보았다.

(허, 곱긴 고운데... 우리 운전사가 운行道중에는 차를 새우면 안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외우더니...)

그는 이런 생각에 괜히 기분이 들떠 많은 목소리로 지껄었다.

《예, 알았시다. 손님을 뒤에 태우는 법이야 있나요. 더구나 꽃시절엔 나비도 쌍쌍이라는데... 예라, 또 엉덩판이나 깨져보자.》

림철삼은 적재함 판자벽에 두손을 얹으며 코노래를 흥얼거렸다.

뽕따러 가세 뽕따러 가세

너와 나와 단둘이서 뽕따러 가세

《아니, 아니예요. 제가 뒤에 타겠어요.》

영옥이 적재함우에 트렁크를 올려실으며 창창히 부르짖었다.

《처녀동무, 앓소. 그런 싱검둥이말은 듣지 마오...》

하지만 영옥은 굳이 사양하며 적재함에 올라탔다. 드디어 자동차는 떠나갔다. ...

영옥은 적재함뒤에 앉아있었다. 앞에는 콘드라바스며 바이올린, 기타, 북 따위들이 실려있었다.

학교때 영옥이가 타던 손풍금도 있었다. 아마도 탄광에술소조원들의 악기를 실어가는 모양이었다. 철삼이라는 청년의 말마따나 자동차는 세판게 들까불었다. 다행히 가마니 몇짝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덩이가 깨어져나갈것 같았다. 차가 들출 때마다 회오리같은 먼지구름이 뽕양게 떠올랐다.

처녀는 목에서 나비수건을 풀어 머리를 썼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녕 이게 꿈이 아닌가싶었다. 어제만 해도 변화한 함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학교동창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지않았던가, 그런데 그새 몇시간동안에 자기가 이런 허허벌판에 덩그략게 나타나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제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 독신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외롭고

도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는 길아닌 길을 가고있었다. 잡풀들이 우거지고 탄면지가루가 풀썩거리는 들판을 달렸다. 길이란게 고작해서 앞서간 자동차들의 차바퀴자리뿐이었다.

먼발치에 하얀 거위떼가 뚱기적거리며 나타나자 철삼은 운전사에게서 운전대를 가로채여 성급히 외로 돌렸다. 자동차는 지그자그로 무섭게 달려갔다. 거위들은 질겁하여 짹짹 급한 소리를 지르며 하얀 물거품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갔다.

교대를 마친 탄광처녀들이 마주오자 이번에는 림철삼이 운전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며 키득거렸다. 자동차는 물웅덩이결을 쏙살같이 지나갔다.

《하하하! ... 허허허! ...》

철삼은 차창밖으로 기린같은 목을 쭉 빼여들고 신이 나서 웃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기겁을 떨던 처녀들이 일제히 차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뭐라고 떠들썩 고아댔다. 철삼은 처녀들을 한바탕 혼내준것이 못내 가슴흐뭇한듯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 한알을 꺼내어 씨걱씨걱 베어먹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자동차는 드넓은 푸른 강물이 설레이는 툭 트인 강변 자갈길에 이르렀다.

차문이 열리며 기름묻은 작업모가 튀겨나왔다.

《처녀동무, 어서 좀 내리시오.》

운전사가 적재함 꿈무늬를 뺐다.

《미안하지만 우리하고 둘이나 같이 실읍시다.》

이곳 운전사들은 어느때나 돌이며 모래, 흙 같은것을 싣고다니다가 움푹 패인 길이 있으면 그것을 의례히 메우고 가는것을 자기들의 관례처럼 여겨오느러였다.

얼마후 자동차는 다시 길을 떠났다.

서쪽하늘에는 저녁노을이 곱게 피어있었다. 영옥은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모교인 자동화전문학교 교실창문가에 서있을 때처럼.

꿈많은 학교시절에는 노을이 정말 꽃무지개인양 황홀했었다. 자기가 탄광을 지원하자 담임선생과 학급동무들이 얼마나 놀라와했던가.

그날도 저녁노을은 저렇게 빨갛게 불타고있었다. 영옥은 깊은 명상에 잠겨 한동안 창문가에서 물러나지 않았었다. 자기의 미래가 저 노을빛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찬란할것만 같았던것이다.

어떤 동무들은 좋은 텔레비죤수리소같은데를 두고 하필이면 탄광에 나갔건 뭐냐고 입을 삐죽거렸고 어떤 동무들은 자기를 그 무슨 대단한 영웅처럼 전망어린 눈빛으로 보았다.

바로 자신의 미래처럼만 생각되던 그 노을이 지금 탄광지구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는것이였다. 영옥은 애잡잡한 생각에 눈곱이 후터워움을 느꼈다. ...

어느 여름방학 영옥은 오빠와 함께 함흥대극장에서 혁명가극을 구경하고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

오고있었다. 황철나무들이 소소리 높이 줄지어선
아스팔트길로는 자동차들이 뿔뿔 바람을 일으켜
분주히 지나쳤다.

영옥은 그날따라 이런 드넓은 거리를 활보하며
걸기가 왜선지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였다.

《오빠, 이런 길은 맨처음 어떻게 생겼을까?》

영옥은 공상에 잠긴 눈빛으로 곧추 뻗은 길이
며 푸르싱싱한 전야, 그리고 솜덩이같은 구름송
이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봄하늘을 취한듯 바
라보았다.

《어느 작가가 말한것처럼 길이란 다니는 사람
들이 많아지면서 저절로 생긴거지.》 하고 오빠는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그래도 이 길을 맨먼저 걸어간 사람은 있었겠
지?》

《거야 있었겠지. 하지만 그걸 누가 기억이나
한다구...》

영옥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기만 하였다.

《애 영옥아, 요즈음 네 문제로 어머니와 아버
지가 무척 속을 썩이는것 같더라. 아버님은 원래
입이 무거우셔서 아무 말씀 안하시지만 어머니
는 하루에도 몇번씩 한숨을 쉰다.》

영옥은 말없이 고개만 수그렸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꼭 탄광에 나가야만 하
겠느냐.》

오빠는 반신반의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글쎄요. 전 어머니가 기뻐할줄 알았는데...》

영옥은 주뿔주뿔 말끝을 흐려버렸다.

《뭐? 어머니가 기뻐한다구...》

어처구니없는지 오빠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동생을 쓸쓸히 굽어보았다.

《오빠, 전 아버지가 한밤에도 석탄문제로 주무
시지 못하는걸 보면 막 안타까와 울고싶었어요.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늘어나는 경제적수요에 맞
게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구
경제란 어떤것인지 알기나 하니? 경제란 네가 생
각하는것처럼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오빠는 입을 꾹꾹 다시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는데로 석탄만 더 많이
쏟아질수만 있다면 나는 막 행복할것 같아요.》

영옥의 눈은 금시 검은 구름이 가시듯 환히 밝
아지는것 같았다.

《천진스럽구나. 행복이요, 희망이요 하는건 다
제멋대로만 된다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야. 그런것
들은 다 생각할나름이니까. 나도 중학교를 졸업
하고 공과대학을 지망했을 때 어머니가 반대하자
자신을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러나
외국어대학을 다니면서는 외국어도 꽤찮은 학문
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희망이요, 행복이요 하는
게 다 그런거란다.》

네가 탄광에 지원나가면 큰일을 할것 같지...

하지만 막상 나가봐라. 그렇게 되나. 더구나 너같
은 헛내기가 탄광기계화를 해보겠다구, 흥.》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
겠나요. 오빠말처럼 희망도 행복도 이 땅우의 길
과 같은것이라면 땅우에는 본시 길이 없지 않았
나요. 팔짱만 끼고앉아서 넘볼 외우듯 걱정이나
해서야 도대체 인간은 자기 꿈을 어떻게 실현해
보겠나요.》

《됐다. 그만해라... 어쨌든 세상일은 혼자서만
은 안돼.》

오빠는 저도 몰래 무거운 한숨을 후- 하고 내
쉬었다.

가로수길 양옆에는 푸른 발들이 어슴푸레 펼쳐
지고 검푸른 하늘에는 둥근달이 두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겨운 침묵속에서 가로등빛이 휘황한
거리로 들어섰다. 그때 오빠의 말이 혹 옳지 않
았을가... 영옥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스스로 도
리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얼
마나 많은 애들은 청년들이 간석지로,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하고있는가!

어제 신문에는 철의 기지로 떠나가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신문 전면에 요란하게 소개되었었
다. 그런데 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까
지 용약 사회주의건설장에 떨쳐나서는데... 하물
며 전문학교까지 나온 내가...

영옥은 잠시나마 주저하고 동요한 자신이 끝없
이 밍살스럽고 저주로왔다. 그리하여 그는 단연
코 큰 결심을 품고 이렇게 먼길을 떠나온것이였
다.

자동차는 한동안 강변을 끼고 달렸다.

차는 물흙채기에 이르자 또 멎어섰다. 기름문
은 작업모가 튕겨나왔다.

《처녀동무, 좀 내리시오.》

철삼이 적재함 옆문을 땀다.

적재함의 가마니와 돌을 부리고나자 곧 길땀이
에 달라붙었다.

흙채기에 돌을 처넣고 가마니에 흙을 담아 날
랐다.

운전사는 길을 메우고나자 이마의 땀을 손등으
로 뿜 문지르고 옷주머니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
물었다.

《동무는 어디서 오우?》

《함흥에서요...》

《히야 좋겠구나. 함흥체네는...》

하고 림철삼이 어중에 끼여들었다.

《아니아니, 전 탄광에 지원왔어요...》

영옥은 귀뿌리까지 새빨개졌다.

《지원?! 정말이요?! 글쎄 어쩐지... 자, 내 이름
은 조영철이라고 하오. 알고지냈시다!》

운전사는 술뚜껑같은 거룩진 손으로 영옥의 조
마구만한 하얀 손을 꼭 그러쥐었다.

《저는 최영옥이라고 해요.》

영옥은 총각앞에서 새빠지게 제 이름부터 소개하는것 같아 부끄러웠다.

《반갑긴한데, 꽤 견뎌낼까? 우리같은 남자들도 힘들어하는데...》

림철삼이 입빠르게 웅얼댔다.

《그건 저도 알아요. 탄광기계화를 좀 실현해볼테어요.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가야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호호호》

《그렇소?! 여하튼 고맙소.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주니 아니 지원이 아니라 이젠 한식구가 된셈이지...》

《그렇지요. 벌써 우리하고 이렇게 길땀이까지 하는걸요.》

철삼은 조영철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큰눈을 흘끔거렸다.

《그런데 이 흠채기는 어떻게 된거나요?》

《이거 말이요. 이제 길을 내는중이라오. 탄광차들이 한번씩 오가면서 새길을 닦지요. 한차가 가고 두차가 가고 세차가 가노라면... 이제 큰길이 나질거요. 우리 생활이란게 원래 그런거지요. 첫사람이 터전을 잡으면 다음 사람이 집을 짓고 그다음 사람이 정원을 꾸리고... 이렇게 제손으로 뭔가 꾸려나가는 것처럼 재미난게야 없지요.》

잠시후 자동차는 탄광쪽으로 길을 떠났다.

어느덧 하늘에서는 검은 막을 짜내리듯 어둠이 층층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언덕받이를 오르고있었다. 앵앵 단김을 뿜으며 가파로운 경사지를 오르다가 자동차는 커다란 바위돌을 타고넘는듯 후들쩍 뛰어올라 후미진 수렁창에 구겨박혔다.

팡! 차문이 여닫기는 소리, 운전사의 투덜거림.

《에익 빌어먹을! 또 사고요. 제시간에 대긴 다들렸소.》

《스프링이 부러졌나봐요.》

《그런것 같소.》

조영철은 어느새 차바퀴밑으로 기여들었다.

철삼과 영옥은 주변의 나무검불로 모닥불을 지켰다.

나무가지들 꺾다 말고 철삼은 영옥을 넌지시 지켜보았다.

《그래... 역에는 아무도 마중나오지 않았습데까?》

《예.》

《원 저런 그럴법도 있나. 간부들이 정말 무관심하단말이야. 그저 생산, 생산하면서 이젠 인사법도 없다니까. 하긴 오늘이 이달계획 마지막날이지.》

《그래요?!》

《...그럼 내라도 동무의 첫 사회진출을 축하해줘야겠군.》

철삼은 황황히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잠시후 그는 들꽃을 한다발 꺾어 들고 나타났다.

《사회주의건설장에 탄원해온걸 축하합니다.》

철삼은 영옥의 봉긋한 앞가슴에 들꽃을 안겨주었다.

《철삼동무, 고마와요.》

《하하하.》

《호호호.》

《영옥동무, 이젠 빛을 다 갚은셈이요. 우리 간부들을 섬심히 생각 마오. 우리 탄광은 신설중이 돼서 갱건설과 생산이 동시에 벌어져 이만저만 바쁘지 않소.》

이때 차밑에서 기여나온 조영철이 옷자락을 툭 툭 털며 모닥불앞에 다가왔다.

《철삼이, 제각 탄광에 가서 스프링을 메고오우.

나하고 영옥동무는 그새에 차를 꺼내놓을테니.》

《아니 이 밤중예요?》

《그럼 탄광이 코앞인데 여기서 온밤 이러구있겠다. 탄광에 진출해오는 영옥동무의 <환영>모임이 늦어지겠는데...》

《알았시다.》 애어린 처녀앞에서 힘이나 얻은듯 어둠속으로 썩하고 사라지는 철삼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대견스러웠다.

...그들은 한동안 모닥불가에 앉아있었다.

《영옥동무는 오늘 마음이 불쾌했을거요.》

《그건 왜요?》

《왜라니? 첫 사회진출이 이렇게 엉성하게 돼와서...》

《그거야 뭐...》 영옥은 말꼬리를 흐렸다.

《허지만 오늘이 더 인상깊어질게요. 환영곡이나 들으면서 진출한것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게란말이요. 첫날부터 동무는 이렇게 고귀한 땀을 바치고있거든. 그 누구도 모르게 길까지 내면서말이요!》

《이것도 뭐 일이라구요?》

《일이 아니라니?! 우리로 말하면 이 탄광의 첫 개발자들이요. 우리가 여기로 처음 올 땐 수렁진펄밖에 없었소. 무릎까지 빠지며 무거운 배낭을 메고 탄광까지 걸어갔댔소.》

《정말이예요?!》

《정말 아니문, 동무도 지금은 춥고 피곤할테지. 허지만 그제 다 인상에 남습디다.》

영옥은 깊은 생각속에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만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먼 들숲에서 부엉이가 《부엉!》 《부엉!》 울고있었다.

서늘한 밤바람에 두 어깨죽지가 시려왔다.

뿌지직 송진끓는 소리, 탁탁 숯불이 뛰는 소리, 어데선가 흐느끼는듯한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영옥의 엷은 가슴노리를 찢릿하게 훑어냈다.

그는 이 밤따라 아버지가 무척 보고싶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계실까, 계획을 토론했고계실까, 아니면 어느 탄광의 생산실적을 료해하고계실까... 도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도 보람찬 사업을 하고계시는가 하는것을 영옥은 중학교를 졸업할무렵에야 비로소 잘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 그는 껍하먼 동네애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부위원장이야!》 하고 뽐내기를 좋아하였다

아버지는 한밤중에도 탄광들에 전화를 걸어 생산정형을 알아봐야 했고 달마다 있는 출장으로 집을 떠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도 도내의 석탄생산이 부쩍 올라가면 누구보다도 희색이 만면해서 좋아하였고 생산이 조금만 떨어저도 누구보다 울적한 심정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였다.

언젠가 한번은 아버지가 늦게 집에 돌아오셨다. 거똥한 낮빛에 침침한 그늘이 비껴 한결 지쳐보였다.

영옥은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며 공손히 물었다.

《아버지, 전쟁때 상처가 도지셨나요?》

《아니... 그저 회의를 좀 하고 오는 길이다.》

아버지는 영옥이 깔아준 꽃방석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영옥아, 정말 힘들구나. 석탄생산을 올려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결의는 다졌지만 아직도... 내 평생 석탄을 한번 폭폭 맘껏 퍼내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의 아버지얼굴이 지금도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았다.

그후부터 어찌된 일인지 딱히 알수는 없지만 나라일이라면 의례히 아버지와 석탄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 탄광소식이든지 신문에 실리기만 해도 아버지의 웃는 얼굴부터 그려보는 버릇이 붙게 되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움트고 자라 이렇게 오늘처럼 탄광으로 떠나오게 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처녀는 줄곧 생각에 잠겨 나무아지를 꺾어 우등불에 처넣고있었다. 가무스레하고 동실한 어여쁜 얼굴은 생기가 없고 한결 구슬퍼 보였다. 다소곳이 앉은 처녀의 앉음새며 류달리 애수가 비낀듯 명상에 잠긴 두눈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다. 그 애수속에는 순정의 불꽃과도 같은 진실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엿보였다.

처녀는 불길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나직이 말하였다.

《그래 운전사동무는 이 고장이 마음에 드세

요?》

《아무렴 들다마다. 나는 여기를 떠나서는 살수가 없을것 같소. 이 강물엔 물고기가 많다니까. 흘림낚시만 던지면 그저 그만이지. 왜 그것뿐이겠소. 저 동쪽이며 그 아래 서있는 버드나무 그리고 저쪽 어슴푸레한 나무숲이 이젠 매일 보아서 그런지 낯익구 정답다니까요.》

바로 이때 밤공기를 타고 단속적인 기적소리가 메아리처럼 길게 울려퍼졌다.

《16호차가 떠나는군. 막차요... 여섯탕은 해결했구만.》

하고 운전사는 감명어린 목소리로 중얼대었다. 《여섯탕이라니요? ... 16호차라는건 어떻게 알아요?》

《거 말이요... 소리를 들으면 인차 알지. 마치도 그리운 사람은 발자국소리만 듣고도 알듯이 말이오...》

《호호 그래요. 그런데 전 정다운 고장, 그리운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왔어요. ...》

처녀는 호 하고 모두숨을 지으며 눈시울을 내리깔았다. 순간 눈곱에 눈물이 젖어올라서인지 아니면 맑고 깨끗한 눈동자에 불광이 비껴서인지 어쨌든 그 무엇이 평긋하고 불꽃을 일구는것 같았다.

《그러니까 고향도시가 그림단말이지요...》

《예...》 하고 처녀는 기여드는 입속말로 수응하였다.

《후회가 되는 모양이구만요. 그렇소?》

그제서야 처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운전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다니요. 전 결코 후회를 안합니다. 다만 나서 자란 모든것을 잃은것만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것 같고 쓸쓸해지지요.》

마침내 조영철이 벌떡 일어섰다.

《영옥동무, 여기 혼자 있겠소? 아니면 협동농장에 가서 트랙토르를 한대 빌려오겠소?》

영옥은 꿈속에서 깨어난듯 한동안 어리벙벙해있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가.

《내 생각엔 남아있는게 좋을것 같소. 정 무서우면 차안에서 한참 푹 자요.》

운전사는 떠나갈 차비를 서둘렀다.

《아니, 제가 갔다오겠어요. 트랙토르를 끌고오겠어요.》

《동무가?》조영철은 그의 아래우를 쭉 훑어보았다. 잠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수응하듯 말하였다.

《그럼 얼른 갔다오우. 한 이십분이면 갈수 있소.》

영옥은 허둥지둥 어둠속으로 달려갔다. 조영철이 그의 등뒤에 대고 소리쳤다.

《어떻게 해서라도 트랙토르를 끌고와야 하오.》

기계화작업반에 이른 영옥은 하얀 손수건으로 목줄기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경비실에서는 웬 로인이 돋보기를 긴채 곰방대를 뿅뿅 빨고있었다.

《체네는 무슨 일로 왔소? 이 밤중에...》

《프락포르를 좀 빌려주세요.》

《프락포르라니?》

로인은 제 귀를 의심하듯 영옥의 얼굴을 쳐다봤다.

《자동차가 수렁창에 빠졌는데 좀 건질려구요.》

로인은 좀 생각해보는듯 눈귀를 쪼프렸다.

《그건 안된당이, 이 밤중에 어떻게 프락포르를 쓴다구.》

《아이참, 좀 도와주세요. 오늘밤으로 탄광에 꼭 가야 해요.》

《음, 명선탄광찬가? 글썄 우리 농장이 탄광신세를 지는걸 봐서는 모르쇠할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금은 안된당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프락포르가 저렇게 많은데...》

《히허허, 이 체네 아직 문세를 모르는고만. 운전수가 없당이. 체네, 그러지 말고 아침에 오우.》

《아이 좀 도와주세요.》 영옥은 울상이 되었다.

로인은 난처한듯 한동안 담배만 뽕뽕 빨았다.

《체네, 그러지 말고 내 소 두짝을 빌려주지.》

영옥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딱히 결심이 가지 않았다. 자기는 농장에 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프락포르 한대쯤 쉬이 얻으려니 하였다. 누가 감히 남의 불행을 강건너 불보듯하겠는가. 그런데 소 두짝을 주다니, 설사 소를 얻는다쳐도 그걸 누가 몰고가겠는가, 자기는 난상 소라고는 먼발치에서 밖에 보지 못했다. 게다가 다뤄볼 엄두는 더욱 내보지도 못했었다. 항차 성미사나운 황소임에랴.

로인은 영옥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본듯하였다.

《황소를 몰줄 모르면 저기 큰길까지 내가 데려다주지.》

로인은 소고삐를 든든히 틀어쥐자 채찍으로 소찬등을 가볍게 후렷했다.

《이라... 길길...》

둘은 나란히 눈뚫길로 걸어갔다. 눈물에서는 개구리들이 성수나서 울어대고 물도랑에선 뿡뿡이들이 《뿡뿡》 《뿡뿡》 가락맞게 합창을 했다. 어젯가 시커먼 풀송구리속에서는 쓰르라미들이 쓰르르 외롭게 울었다.

그들이 다가가면 개구리며 뿡뿡이들이 딱 울음을 그쳤다가 멀어져가면 다시금 승벽내기로 기세차게 울어댔다. 가택질하며 그 누구를 놀려나주려는듯.

검푸른 하늘에는 록주석을 뿌려놓은듯 못벌들이 총총하고 쟁반같은 둥근달이 천하를 밝게 비쳐주고있었다. 산이며 들판이며 어데를 보나 온가루를 뿌려놓은듯 온통 눈이 부셨다.

로인은 허연 머리에 둥근 농립모를 제껴쓰고 등뒤에 푸른 연기를 날리면서 천천히 가재걸음을 하였다.

《체네는 여기서 일한지 오라나?》

《아니요, 전... 지원했어요.》

《음, 어쩐지 좀 다르다했당이, 그러니까 우리 고장엔 처음 와보겠소?》

《예.》

《체네, 우리고장은 살기가 좋다우. 논이 있지. 밭이 있지, 벌도 끼고 산도 겹당이. 지금이야 산과 벌을 다 끼고있어야 좋다우. 게다가 탄광까지 개발되어 뽕 걱정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여간만 좋아하지 않는다우. 들리는 말에는 멀지않아 화력발전소도 선다면서, 뭐 그러면 집집마다 온수가 들어온대. 우리 농사군들의 집에도 온수가 들어올가? 하긴 그게 무슨 상관이란.》

《아바인 여기서 산지 오래되셨나요?》

《나?》 로인은 곰방대를 빼여물었다. 《오십넉은 잘살았지... 내가 여덟살때 부모따라 왔으니까. 그때는 이 일대가 모두 무성한 갈밭뿐이었다오. 그런걸 한집두집 모여 갈밭을 일구고 길을 내어 이런 큰 마을이 생겨났다우.》

《네...》

어젯가 가까운 과수밭속에서는 밤피꼬리의 청맑은 노래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피꿀... 피꿀꿀... 꿀...》

길양옆에 활짝 핀 구름같은 벚꽃들은 뽕안 달빛속에 신기루가 비친듯 하얀 물안개가 피여오른듯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철철 흘러넘는 잔잔한 물도랑에는 둥근달이 조각조각 비껴 마치 하얀 은비녀가 물속에 무수히 잠겨 금시 쟁그랑하고 은방울같은 맑은 소리를 낼듯싶었다.

영옥은 시원한 밤공기를 가슴뿌듯이 들이키며 행복에 겨운 눈빛으로 주위를 어루쓸듯 다정히 둘러보았다.

드디어 그들은 넓은 큰길에 나섰다.

《일췌 차를 꺼내구선 소를 인차 돌려보내야 해.》

《알았어요. 넘려마세요.》

영옥은 황소 두마리를 끌고 큰길로 걸어갔다.

주인과 갈라진 황소들은 《음-매》 하고 느리게 영각을 하였다.

조영철은 그만 소방울소리에 잠깐 놀라 벌떡 일어났다. 정녕 뜻밖이었다. 이젠 경비실에서나 자려니 했던 나어린 처녀가 소를 끌고올줄은 정말 몰랐다.

조영철은 영옥이가 내미는 소고삐를 받아쥐었다.

《영옥동무, 정말 수고했소.》

《수고랄게 뭐 있나요. 이제 다 우리 일인데.》

《하! 우리 일이라... 정말 말 잘했소. 동무는 꼭

우리 탄광에 정이 들게요.》

조영철은 그 무슨 예언자나 되는듯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자기가 처녀를 일깨워주는 것처럼 말은 하였으나 사실은 애 어린 그가 영철에게 말없이 주는 것이 더 많았다. 영철은 멍에채의 바줄을 자동차 견인고리에 든든히 잡아맸다.

《영옥동무, 그래 자동차를 몰아보겠소. 아니면 소를 끌어보겠소. 허허허.》

조영철은 먼구스럽게 귀바퀴를 슬슬 문질렀다.

《아이참... 자동차도 몰줄 모르지 소도 끌줄 모르지...》하고 영옥은 기어드는 목청으로 웅얼거렸다.

난생처음 사회진출이라는것을 해보니 자기가 너무도 세상일을 모르고 살아온것만 같았다. 지금처럼 일할줄 모르는것을 이렇게까지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본적은 일찌기 없었던것 같았다.

《...저는 소를 몰겠어요.》

영옥은 운전사의 손에서 소고삐를 잡아쥐었다....

드디어 왈카닥거리며 용을 쓰던 자동차가 수령장에서 빠져나왔다.

영옥은 이마의 땀을 씻으며 우등불가로 다가갔다. 그 무슨 큰 일을 치르고난것처럼 마음은 마냥 후련했다.

(아, 일이란 이런것인가!!...)

《내 그럴줄 알았다니. 그녀석이 울리가 만무하지. 제기랄.》

조영철이 차걸로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그는 스프링을 다시 살펴보려는듯 불뭉치를 들고 차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윽고 차밑에서 기어나온 그는 기뻐서 부르짖었다.

《영옥동무, 됐소. 스프링이 두개밖에 부러지지 않았소. 갈수 있소!!》

한동안 그들은 풀밭위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달빛을 안은 탁 트인 벌판에서는 나무들의 숨결소리런듯 단조로운 설레임소리가 들리고 강변에서는 잠에 취한 강물의 잠꼬대같은 여울물소리가 도란도란 가락맞게 들려왔다. 거뿔한 나무 상수리들이 조울듯 흐느적거리고 동쪽의 풀잎들은 바람에 가벼이 춤을 추었다.

조영철은 섬약한 처녀가 가궁히 여겨져 아무쪼록 위안해주고 싶어졌다.

《영옥동무... 좀 일해보다가 힘들면 다시 가보오. 여기서는 힘꼴개나 쓴다는 남정들도 고되다고 하니까...》

처녀는 빙그레 가벼운 미소를 지은채 주위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아니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지요. 저는 탄광을 지원해야 할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석탄때문에 고심하는 때가 많은걸요. ...문제는 이

낯선 고장에 와서 제 고향사람들 못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정다운것을 찾아내야 하는거지요. 그러자면 이 땅을 사랑할수 있도록 제땀을 성실히 바쳐야 하는거예요.》

처녀는 자기가 너무도 도담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싶어 은근히 거북살스러운듯 아래볼을 살짝 붉힌채 고개를 가웃이 숙여버렸다.

자동차가 탄광쪽으로 다시 떠나간것은 장미빛 아침노을이 저탄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때였다.

조영철은 가속답판을 밟았다. 나무며 전주며 집들이 차창밖으로 휙휙 지나가고 시커먼 땅이 춤추듯 빙그르 돌아갔다.

어연 자동차는 탄광지구에 들어섰다. 체비 한쌍이 저탄장이 바라보이는 하늘가로 날아갔다.

첼콘베아가 돌아가는 배탄장에서는 무연탄이 끊임없이 폭포쳐내렸다. 버력산우로는 밀차가 천천히 기어오르고 공중에서는 석탄을 듬뿍 실은 삭도들이 춤추듯 어데론가 씩없이 흘러갔다.

조영철은 운전대를 틀어쥐고 흥이 나서 입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자동차가 마을길 초입에 들어설무렵이었다. 모자를 눈우까지 폭 눌러쓴 웬 사나이가 어깨우에 커다란 쇠불이를 둘러메고 스펙스적 걸어오고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림철삼이었다. 자동차를 본 순간 그는 모자를 벗어 힘껏 흔들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해서 차를 마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영철은 어찌선지 차를 멈춰세울념을 않고 그옆을 쏜살같이 지나치고말았다.

철삼은 모자를 내두르며 차를 따라 《어이! 어이!!》 하고 소리쳤다.

《차를 세워요. 빨리!!》

영옥은 철삼을 태우지 않는 조영철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조영철은 허둥지둥 달려오는 림철삼을 후사경으로 지켜보았다.

《영옥동무, 그간 일에 상관하지 마오!》

《아이참, 좀 태우고 가자요. 《영옥동무, 그간 일에 상관하지 마오!》

《허허허... 우린 뒤떨어진 사람은 원래 기다리지않소, 여기 법이 원래 그렇소. 시간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달리지 뒤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만 달립시다. 전진!!》

《호호호...》

어느덧 자동차는 탄광입구에 들어섰다. 정문에 모여섰던 녀성들이 《자동차다!》 하고 일제히 환호를 올렸다. 그들은 멈춰서는 자동차를 날쌔게 에워쌌다. 어떤 처녀는 벌써 영옥이가 타고있는 운전칸문에 훌쩍 뛰어올랐다.

《야, 요 깜찍한것! 너 날쌔게 운전칸을 차지했

구나!!》

그 처녀는 영옥이를 제동무로 잘못 보고 이렇게 웅알거렸다.

영옥이가 대답없자 상대방을 다시금 찬찬히 눈여겨본 그 처녀는 활기띤 목소리로 사과하듯 중얼거렸다.

《아이참, 난 잘못 알았구나. 하긴 뭐라니, 이제 곧 친해지겠는걸 친하자꾸나. 벌써 마음이 통해 길이 확 열리는것 같구나 애!》

그리고는 자동차 디딤판에서 천천히 내려섰다. 산기슭에서 금낭화며 처녀꽃, 갯매꽃을 꺾던 처녀들이 뒤늦게 허둥지둥 자동차쪽으로 뛰어왔다. 팔랑이같은 처녀 하나가 꽃뭉음을 안은채 다짜고짜 자동차디딤판우에 성큼 올라서더니 차문을 벌떡 열어제겼다.

그는 영옥의 앞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랑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 온 문화지도원동지를 축하해요!》

그리고 운전사한테는 생긋 웃음을 지어보였다.

《운전사동무도 악기들을 실어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다음 차문을 도로 벌려 닫고나자 적재함우에 제각 올랐다. 아마도 악기들을 구경하고싶은 모양이었다.

《허허허...》

《호호호...》

이윽고 처녀들이 련달아 달려와 갖가지 화려한 꽃다발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조영철과 최영옥은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해서 두눈만 습뻐거렸다.

...후에 알고보니 이번 《환영사업》은 림철삼이가 조직한것이였다. 그는 탄광에 도착하자마자 료전기채창고에 들러 스프링을 얻은 다음 곧장 운탄직장 휴게실로 향하였다.

휴게실에는 방금 작업을 마친 처녀들이 앉아있었다.

철삼은 휴게실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황급히 방안에 들어섰다.

《동무들, 희소식이요!!》 하고 그는 큰소리로 웨쳤다.

《무슨 일이에요?》

처녀들은 의아하여 철삼의 류달리 엷은 입술만 뵈히 지켜보았다.

림철삼은 어깨춤만 무겁게 실뿐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처녀들이 재차 다그쳐물어서야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스레 말하였다.

《악기들이 도착했소!!》

《만세!》

처녀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이지요!!》 하고 철삼이는 범잡은 포수마냥 득의만면하여 방안을 위엄있게

휘둘러보며 부르짖었다.

《또 뭐예요?》

처녀들은 저저마다 겨금내기로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림철삼은 여전히 모두숨만 내쉬었다.

처녀 하나가 따지듯 물어서야 마치 비밀이나 알려주듯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했다.

《거 우리 탄광에 문화지도원이 지원해서 새로 왔소! 정말 멋진 신식처녀요... 같이 오면서 사귀었는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처녀였소! 기타, 손풍금, 바이올린 못타는 악기가 없소. 오면서 손풍금을 타는걸 들었는데 기가 딱 막히요. 최영옥이라고 하는 처녀요.》

철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옥이에 대한 없는 사랑을 늘어놓았다. 말을 때놓고보니 철삼의 가슴속에 남몰래 찾아든 영옥이야말로 알지 못할 그 어떤 강한 힘을 지니고있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자기의 마음속에 길을 열어주는것 같았다. 그 길로 지금 철삼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내고있지 않는가! 지금 철삼은 그 기특한 영옥이에게 들판에서 겪은 들꽃뭉음만이 아닌 더 큰것을 안겨주고싶었다.

그는 갑자기 선동원이라도 된듯 이번에는 모자까지 벗어취고 열변을 토했다.

《동무들! 그러니 우리모두 그들을 환영하러 떠납시다! 샵을 하나씩 돌려메고...》

《샵이요?》 하고 처녀 하나가 눈이 울롱해서 철삼을 쳐다봤다.

《응, 그건말이오...》 하고 철삼은 갑자기 주눅이 들어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건말이오. ...자동차가 오다가 수령창에 구겨박혔소. 그러니 우리는 환영할 겸 겸사겸사로 길담이도 하잔말이오. 어땡소? ! 님도 볼 겸 뽕도 딸 겸이라는데...》

철삼은 비호같이 방안을 뛰쳐나갔다.

철삼의 능청스러운 소리에 처녀로동자들은 꺾삼을 하나씩 돌려메고 림철삼을 따라나서던 참이였었다.

자동차는 다시 길을 떠났다.

마침 먼 들판 한끝에서 황금수레같은 아침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적재함에 타고있던 처녀들이 《아침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침해를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한껏 어려있었다.

영옥은 어째선지 마음이 마냥 즐겁게만 하고 저도 몰래 자꾸 웃고만싶었다.

(처녀들은 굴러가는 가랑이를 보고도 웃는다더라.)

언젠가 자기를 돌려주던 남동무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귀결에 들리는상싶어 귀밀을 살짝 붉히며 혼자서 피씩하고 웃었다.

영옥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게만 생각되던 자기의 첫 로동생활이 이렇게 낮익고 정다

울줄은 정말 몰랐다. 왜선지 자기로서는 처음해 보는 노동생활이 그저 즐겁고 자랑스럽게만 여겨졌다.

자동차앞으로는 활주로같은 드넓은 길이 쪽 뻗어 있었다.

영옥은 운전칸에 앉아 오늘 있는 일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편지로 써보낼수 있을가고 생각해보았다.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집을 떠난지 이틀여간에 많은것을 새로 체험했답니다....)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돼. 뭔가 좀 더 의의있게 써야 해.)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나는 첫 사회생활에서 노동은 인간의 덕망을 키워준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고 영옥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큰길이 네발굽을 들고 곧두서며 차창앞으로 휩 날아들었다.

문득 영옥은 오빠와 함께 함흥대극장에서 돌아오던 일이 눈앞에 떠오르며 오빠의 느직한 목소리가 귀결에 들리는상싶었다.

《남이 낸 길을 따라만 가자고 해도 바쁜 노릇인데 네가 무슨 중뿔나게 새길을 개척한단말이

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길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라니까.》

영옥은 손잡이를 말없이 으스러지게 꼭 틀어쥐며 오빠가 눈앞에 서있기라도 하듯 혀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예요. 길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기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길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거예요. 오빠, 당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지름길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열어놓을수 있는거예요.》

영옥은 앞가슴을 한껏 젖히고 불타오르는 동녘 하늘을 바라봤다.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던것이었다.

이 땅의 모든 길들이 평범하듯이 영옥이가 탄 광을 향해 걸어간 그 자욱자욱도 것처럼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길이었다. 아는 사람도 불과 몇이 안되었었다.

그러나 영옥이가 걸어간 자욱은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어준 개척자의 길우에 놓여있었다.

굴뚝 아침해는 영옥이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듯 저탄장너머로 두둥실 떠오르고있었다. 크나큰 행복이여, 어서 오라 손짓해부르거나하듯...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성만설

벗들과 나란히 퇴근하는 저녁길
발걸음은 어느새
정든 우리 집 프락에까지 왔구나
다급히 문을 연다
그러면 내 품에 달려와 안기는
귀여운 딸애

저 밝은 얼굴앞에
흐린 마음 감출수 없다
아버지의 애무를 기다리는
어린것의 가슴에
뿔뿔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내 어찌
스스럼없이 채워주라

흐린 얼굴로는 감히 설수 없다
어린것의 밝고 천진스러운 눈동자앞에
안해의 사랑이 기다리는

우리 집의 아늑한 창가에...

오, 누구를 사랑하였는가
무엇을 사랑하였는가
보통날에
내 언제나 느끼는 생각

가족휴양소에서 만난 다정한 벗들인가
귀여운 딸애의 재롱속에 즐거운
웃음많은 일요일의 저녁인가
더 높아가는 우리 집 창가의 웃음소리인가

오, 쇠물남비를 더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 보통날에도
어머니당앞에 받은
쉽지 않은 당원- 노동자의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서는
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랴!

보내는 마음

리기창

며칠동안 도에 출장을 갔던 심대영직장장은 그 사이 직장일이 궁급하여 열차에서 내리자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공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공장정문에 들어서자 대형기계들의 정다운 음향이 노래가락처럼 가슴속으로 젖어드는것이어서 러행의 피로가 삼시에 풀리는듯싶었다. 키가 후리후리한 심대영은 한여름의 땀별에 별걸게 달아 오른 살점좋은 얼굴에 부채질을 활활 부쳐대며 스택스적 걸었다.

이달 계획은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그새 다른 과제는 제기된것이 없는지 그리고 중부지구에 새로 개발된 xx탄광에 제기되었던 로력은 떠나보냈는지...

심대영의 생각은 자못 번거로웠다. 그중에서도 탄광에 뽑아보내는 박동길청년에 대한 생각이 지긋게 갈마드는것이였다.

박동길로 말하면 공장에 입직하여 출창 뿔만 차려 뿔혀다니다가 몇번째나 경기도중에 다른 팀 선수에게 손찌검을 했을뿐아니라 그닥 축구선수로서 전도가 보이지 않자 아예 공무직장으로 내려보냈던것이다. 그러자 박동길은 직장에서 착실히 기술을 배우고 일을 성실히 할 대신 자기의 고향(그의 고향에는 늙은 어머니와 녀동생이 있었다.)에 보내달라고 직장장에게 줄곧 성화를 먹이곤하였다.

그러던차에 마침 박동길의 고향부근인 중부지구에 새로운 탄광이 개발되자 거기에 보낼 한명의 로력이 심대영의 공무직장에도 떨어졌던것이였다.

심대영은 더 생각해볼것 없이 그자리에서 박동길을 사무실에 불러다가 그리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동길이 반색을 하며 선뜻 가겠노라고 나서는것이어서 심대영은 로임파에 그의 이름을 제출하고 출장을 떠났던것이였다.

(그 동무가 아직 떠나가지 놓았다면 집에 데려다가 밥 한끼라도 나누고 보내야 할텐데...)

심대영은 땀든굽든 몇년동안 데리고있다가 그냥 보냈으면 어찌랴싶어 가슴한귀가 가볍지 않았다.

무더위에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데쳐낸 푸성귀처럼 시들시들한채 가지마다 간신히 매달려 줄고 있는듯싶었다.

심대영이 직장으로 꺾어드는 굽인돌이길로 들

어서는데 등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로 지기를 부르는것이였다.

(?!)

뒤를 돌아본 심대영은 무춤 굳어졌다. 늘씬한 체격에 난방샤쓰 앞섶을 헤쳐놓은 박동길이가 땀 뻘을 끼고 성큼성큼 걸어오고있었다.

《동길이, 아직 안떠났구만.》

심대영은 반색을 하며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언제 떠난다나?》

그런데 의외로 박동길의 낯빛은 밝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안의 소리로 떠듬거리는것이였다.

《저는 그만 못가게 되였습니다...》

《못가다니? 왜?》

심대영은 눈이 둥그래서 다우쳐물었다.

《지배인동지한테 부결당했습니다...》

《뭐 지배인동지한테...?!》

이렇게 되뇌이는 심대영의 눈앞에는 공장에 임명되어온지 얼마되지 않는 지배인 주종국의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다. 소문에 의하면 주종국지배인은 중앙기관에 있다가 이곳 기계공장사업을 더욱 추켜세우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직접 임명받아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공장에 온 첫날부터 작업복바람으로 작업현장에 제일먼저 나타나서 직장일꾼들에게 요구성을 높이였다.

직장장들이 아침출근도 제일 먼저 하여 비자루도 남먼저 들고 아침체조에도 앞장설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장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사회로동이 제기되면 리유없이 앞서 나올것을 강경히 요구했던것이였다. 하기에 벌써 직장장들은 《호랑이지배인》이 와서 땀깨나 뿔게 되었노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알고보니 직장에서 탄광에 보내는 사람들문제까지 《통제》하려드는것이 아닌가.

《무슨 리유로 부결을 놓는가?》

심대영이 못마땅한 어조로 물었다.

《자세한 모르겠지만 당의 지시로 진행되는 이번 탄광진출사업이 개인사정이나 풀어주는 기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더러 직장에 마음을 붙이고 일이나 성실히 하라더군요.》

《그럼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안보내도 된다는

거요?》

심대영은 지배인의 처사를 도무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박동길의 입에서는 더욱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다.

《왜요? 저대신 오명학동무를 지배인이 직접 선출하여 보내기로 했답니다.》

《오명학동무를?!》

심대영은 활활 부쳐대던 부채질을 멈추며 한길 뿔뿔 놀랐다.

그렇것이 오명학은 제대군인출신 당원에 공장 대학졸업생이고 직장에서 손꼽히는 창의고안명수, 모범혁신자였다. 그런데다가 설계실에 있는 심대영의 외동딸과 각근히 지내는 사이여서 직장장 자신도 그를 사위로 삼을 생각을 품고있는 남다른 청년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지배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떼거리를 쓰는 박동길이는 보내지 않고 것처럼 착실하고 미더운 오명학이를 선출했단말인가? 혹시 지배인이 새로 왔기때문에 오명학이가 직장의 《노란자위》와 같은 혁신자라는것을 몰라서 일가? 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이런 뜻밖의 일이 벌어졌구나...

한시빨리 지배인을 찾아가 설득력있게 말하리라고 생각한 심대영은 박동길이더러 직장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르고는 지배인실을 향하여 부리나케 걸어갔다.

×

심대영이 숨이 턱밑에 차올라 지배인방의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제대군인복차림의 한 청년이 긴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있었다.

《지배인실에서 뭘 하오?》

심대영은 비닐로 방음장치를 두툼하게 한 지배인실문을 눈짓해보이며 그 청년에게 물었다.

《누구와 담화중인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약간 옆으로 비껴앉으며 군대식으로 명료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심대영은 할수없이 의자 한쪽에 눌러앉으며 담배를 붙여불었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책읽기에 여념이 없는 제대군인청년의 모습을 더듬었다. 의자맡에 놓인 불룩한 배낭, 모표와 연장자리가 유묘하게 남아있는 군모며 군복을 미루어보건데 금시 부대에서 제대되는 길로 지배인실을 찾아온 청이 분명한듯싶었다. 심대영이 자신도 지난날 군대에 복무한적이 있으리라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동했다.

《제대되어 이 공장에 배치받아온게 아니오?》

심대영이 던지시 말을 건넸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앓음새를 바로하며 대답한다.

《이자 차를 타고 오며 보니까 제대군인동무들이 탄광, 광산에 수많은 배치받아가던데 동문 용케 빠졌구만.》

심대영의 이 말에 청년은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었다.

《저의 부모들두 여기 제시구 군대에서 병기수리를 줌 했다고 그랬는지 저를 이 공장에 보내주더군요...》

심대영은 청년의 가슴팍에 단 락장들을 눈여겨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군대에서도 저렇게 기술이 있는 동무니까 부모가 있는 공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로 온 지배인은...)

심대영은 쓴입을 다시며 담배불을 재털이에 눌러 꺼버렸다.

이때 지배인방에서 몸매가 갱뽕한 로임과장이 두툼한 문건철을 안고 나왔다.

《저 과장동무, 우리 직장 오명학동무를 보내기로 한게 사실이오?》

심대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다급히 물었다.

《그렇소. 지배인이 직접 선출했소. 탄광진출자들에 대한 환송사업을 잘하러더군요.》

로임과장은 이렇게 말하더니 문밖으로 황황히 사라졌다.

《저 미안하지만 급히 제기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실례할가요?》

심대영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제대군인청년에게서둘러 양해를 구했다.

《어서 그러십시오. 저는 천천히 만나도 됩니다.》 하고 청년은 기꺼이 의자에 다시 앉는것이였다.

《고맙소.》

심대영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지배인실로 들어갔다.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심대영의 인사에 사업일지에 무엇인가 적어넣고있던 주종국지배인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출장 갔다오는길이오? 어서 앉소.》

지배인이 의자를 권했으나 심대영은 그자리에 선채 마른 입술을 감땀며 용건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제기했던 박동길동무대신 오명학동무를 보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직장장동문 다른 의견이 있는게로구만...》

주종국지배인은 서글서글한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심대영앞에 담배갑을 내미는것이였다. 했으

나 심대영은 도리를 저으며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동길 동무는 고향에 가겠다고 언제부터 제기하던 동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종국은 엄한 어조로 그의 말꼬리를 놀렸다.

《그건 나도 아오. 그러나 그 동무의 준비정도를 가지고 당이 부르는 탄광에 가서 제구실을 할 것 같지 못하기에 기각시켰댔소!》

《예?!》

심대영은 탄광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 마치 그 무슨 영예의 추천사업이나 되듯이 말하는 지배인의 남다른 관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하지만 창의고안명수이며 일 잘하는 오명학동문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될 청년입니다.》

심대영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주종국은 느슨히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내 그래서 그 동물 선정했소! 지금 석탄전선엔 로력수나 채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 인민경제의 첫 돌파구를 열어제낄 진짜배기 로동계급이 요구되오.》

심대영은 그만 변명할 대답을 찾지 못한채 입귀를 실룩이였다. 마치 탄부감을 뽐아가는 탄광 지배인의 립장에서 말하듯하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랴.

하나 오명학이만은 절대로 내놓고싶지가 않았다. 직장적인 리해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자기의 외동딸마저 따라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오명학이가 탄광에 갔다고 딸과의 사이를 막아나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텐가...

심대영의 뇌리엔 착잡한 생각이 엮혔다. 그러나 다음순간 오명학의 심장이 요즘 나빠진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피뚱 상기되였다. 그 조건이 지배인의 마음을 흔들어놓을지도 모르리라.

심대영은 한걸음 지배인앞으로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의 말을 리해할만 합니다. 한데 오명학동무의 심장이 좋지 못한 조건에서 탄광 갱내일을 시켜도 일없겠는지 걱정됩니다. ...》

금시 초문인듯 지배인의 눈은 커졌다.

《그게 정말이오?》

《예.》

《그렇다면 왜 그 동문 나와 담화할 때 그런 말을 비치지 않았을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는 주종국의 눈가에는 심금이 엮히는 것이였다.

《원래 개인사정을 말하지 않는 동무니까요...》

심대영의 말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는지 지배인은 생각에 잠긴채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입에

물린 담배에서 파란 연기가 자오록이 피어올라 흰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섞인 머리를 감싸는 것이였다.

뒤집을 진 지배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있음을 심대영은 보았다.

심대영은 지배인자신도 앓는 안해를 아직 평양에 남겨두고 혼자 내려와 립시 합숙생활을 하고있음을 알고있었다.

그리고 외아들이 대학엔가 군대엔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하기에 지배인으로서 오명학의 처지를 놓고 어찌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랴싶었다.

한동안 담배만 지껄게 빨던 주종국이 량수책상앞으로 꾸벅꾸벅 걸어오더니 수화기를 들고 로임과장을 찾는 것이였다.

《과장동무요? 내 지배인이요. 오명학동무의 수속을 중지하시오. 대신 다른 동무를 선정해줄테니 기다리오...》

그 순간 심대영은 무뚝뚝하게만 보이던 지배인에게서 따뜻한 인정미를 느끼는 것과 함께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뿜었다.

《직장장동무, 그럼 대신 누구 보내겠소?》

전화를 마친 주종국은 심대영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것이였다.

《가서 토론해보고 선정하겠습니다.》

《좋소. 그러나 탄광에 가셔도 한몫 단단히 할 수 있으리라요 직장장동무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으며 보증할수 있는 동무를 보내야 하오.》

지배인이 오금을 박듯 힘주어 말했다.

《글쎄요...》 심대영은 난처한듯 더수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글쎄라니... 요즘 일부 일군들은 심지어 대학에던가, 중요한 초소에 사람을 보내라고 해도 당적립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네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그닥 <아깝지 않은> 사람을 뽑아내기가 일쑤이거던...》

《외람된 말인진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배인동지도 공장을 책임지고 일해보느라면 그렇게 될겁니다. 허허허...》

《하하하... 나도 그럴가?...》

주종국은 호탕하게 꺾꺾 웃었다.

심대영은 지배인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채 방에서 나왔다.

대기실에서는 아까본 체대군인청년이 그대로 앉아서 책을 읽고있는 것이였다.

《시간을 너무 지체시켜 미안하오...》

심대영은 그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문밖을 나섰다.

직장으로 걸어가는 심대영의 마음은 또다시 산

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오명학을 안보내게 된것은 다행이었으나 그 대신 누구를 또 보낸단말인가?

그는 답답한 가슴을 식히듯 가방에 넣었던 부채를 꺼내들고 활활 부쳐댔다.

정말 새로 온 지배인의 높은 요구에 응하자면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지배인이 오래 동안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구성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한편 고향으로 가겠다는 박동길이를 밀막는것을 보건대 너무나 박정스러운것 같기도 했다. 만일 지배인의 살붙이라면 부모결으로 오겠다는 자식을 그렇게도 랭정히 배척할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하나밖에 없다는 지배인의 외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군대에서 제대된다면 부모로서 자기결으로 데려오고싶을테지 아무랬으면 머나먼 탄광으로 보내겠는가...

심대영은 이해할수 없는 지배인을 놓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어보았으나 아리송한 의혹의 꼬리만이 늘어날뿐이었다.

어느덧 공무수리작업반현장을 지나가던 심대영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한것은 이마전에 구슬땀이 뒹양게 맺힌채 런닝그바람으로 새형의 공구지구부속을 걸싸게 줄칼질하고있는 오명학의 모습을 발견하였던것이다.

(아니 저 동무가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가 제기했던 새 공구지구창안을 마무리하고있구나!)

심대영의 가슴노리는 느닷없이 몽클해지였다. 볼수록 대견스러운 동무였다.

(저렇게 일에 직심스럽고 성실한 동무를 보내다니... 내가 오늘 지배인을 찾아간게 얼마나 다행한가...)

심대영은 눈을 습벅거리며 작업대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명학동무!》

《아니, 직장장동지! 못보고 떠나는줄 알았더니 오셨군요.》

직장장을 알아본 오명학은 땀뻘 얼굴에 웃음을 함뻘 피워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허허허... 가긴 어딜 간다구 그러나. 임자는 안보내기로 했네.》

하고 심대영은 그의 떡판같은 잔등을 손바닥으로 철썩 두드렸다.

순간 오명학은 펄쩍 놀라듯 눈이 전조등처럼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지배인동진 새로운 탄광의 종합적기계화를 이룩하는데 제가 누구보다 한몫 든드히 하리라고 믿기때문에 특별히 선출했다

던데요.》

오명학은 자기가 영예로운곳에 특별히 추천받았다가 직장장때문에 락선이나 당한듯이 얼굴을 붉히는것이였다.

그럴수록 그가 더욱 미더워보이는것이여서 심대영은 느슨한 웃음을 입가에 그렸다.

《그러나 동문 우리 직장에 더 필요한 사람이야.

이 직장장이 있는 이상 어디도 동물 보내지 않을걸세. 하여간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 함께 가서 이왕 준비했던 음식이나 한끼 나눴세.》

《그럼 박동길동무가 다시 가게 됩니까?》 하고 오명학은 눈을 치떴다.

《글쎄 누가 가든간에...》

심대영은 이렇게 눌러놓고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들어서자 물주전자를 기울여 몇모금 걸람스럽게 마시고나서 직장종업원명단을 펼쳐놓고 앉았다.

누구를 보낼것인지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해가며 매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더듬어나갔다. 막상 다시 선출해보자니 누구라없이 귀중하고 아까운 사람들이였다.

더구나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온 직장이 결기한 이후 한 가정처럼 화목하게 단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혁신자로 자라난 집단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친자식을 멀리 떼어보내는것만 같아 연필을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는것이였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감빛 석양노을이 종업원명단우에 꽃무늬를 그린다.

누구를 보내면 좋을지 결심하지 못한채 한시간이 넘도록 연필대로 공이질만 하고 앉아있는데 전화종이 찌르리기처럼 울어댔다. 심대영이 수화기를 들자 뜻밖에도 지배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직장장동무, 그래 선정했소?》

《아직...》하고 심대영은 입안의 소리로 간신히 말끝을 흐렸다.

《허허... 또 저울질을 하는 모양이구만. 차라리 잘 했소. 누굴 더 고를 필요없이 지금 곧 박동길동무를 나한테 보내주요.》

《박동길동무를요? 알겠습니다.》

심대영은 막혔던 숨을 확 터치며 수화기를 놓자 때마침 사무실로 들어서는 통계원처녀에게 소리쳤다.

《박동길동물 찾아서 지배인실로 곧 보내요.》

《아이, 그럼 그 동무가 다시 가게 되나요?》

귀인성스럽게 불우물이 움푹 패인 처녀는 문건

철을 들었던 손을 가슴우에 포개었으며 까만 눈을 또릿거린다. 그 처녀도 동길에 대해 남모르는 원심을 썼던 모양이다.

《그런것 같소. 어서...》

심대영이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독촉하자 처녀는 들새처럼 현장으로 쏘르르 달려나간다.

《후-유- 한시를 놓았군. 지배인두 참, 고향의 어머니결에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인데 같은 값이면 진작 보낼것이지 공연히...》

심대영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부채를 꺼내들고 땀기가 내뻗 얼굴에 바람을 일궜었다. 그러다가 그는 수화기를 들고는 구내식당 책임자로 일하는 안해를 찾아서 오늘저녁 집에 손님을 데리고 갈테니 준비해놓으라고 일켰다.

×

얼마후 손기척소리와 함께 박동길이가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래 다시 보내주겠하던가?》

심대영은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며 물었다.

《지배인동지가 이걸 줍디다.》

하고 박동길은 책상우에 파란 표지의 무슨 카트같이 생긴것을 내놓는것이였다.

심대영은 그것이 파견장인가싶어 손에 들고보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듯 꺾기켰다. 그것은 의외에도 심대영이네가 사는 해안거리에 새로 일떠선 아파트에 대한 입사증이었던것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심대영은 쾡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입사증에는 《박동길》이란 이름이 뚜렷이 써여있기때문이었다.

《지배인동지가 저더러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함께 일해보자면서 이걸... 그러구 앞으로 제가 일을 잘해서 모범혁신자로 인정받을 땐 탄광만이 아니라 대학에라도 보내도록 하겠다더군요... 정말...》

박동길은 물기에 축축히 젖어든듯한 갈린 목소리로 띠엎띠엎 말을 번졌다.

그 순간 심대영의 가슴에 무엇인가 몽클한것이 마쳐오면서 밀물처럼 그들먹이 교여올랐다. 자기로서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지배인동지가 왜 다른 사람을 선정하지 말라고 전화했을까?》

심대영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어 고개를 기웃거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박동길이 다시 말을 꺼냈다.

《지배인동지가 로임과장한테 오늘 우리 공장에 배치받아온 한 제대군인청년을 탄광에 보내겠다고 전화를 거는걸 보았습니다.》

《뭐 제대군인을...?!》

불현듯 심대영의 눈앞엔 아까 대기실에서 보았던 제대군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분명히 그 청년 일것이다.

《저두 그 제대군인동무를 이자 지배인실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앞가슴에 몇개의 락장까지 단것으로 보아 모범군인이었던것 같습니다.》

박동길의 말은 그의 예측을 더한층 확신시켜주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자진했을까? 아니면 지배인이 설복하여 보내자고 하는것일까? 아까 그의 부모가 이곳에 있기때문에 부대에서도 우정 이리로 보내주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남다른 사정이 있어서 왔을텐데 우리 직장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가게 되다니...)

종잡을수 없는 의문은 꼬리를 물고 얹혀돌았다. 하지만 심대영은 자기가 그 문제까지 원심을 쓸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청년이 자진했든지 지배인이 요구해서 가든지간에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탄광으로 가게 된것일테니까...

어느덧 퇴근때가 되자 심대영은 박동길이와 오명학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인한테 《락선》을 당했는데 무슨 리유로 직장장의 집에 가겠느냐고 도리를 흔드는 것이였으나 심대영이쪽에서 이왕 준비했던 음식이니 가서 함께 들자고 억지로 끌다싶이했던것이다. 그리고 가는길에 검사해서 오늘 박동길이가 받은 새 아파트를 같이 가보자고 했었다.

푸른 파도 칠씩이는 해안유보도를 따라 걷는 그들의 얼굴에 소금기 머금은 서늘한 바다바람이 불어왔다. 갈매기들이 긴 나래를 펴고 그들의 머리위로 유유히 날아옴다. 유보도란간에는 하루 일을 마친 청춘남녀들이 소풍의 기쁨을 맛보며 거닐고있었다. 심대영은 그들속에 새로 개발된 탄전으로 떠나갈 청년들도 있을듯싶었다. 공장을 떠나가기에 앞서 정든 고향의 바다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저렇게 거니는지 그 누가 알라.

《아니 저게 지배인동지가 아닙니까?》

이때 오명학이 유보도계단말을 손짓하여 말했다.

《옆에 그 제대군인동무도 있군요.》

하고 곁에서 박동길이 한마디 보탠다.

《...?!》

그쪽에 눈을 주던 심대영은 그자리에 굳어졌다.

키가 흰칠한 지배인이 제대군인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서서 감빛 노을이 어리광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들의 발

밑에서 금빛물결이 은구슬로 부서지며 끊임없이 굼니는것이였다.

그들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심대영은 물론 오명학이와 박동길도 자기들을 대신하여 배낭을 풀어놓기도전에 다시 떠나게 되는 그 낮모를 제대군인을 만나 따듯이 배웅해주고싶은 충격에 사로잡힌채 약속이나 한듯이 그리로 걸음을 옮겼다.

유보도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심대영의 귀전에서 주종국지배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묻어왔다.

《철남아, 제대되어 몇년만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자구 온 너를 배낭끈도 풀기전에 다시 떠나보내니 무척 섭섭할테지?》

이때 그 제대군인청년이 지배인을 정찬 눈매로 쳐다보며 《아버지...》 하고 갈린 목소리로 부르는것이였다. 그 순간 세사람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듯 쾅해진 눈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아버지라니?! 그럼 저 제대군인이 지배인에게 있다는 그 외아들이었던말인가?!)

심대영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와들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배인이 아들에게 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철남아, 이 애비두 널 곁에 두고싶은 생각이야 왜 없겠느냐? 그러나 제대군인 당원이구 군대에서 기술까지 소유한 네가 이곳보다도 당이 제시한 새 탄전에 가면 누구보다 한몫 하리라는것을 믿기때문에 보내는게다. 더우기 그 탄전은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곳이란단다.

네가 지난날 총천 병사로서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왔듯이 탄전에 가서도 착암기를 틀어쥐고 공업의 전초선을 억척스럽게 지켜가리라고 믿는다. 자신있겠지?》

《아버지, 녀려마십시오.》

지배인과 제대군인,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뜨겁게 주고받는 이야기에 넋을 빼앗긴채 후덥게 달아오르는 가슴을 들먹이며 그들은 눈을 습벅이였다. 이윽고 오명학이와 박동길은 지배인을 향하여 터벅터벅 다가갔다. 했으나 심대영만은 발이 얼어붙은듯 좀처럼 떨어지지않았다. 자기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웅심깊은 일군으로 돋보이는 지배인앞에 선듯 다가서자니 어쩐지 자

신에 대한 쓰거운 혐오와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이였다. 하기에는 그저 물안개가 뿌옇게 서린눈길을 들어 지배인을 멀거니 바라보고 섰을뿐이였다.

이윽고 오명학이와 박동길은 지배인을 목매게 부르며 다가갔을 때 주종국은 그들을 돌아보며 반색하는것이였다.

《동무들도 나왔구만. 그래 박동길동문 배정받은 아파트에 가왔소? 마음에 들면 고향의 어머니를 빨리 모셔오자구! 그리고 오명학동문 심장이 좋지 못하다는데 일만 일이라구 하지 말고 건강을 돌봐야 해. 내 이제 병원에랑 동무네 직장장동무한테말해서 공장료양소에 보내줄테니... 참 그리고 이번에 동무들을 내가 탄광진출자명단에서 락선시키는데 대해 다른 의견이 없소?...》

《지배인동지!...》

순간 그들은 끝내 가슴속에서 고쳐치던 걱정과 물결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이거 왜들 이러나? 허허...》

지배인은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심대영은 눈썹리가 저러왔다. 그는 불현듯 지배인을 통해 자기를 비추어보았던것이다.

(그렇다. 당이 부르는 중요한 초소에 자기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지배인과 나의 마음 사이에는 얼마나 아득한 간격이 있었던가!...)

심대영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어떤 자석에 이끌리듯 지배인앞으로 지척지척 다가갔다.

《지배인동지...》

힘껏 소리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목에 꽉 막혀 버리는듯싶었다.

그제야 심대영을 발견한 지배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태연스럽게 묻는것이였다.

《이거 직장장동무도 퇴근길에 소풍을 하러 왔소? 정말 저녁 바다풍경은 볼수록 좋거든...》

《...!》

심대영은 밀물처럼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발밑으로 좌-좌- 밀려드는 바다물결은 은빛구슬을 뿌려주며 끊임없이 굼니였다.

통소

(한 의병장의 수기)

우리 평산의병본진의 두번째 근거지였던 풍동은 일제헌병대와 수비대의 야간기습이 의하여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건잡을수 없는 혼란속에 한때 옥천군수를 지냈던바있는 대장은 행불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다 남은 대원들은 어쩔줄 몰라 갈팡질팡 헤엄쳤다. 이리하여 평산의병대오는 사실상 완전피멸의 운명에 처하였다. 이런 위기속에서도 의병명색은 별동대로서 쌍벽을 이루었던 나의 부대와 김창호돌격대에 의하여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우리들의 복수심은 극도에 이르렀다. 풍동본진 싸움에서 잃어진 대원 거의 모두는 일가친척이었거나 정든 이웃들이었던 까닭에 분노는 필연 격증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적지 않은 용사들이 대오를 뛰쳐나가 닥치는대로 왜놈들을 처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부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런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돌격장 김창호를 만나 시급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대원 여라문명을 데리고 장수산에 있는 그를 찾아 떠난것이 3월초순이었다.

무력이 적은 우리는 왜놈들과 친일본자들의 눈을 피해 산골길을 걸었다.

삼사십리가량 떠나왔을 즈음이었다. 음산하던 하늘은 드디어 눈비를 뿌렸다. 행군은 어려웠다.

한낮도 되기전에 우리들의 숨바지저고리는 험귀넌것처럼 쥐여짜게 젖었다.

발을 옮겨디딜 때마다 짙신날짚으로 흙탕물이 골적골적 새어들었다. 어느덧 땀을듯이 가늘어지던 비발은 나비같은 눈송이로 변해버렸다. 푸덕푸덕 내리는 눈은 상투가 비죽한 머리수건우에 양대(신식보총)나 한대(화승총)가 걸려 건들거리는 어깨우에 수북이 쌓였다. 대오의 뒤에서 수국이 걸딘 나는 이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으로 울적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계집의 아래목이 오죽이나 그립겠는가. 우리는 어찌하여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버린 몸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이토록 갖은 고생을 겪어야 하는가, 바다 건너 수천리 몇점의 섬땅우에 조물주의 분명한 불찰로 《왜》족속이 생겨난 이래로 선량한 우리 민족은 이 야수들한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국으로 동방에 존엄높던 우리 나라는 오늘에 이르러 이 섬오랑캐놈들의 흉악한 발톱에 숨통을 짓밟혔다.

《왜놈들을 쳐부시고 국권을 수복하자!》

은 거레가 분연히 일떠섰다. 팔도강산 곳곳에

서 의병들이 진출했다. 하여 우리들은 사자밥을 걸머지고 부평초모양 떠돌아다니며 천신만고를 무릅쓰고있는것이다. 이제라도 툭툭 털고 고향집 문턱을 넘어선다면 포근한 솜옷을 얼른 갈아입을수 있다. 자식을 근심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남편을 그리는 안해의 정성이 그 따스한 한벌옷에 고스란히 깃들었을는지도 모른다. 생활이 레사로운 때에도 날씨가 궂으면 쓸쓸해짐이 인간의 상정인데 하물며 사지판에 발을 들여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했으랴.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길도 얼마 축내지 못하면서 애국은 대원들만 고생시킬 것이었다. 쉬여야 했다. 더구나 이 생각을 피치 못하게 한것은 여기서 섬다리(지명)가 멀지않을것이란 짐작이었다.

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나는 그곳의 리생원을 처단해버리려고 결심한바 있었다.

《서라구.》

덜덜 떨리는 이 사이로 말 한마디가 힘겹게 새어나왔다. 가까이 가던 대원들은 물론 저만큼 앞선 대원들도 대번에 멈춰섰다. 보견대 그들은 나의 이 말을 목이 타도록 기다렸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행렬옆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남산몰이 이 근방쯤되지 않는가?》

《웁으이, 저 앞등만 넘어서면 골짜기가 나지는데 뒤마장만 내려가면 그 동네야. 여긴 내가 한때 사냥을 다녀봐서 자상히 알구있네.》

성미 급한 봉춘이가 팔을 들어 그쪽을 가리키며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섬다리가 가까울게 틀림없지.》

남산몰을 미루어 섬다리 위치를 확정한 나는 앞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게 대장, 그 언제부터 보자보자하던 리생원을 요정내려는게 아니야?》

봉춘이는 내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자신있게 물었다. 언제 보아야 그는 축기가 빨랐다.

《그놈 모가지가 여태 성한건 알쵸히 우리가 꾸물댄탓일세.》

《염라대왕께옵서두 자비심이 계신가보데. 오라질 그 자식을 상게 놔둔걸보니.》

《오늘은 회계를 마무리테니까 걱정들 말게.》

《...》

대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봉춘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건 그렇다치구 우선 때가 됐으니 뭘 좀 먹

을겁 어디 들려 쉬구 가세나.》하고 나는 의논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던 버릇대로 봉춘이를 쳐다봤다.

《마침 잘됐군. 남산물이 코앞이기도 하거니와 주막까지 있으니, 난 왕년에 처삼촌을 만나러 거길 몇번 당겨보긴 했지만 주막에 들린적은 없네. 그렇긴 해두 먼발치루 보니깐 동네하구 똑 떨어진게 우리같은 사람들 쉬긴 제격이겠더군. 그런데...》

말끝을 맺지 못하는 그의 얼굴엔 불안이 어렸다.

《왜 주인이 개자식이라던가?》

《알다가두 모르게 사람속이니 딱 찍어말하긴 뭇해두 재미적은것만은 적실해.

우치관이란 주인을 내가 좀 알거든.》

(우치관?) 어딘지 모르게 귀익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이 익던 설던 개의할바가 아니었다.

《대관절 어쩔다는거야?》

나는 그가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것 같아서 짜증을 냈다. .

《뭘 끝은 내지 말게. 처삼촌말을 들으니...》

그가 서두르며 전한 말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치관이네는 할아버지대부터 주막지기를 하였다. 처음 주막을 지을 때 치관이 할아버지는 술한 고생을 겪었다.

산임자들이 검불 한대 못다치게 하는 형편에서 맨주먹뿐인 그는 장마통에 강물로 떠내려가는 나무들을 건져내어 집재목을 마련하였다.

서까래감 하나를 위해서도 몇번이나 물귀신이 뿔뿔하였는지 몰랐다. 3대를 내려오며 주인들은 귀떨어진 동전 한잎에 벌벌 떨었지만 서발막대 휘둘러야 거칠데없는 살림은 좀처럼 퍼날줄 몰랐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란 터전 한뼘기 없는 집 한채뿐이었다. 삼십리밖 대촌에 헌병분소가 들어왔은 다음부터 왜놈들이 어쩌다 한번씩 이 주막에 들렸다. 이것인 빌미로 되었던지 아니면 단서를 쥔 어떤 사람이 술그머니 비쳤던지는 알수 없으나 남산물사람들속에 《치관이가 헌병한테 붙어서 양대 한자루를 손에 넣었다》는 미동거듯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때를 같이하여 별의별 가정과 억측이 린근부락으로 퍼져나갔다. 개인이 총을 가지는것은 흔한 일이어서 별로 신경쓸 노릇이 못되었으나 어찌된 까닭인지 몇몇 엉큼한 주객과 건달들이 소문의 진가를 밝히려고 무던한 애를 썼다.

그들 가운데서 총을 본 사람도 치관이한테 직접 말들은 사람도 없었지만 이러저러하게 눈치챈 김세에다 가능성을 종합해놓고보니 그에게 총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수가 있었다. 그러나 웃는 법이란 없고 하루종일 지나가야 말 세마디가 고

작인 그가 총을 구한 목적만은 누구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이밖에도 그에게는 리해 못할 현상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막힌 통소불림이었다. 언제인가 한번은 주막에서 하루밤을 묵던 금교역말의 이진찰방령감이 그의 통소소리를 정신없이 듣던 나머지 제가 타고온 하늘소한테 여물줄 생각을 감감 잊어버린적이 있었다. 그때 먹이를 기다리던 하늘소는 주림을 참지 못해 고삐를 끊고 달아나버렸는데 밤이 깊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령감은 도적이 훔쳐간것이라고 주막이 들썩하게 소동을 피웠다. 이 일화를 미루어 우치관이란 사람의 통소회통재주는 알만한것이였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통소는 칠승포(발이 굵은 베) 상옷의 명주고름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벽창호같은 치관이가 통소불림은 귀신이거든... 허참, 네넨네는 뭇갈아두 보리밥은 잘한다는격인지 원 아무튼 피짜야.》

남산물사람들은 그를 화제로 올렸던 뒤끝이면 의례히 이런 말로 아귀를 짓군하는것이다....

《그한테 양대가 있단말이지.》

봉춘의 수다스런 여러 말 가운데서 이것이 제일 관심을 끌었다. 우리에게 양대는 고사하고 한대조차 엄청나게 모자랐다. 놈들의 성능좋은 총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동분했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던지 그놈의 총은 빼내야겠다.) 단단히 벌렸다.

그러자면 쉬기도 할점 주막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선뜻 결심을 내릴수 없었다. 열놈이 백가지 수작을 해도 들들이 짐작이라고 그것도 험담군인 봉춘의 말을 끝이끝대로 다 믿을것은 못되었지만 어쨌지 치관이가 헌병한테 붙어서 총을 구했다는 그의 말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이였다.

(만약 주인에게 왜놈들의 줄이 닿아있다면?)

나는 피로운 생각에 잠겨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침울한 시선,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축 처져서 떨고있는 어께...

우리에게는 당장 휴식이 필요하였다.

(큰뜻 품고 나선 사내가 그만한 리유로 주저하다니.)

비록 잠시나마 우유부단했던 자신이 역겨웠다.

《그리루 가세!》

우리 일행은 곧 등너머 골짜기로 내려섰다. 열마쯤 가느라니 흰하게 트인 어구가 내다보이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좋아라고 법석 떠들며 신바람나게 걸음을 다그쳤다.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나들이를 갔다가 고향의 동구밖에 이른 어린애들같았다.

어느덧 생각은 리생원에게 미쳤다.

(이번 길엔 기어코 결단내야지.)

가소롭게도 금지옥엽을 자처하는 이자는 서론

짜리 시골량반으로 섬다리 근방에서 군주행세를 하고있었다. 국운이 기울어지니 팔사납게도 별의 별 피한들이 관을 치며 돌아갔다. 일진회원인 이자는 백성들의 등살을 긁어내는데만 이골이 난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병들과 그 관계자들을 헌병대에 고해바친 반역자였다.

이제 주막에 들러 점심이나 치른 다음 서너명 보내서 처단해버리리라 마음먹었다. 녹초가 된 대원들은 다시 입을 다물고 묵묵히 걸었다. 어찌 보면 평평 쏟아지는 눈에 짓눌려 기를 펴지 못하는것만 같아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저기 주막이 보이누만.》

누군가 정적을 깨치기 저어하는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자옥한 눈발속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주막은 외따라서 그런지 퍼그나 쓸쓸해보였다. 우리들은 인차 주막집마당에 들어섰다. 목을 꺾어 지은 집은 부엌을 중심으로 바른쪽두칸이 본채인 봉노방(손님칸)이요, 앞쪽칸은 살림방으로 꾸러졌다. 주너도 제법 들썩한것이 씨원해보였다. 광삼아 쓰리라곤 짐작되는 봉당도 어지간히 컸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재목따위로나 지은 집치고는 놀랄만큼 훌륭하였다. 소나무 결가지들을 해마다 덧대어 겹겹이 둘러친 울타리도 담장처럼 든든해보였다. 거기에는 해묵은 호박이며 당콩넝쿨들이 열기설기 늘어져있었다.

봄철이면 나도 이 집 주인처럼 소나무가지를 따다가 우리 집 울타리를 고치곤했었다. 그때마다 안해는 딸애의 성화를 받아가며 울밑에 호박도 심고 당콩종자도 박곤하였다. 울타리의 아늑함은 내집에 온듯한 느낌으로 마음을 설레게 했다.

푸시시 열리는 방문소리가 명상을 깨뜨렸다. 열둑살잡이 총각애가 문간에 나타났다. 발굽은 무명토시에 거의다 가리워진 손에는 알른알른한 통소가 쥐여져있었다.

《아버지! 총멘 사람들이 수태 많이 왔어!》

총각애는 청정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주인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원 제-기 손님들을 원두발에 쏜외보듯하는 주막에서 돈모아보겠다!》

봉춘이는 일부러 청높이 빈정거렸다.

《입 좀 다물구있게!》

나는 야릇한 불안을 느끼며 편잔을 주었다. 무슨 까닭인지 청명경이 좋이 지나서야 오십대의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구척장신에 활동처럼 등이 굽었다. 주굴 주굴한 얼굴을 참먹같은 귀알수염이 반이나 가리웠는데 칼맞은 상처자리가 스산한 이마밑에서는 자그마한 눈이 우리를 날카롭게 훑어보고있었다.

그의 뒤 열어젖힌 방문안에서는 총각애가 통소를 만지작거리며 서있었다. 말쑥한 얼굴, 유별나

게 영채도는 눈동자, 처녀애처럼 날씬한 몸매, 더우기 가름한 손에 들려있는 통소, 이 모든것은 기억에도 생생한 단원 김홍도의 걸작 《신동취적도》를 방불케 했다. 꺼칠하고 메마른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저런 귀동이가 태어날수 있었던지 자못 의심스러웠다.

아버지를 해묵은 등걸이라면 아들은 이슬을 머금은 싹이라 할지...

나는 먼저 신분을 밝힌 다음 쉬여가기를 청했다.

《들어들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서야 대원들은 옷의 눈을 털기 시작하였다. 봉춘이는 삐딱문어틈의 울타리에서 비자루같은 술가지를 하나 꺾어 어깨의 눈을 털었다.

이것을 본 대원들은 욱 밀려가 제가끔 한가지씩 분질러들고 서로 털어줄대기를 하며 범서구니를 놀았다.

탐탁한 울타리가 조금이라도 상하는게 몹시 아쉬웠다. 언짢은 소리를 한마디 할가 하고 생각해보았으나 그럴 법도 한 일이거니와 그들의 기분을 잡치고싶지 않아 못본척 돌아서는데 《그게 무슨 짓들인가!》하는 주인의 노성이 귀청을 울렸다. 흠칫 놀란 우리모두의 눈은 둥그래졌다. 저으기 흥성대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니 이걸 가지구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알구...》

봉춘이는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술가지만 내저을뿐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세상이 험해졌기루 사람버릇까지 거칠어선 못써!》

주인의 두번째 말투는 뜻밖에도 타이르는듯 조용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가시가 돋쳐 비위를 몹시 거슬렸다. 성이 난 대원들의 입에서 굵지 못한 말들이 련달아 튀어나왔다. 했건만 주인은 우리들의 분심같은것엔 전혀 무관심한듯 거동과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이 험해졌기루 사람버릇까지 거칠어선 못써!》

《어서들 들어가라구, 헌데 내가 점심을 한다구 탓하진 말게. 장모가 탈이 나서 마누란 친정엘 갔어.》

그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뜨직뜨직 뇌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나무가지 몇대로 망신을 당했다. 분하였다. 크나작으간에 내 부하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의 시시하고도 모욕적인 행동거지를 그대로 감수할수는 없었다.

(어디 좀더 노는 꼴을 두구보자.) 하고 나는 내심 버르며 대원들을 봉노방으로 떠밀었다. 잠시 후 마당 복판에는 봉춘이 한사람만 남았으나 그는 씨근덕거릴뿐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에잇! 빌어먹을!》 하고 역증을 내며

로방우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 찰나 《쿵!》하고 떨어지는 퇴돌과 함께 그는 벌렁 나딩굴어 눈속에 구겨박혔다. 워낙 로방이 높아서 단번에 올라서기 바쁘데다가 걸짐에 한 행동이고 보니 공교롭게도 약하게 물렸던 퇴돌끝을 밟았던 모양이었다.

부엌문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벌컥 열렸다.

주인의 놀란 얼굴이 문간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점점 사나와지는 눈초리로 봉춘이를 쏘아보았다. 당장 불상사가 터질듯한 긴박감이 온몸을 휩쌌다.

《의병들이 저래서는 이름만 더럽히느니 쫓-쫓.》

주인은 입이 쓴듯 혀를 차며 나를 피곳 쳐다보았는데 아니꼽게 흡뜬 눈길은 《넌 어디서 저따위 불가사리들만 끌구멍기느냐.》고 꾸짖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픈것은 무지막지한 악담을 무색케 하는 그의 점잖은 비난이었다.

그는 주제가 망측한 봉춘이에게서 위협적인 눈초리를 떼지 않은채 천천히 문을 도로 닫아버렸다. 불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나는 그 문을 열어젖히고 한바탕 해대고싶은 충격으로 몸이 떨렸다. 뜻이 높은 우리들, 어디를 가나 떠받들리우는데만 버릇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행대는 참기 어려웠다.

(왜놈들의 물을 먹어 저 모양인가?)

아까 산에서 주인을 소개하던 봉춘의 말이 생각났다. 부쩍 의심이 생겼다.

《쌍 더럽군, 여보게 대장! 육사발이나 퍼부구 당장 돌아가세!》

봉춘이는 엉덩이를 되대로 툭툭 털며 독산스레 내뿜었다. 그렇다. 그의 말이 옳다. 사나이의 자존심으로 보나 상대를 복종시키는데 습관된 대장의 지위로 보나 한갓 주막쟁이에게 머리숙일수는 없었다.

봉춘의 말대로 방약무인한 주인에게 툭툭히 의병의 본때를 보여준 다음 떠나버리고싶었다. 그러나 대장부로 태어나 중책을 지닌 오늘 일시적 감정에 포로가 되어 서둘러 처신해서는 안되었다.

부끄부끄 피어오르는 분기를 녹잡히며 주인의 심정을 리해해보려고 원심을 썼다. 할아버지가 아글타글 애를 써 지은 집, 물려받은 재산이란 이것뿐으로 유일한 생존수단이나 남다르게 특별한 애착이 있을것이다.

그러니 누가 검불 한대 다쳐도 필쩍 뛰는것은 당연하다. 하건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울타리의 나무가지 몇개, 퇴돌 하나로 하여 의병꼴의 낫을 그토록 굵어야 옳겠는가.

...

젖은 옷을 벗어 화대에 걸어놓고 누웠다.

노곤한 몸은 밀짚풍석밀으로 잤아드는것만 같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뼈마디마다 부셨다. 어제부터 고삿기가 있었는데 오늘 맞은 눈비로 아주 쇠여버렸다.

게다가 주인에 대한 혐오감까지 지긋어 더욱 피로왔다. 무심결에 천정을 올려다보니 먼지 오른 거미줄이 드문드문 건너간 들보의 상량문이 눈에 띄었다.

《오복다남》 《롱비봉무》

어느 명필이 한잔하고나서 얼근한 김에 붓을 휘둘러뒀던지 그야말로 롱이 날고 봉이 짓을 치는듯 활달하고도 기백이 넘친 글씨였다. 여기에 《을미춘삼월초칠일》이라는 작은 글자의 상량날자가 주련이 잇달렸다.

(장마에 떠내려가던 나무루 집을 짓구두 각자 지 복에 수다한 아들을 바라다니 허참, 게다가 롱과 봉을...)

집주인들의 소박한 념원에 공감은 되면서도 나그네폰전으로 연명해가는 그들 신세가 하도 가련하여 서글픈 한숨을 금할수 없었다. 뿌직뿌직 아궁에서 장작타는 소리가 들렸다. 무쇠솔뚜껑이 즈렁즈렁 여닫기고 무엇을 썰어대는지 서툰 칼도 마소리가 도간도간 울렸다.

홀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오르며 명치끝이 뻐근해졌다.

아늑한 내 집... 점점 따뜻해들어오는 아래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구수하게 풍기는 토장국냄새를 맡을 때 흐뭇함은 어떠했으며 잊지 못할 추억의 그 어린시절 《애 달수야, 그만 일어나렴, 서당 늦겠다》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얼마나 부드러웠던가. 지금 부엌에서 밤을 짓는 주인이 어머니라면 어느새 찬물 쪽배기를 들여다놓고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련만... 뜨거운 무엇이 두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소중한 모습은 문밖에서 느닷없이 울리는 툭소리로 하여 차츰 희미해지다가 가뭇이 사라져버렸다.

꿈결처럼 들려오는 그 가락은 아지랑이 아몰대는 언덕을 넘어 향기실고 찾아오는 바람결인듯 살뜰하고 부드러워 가슴은 건잡을수 없이 애뜻한 향수에 젖었다. 귀강구어 들을수록 꼭진한 툭소의 읊조림은 종다리의 생기넘친 지저귐으로 드눌줄 모르던 심금의 갈피갈피를 못견디게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고향의 사래진 보리밭이 보이고 귀여운 버들개지 송이송이를 남실대는 물결우에 담아실고 흐르는 시내물의 속삭임도 들린다..

이때 나는 어떻게 일어나 문을 열었던지 생각나지 않는다. 대원들이 하나둘 내걸로 다가왔다.

봉당 추녀밑 조질단우에 총각애가 편안히 걸터앉아서 툭소를 불고있었다. 그 애는 제흥에 겨워 짙신 신은 버선발을 흔들거리는데 표정이 풍부

한 얼굴엔 능금빛 홍조가 비졌다.

그의 발치에는 꼬리를 꼬리처럼 말아올린 네논 배기 검정강아지가 자기 어린 주인을 말꼬리미 쳐다보고있었는데 그놈은 통소의 움직임을 따라 조막만한 머리를 개웃거렸다.

온 누리는 오로지 통소의 아름답고 청아한 선들로 가득찬듯싶었다.

아득한 허공을 메우며 쏟아져내리는 눈송이들도 그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밥탄내 난다!》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그제야 부엌로방우에 우뚝히 서서 아들을 났고고 바라보던 주인을 발견하였다.

...

점심상을 물리자 나는 곧 봉춘이를 책임자로 하는 징벌대 세명을 선발했다. 주인을 불러왔다. 총각애가 결문어들어섰다. 그 애는 우리들을 본채도 않고 여기저기 놓인 총들에 정신을 팔았다.

아무꺼리낌도 없이 한자루 척 들고 겨냥도 해보고 어떤것은 격발기를 숨씨있게 제껴서 사람을 놀래웠다. 그의 자신만만한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군인다운 절도가 느껴졌다.

아버지에게 총이 있다니 드문드문 장난질도 해봤을테지만 미상불 사람단면에 찌들은 영업집애들이 그러하듯이 일찍 발그러졌음이 분명하였다.

형질끈으로 꼭 졸라맨 그의 허리춤에는 통소가 엇비슷이 찔렸다. 비록 손때묻은 참대 한토막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어쩐지 백전로장의 칠척장검처럼 어릿것의 모습을 의적이 돋구었다. 내 소시적 송아지를 물고 버들방천에 나가 하루종일 희롱하던 풀피리소리가 금방 그속에서 울릴것만 같아 어쩔수 없이 젖어드는 애수로 코허리가 시큰했다.

저것을 달래가지고 한곡조 불어봤으면 ...

《주인장, 섬다리까지 길안넬 해줘야겠수다.》

나는 일부러 울방자를 틀고앉아 위엄을 돋구며 아예 그가 거절할 생의를 못내도록 엄격히 말했다. 일찌기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어디서든지 안들어먹은적이 없기는 하였지만 역시 상대가 녹녹찮은 인물인만큼 잡도리가 필요했던것이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중대한 사태수습을 위해 떠난길이라는것을 대강 설명하고나서 이제 파견될 징벌대의 목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며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이로써 주인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고싶었기때문이었다. 계속하여 우리는 몹시 지치기도 하였고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떠날수 없으므로 옷이 마를 때까지 오늘밤을 여기서 묵겠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의도가 어리석다는것이 즉석에 판명되었다. 주인은 꿈쩍도 않는것이였다. 심지어 가타부다 웅대는 고사하고 말뚝잠이라도 청하듯 눈까지 감아버렸다. 상투끝까지

부아가 울걱 치받쳤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나의 인내성이 진해버릴 즈음에야 그는 입을 열었다.

《난 못가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듯 쌀쌀한 대답이였다. 머리우에 벼락이 떨어진다 해도 이마 한번 찡그릴것 같지 않는 그의 태연함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짙막한 한마디의 대꾸가 서슬푸른 나의 요구보다 더 강했던지는 모른다. 자존심이 통락을 당하는것만 같아 한바탕 두들겨패듯 혼뜨감을 내주어야 직성이 풀릴테지만 천금같은 위신에 때를 문힐수 없으므로 점잖게 묵삭이려니 자못 고통스러웠다. 우리들 가운데는 섬다리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무턱 떠나는것은 허망한 노릇이다.

큰 동네로 들어간다면 길잡이를 구할수 있을테지만 위험해서 안되었다.

거기라고 리생원과 같은자들이 없으란 법이야 없지 않는가. 이런 우려로 하여 우리는 주인을 의심하면서도 주막에 들지 않을수 없었다. 귀신도 귀신같지 않은게 사람잡더라고 우습게 알았던 것들때문에 곤경인들 얼마나 치렀으랴.

신수가 궁터분하면 코코에 걸려들기마련이니 십분 조심해야 하는것이다. 어쨌든 이번 거사를 미룰수 없었다. 리생원의 악행은 오직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라야 끝장날것이기때문이었다. 못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다. 다른 군사도 아닌 의병들이라는게 그따위 개자식하나 응징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인들 적게 하겠는가.

《종게 말할 때 생각을 고치슈. 난 맘먹었던 일은 다한 사람이웨다.》

이것은 위협이였다. 사태의 절박성과 상면 처음부터 야기된 감정은 필연코 파격한 언행을 촉발시켰다.

《우린 장돌뱅이두 아니구 풍각쟁이두 아니란걸 모루? 흥정두 사람 봐가며 해야 손해가 없는법인데 리속이 밝은 량반이 어찌자구...》

《자넌 좀 가만있게.》

무릎걸음으로 다가들며 시비를 캐러드는 봉춘을 나는 밀막았다.

《내가 떠났다가 그새 무슨 번고가 날지 모르니 갈수 없어. 왜놈들이 뭐 선통을 하구 멍기는게 아니니까.》

엄엄한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너무나도 천연한 대답이였다. 신경이 곤두섰던 나는 그만에야 어이없이 웃어버렸다.

그의 어린애같은 얼림수가 뻔드름하였기때문이었다.

《웁거니! 우릴 얼려넘길 작정이군, 이보시오 주인장, 말은 괜찮은데 심보가 틀렸시다. 우리가 뭐 줄경을 치르게 되면 치렀지 주인장덕을 불상실

소!》

급기야 자제력을 잃어 어린 봉춘이는 악의에 차서 내쏘았다. 주인은 슬그머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사납게 흘렸다.

《주인 없는새 우리가 뭘 채갈가봐 떠는군.》

《나라가 칠성판을 졌는데 제살림밖에 모르는 량반이 우리 말을 알아줄덕이 없지.》 .

《짚검불 하나로 천냥 인금을 깎는 사람과 말하는게 꿈이야.》

대원들은 기다렸던듯이 봉춘이를 따라 한마디씩 시까슬렀다.

《자네들, 말 다했나?》

주인의 음성은 낮았으니 서리발이 돌렸다.

고슴도치같은 눈썹이 곤두서고 짝 버그러진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일촉즉발의 팽배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눌렀다.

《아버지, 내가 갈래. 그 길은 내가 잘 알거든.》

천만뜻밖에도 총각애가 냉큼 나섰다.

숨가쁜 긴장으로 그에게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았기때문에 그 애의 당돌한 태도를 보는 순간 어디선가 돌연히 똑 떨어진것만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보지도 않자 아들애는 바투 다가왔으며 《내가 가지 응? 내가 말이야, 아버지 !》 하고 졸라댔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성을 내는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시끄럽게 굴지 말아.》

아버지는 두엥깨같은 손으로 아들을 가볍게 밀어냈다.

《의할머니 약두 가져다줄겸 갔다올래. 아버진 뭐 어머니가 보고프지 않나 씨.》

주눅이 들기는커녕 발죽이 웃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렸다.

오직 응석받이 막내이들만 향유할수 있는 이 특전이 막지 못할 힘으로 작용했던지 아니면 무슨 빠져나갈 변동수를 모색하고있었던지 하여튼 주인은 삼복더위에 모밀발갈이를 하는 황소처럼 씨근덕거릴뿐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주인의 처가는 섬다리 조금 못미쳐 고개너머에 있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할적마다 이름도 모르고 헤어진 총각애가 아니었던들 사래는 어느 지경으로 험악해졌을것인가 하고 저으기 조여드는듯한 느낌속에 추억을 더듬군한다. 법당의 부처모양 꽃꽂이 앉아있던 주인은 한잠만ैया 꿈하고 일어섰다.

약삭바른 총각애는 어느새 눈치를 채고 말코지에서 숨두루마기를 껌싸게 벗겨 입었다.

벽장문을 연 주인은 청울치로 얼기설기 동여맨 한재의 약구레미를 꺼내들었다.

향긋하고 쌉쌀한 고려약 냄새가 가볍게 풍겼다.

《가보구 할머니 병이 웬만하거든 어머니랑 함

께 오너라.》

주인은 아들에게 약봉지를 들려주며 나직이 일렀다. 떠나갈 세사람은 제가끔 절컹절컹 룽혈포에 장탄을 하고나서 품속으로 쓸어넣었다. 봉춘이는 묵묵히 내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의도를 짐작한 나는물지 않고 허리에서 단검을 빼여 주었다. 총각애는 뱅글거리며 저먼저 문을 열고 나섰다.

《통손 두구 가거라.》

주인은 놀란듯이 아들의 팔꿈치를 덥석 잡으며 다급히 말했다.

《가지구 갈테야... 언젠 몸에서 떼지 말라구 하구선.》

총각애는 몸을 흔들며 응석을 부렸다.

《원 자식두...》

몸을 뒹 돌려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아들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얼굴엔 대견한 빛이 어렸다.

아버지의 단단한 당부를 받았던 까닭인지는 몰라도 총각애는 통소를 마치 호신부처럼 몸에서 떼려 하지 않는것이였다.

《저 앤 자네들이 업구 가게!》

문설주에 기대선 나는 사립밖의 세사람에게 소리쳤다. 눈은 멎었다. 다행이였다. 후-한숨이 나갔다. 문을 닫으려던 나의 눈길은 우연히 봉춘이가 빼놓았던 퇴돌에 멎었다. 그것은 어느새 제자리에 들어앉아있었는데 틈사리며져 진흙으로 꿈꾸며 다져졌다. 누군가 내 어깨너머로 토방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참, 지독한 사람이군. 쯔쯔.》

봉춘이네패가 떠나가자 대원들은 약속이라도 했던것처럼 염낭에서 대통을 꺼내 담배를 쟁기느라 부산을 피웠다.

질화로에 둘러앉은측들은 서로 상투를 맞조으며 물주리를 뿅뿅 빨아댔다.

취부시긔의 독특한 향취를 즐기는 두 대원은 돌아앉아 씹지를 펴놓고 부시와 차돌을 꺼냈다.

《제미랄것, 한대포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골걱 소리가 나게 군침을 삼키면서 술타령을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쿨쿨하였다. 더구나 진고랴에 시달리고보니 취하게 마신후 한잠 늘어지게 자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면에 있어서도 주인이 패썹하였다.

점심을 치르기전에 우리는 청주도 아닌 탁배기를 겨우 한사발씩밖에 얻어먹지 못했다. 그때 잘관 술의 짜릿한 맛만 보게 된 대원들은 안달이 나서 더 내라고 성화를 댔으나 주인은 《술값을 피루 물려나, 안되네.》 하고 딱 잘라버렸다. 설명 없이도 이것은 술에 푹아떨어졌다가는 왜놈들한테 봉변을 당한다는 뜻이였다.

《팽이새끼 쥐사정보기군, 췌 술값을 못받을가 봐 둘러치는 꼴이 비슷한데. <게다>췌이 이런

뎐 꽤 쓸모가 있는걸.》

입심이 사나운 봉춘이는 주인을 맞대놓고 비꼬았다. 열여놓은 정주간문으로 부엌을 내다보던 대원들은 목베일 장수도 사정하면 놔주는 법이라느니 이름이 주막으로 술을 안내는것은 온당치 않은 행위라느니 하는 등으로 주인을 구슬려도 보고 약도올렸다. 그랬건만 주인은 귀머거리처럼 꿈만히 앉아서 아궁이 메도록 장작을 쓸어넣었다. 그때의 주인은 등신갈아보였다.

술은 남남하여 섭섭했으나 배가 부르니 좋았다. 왕갈을 드문히 두고 좁쌀에 기장을 섞어 지은 세덩어리밥을 양푼채로 들여오고 뚝배기의 두부찌개 또한 얼큰하여서 이날 점심은 푸짐히 먹었던것이다.

(에라 한잠 푹 자자.)

목침을 고쳐베고 눈을 감았다.

이구석저구석에서 수군거렸다. 슬그머니 신경질이 났다.

《야 이너석아, 너의 집은 여기서 아주 가깝게? 고만 냉큼 갔다오려마.》

《싫시다. 집에 간대야 뭐 허리 잘룩한 네편네가 있나 눈팔 새까만 새끼가 있나. 뭘 바라구 자겠수.》

《하긴 그래. 도대체 네편네, 새끼라는게 무엔지 참. 그것들 없인 못살겠으니 야단은 야단이야... 지금 어떻게나 지내고있는지...》

웃목쪽에서는 이런 비탄이 들려오는데 바로 해결에서들은 판전을 보고있다.

《자네 거시기 있지, 저 거시기말이야...》

《원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가 뭐 내 이름이람?》

《거시기 자네 저 헌병놈한테 걸렸다가 꿈무니 사린... 거시... 그 애길 좀 들어보세나.》

《흥 별 땡랑한 친구 다 보겠나. 그 밀천먹은 애길 공짜루 해?》

《아-니 이사람, 성질두 급하다. 공짜 왜 공짜야. 내가 뭐 봉익김선달 같은줄 알아? 총알 한개 넘세.》

《선금부터 반구, 난 외상놀음이 딱 질색이니까.》

《원 켜-장, 자 였네.》

애기를 청한 대원은 주머니를 부시대며 짤라거리더니 한개 집어주는 모양이었다.

(아차 내가 총 흥정한다는걸 잊었겠구나.)

나는 이들로부터 총알소리를 듣고서야 깨도가 되었다. (돈을 듬뿍 주면 팔겠지.) 비위거슬리는 대로 주인과 마주앉지 않으면 안되었다.

살림방으로 건너간 나는 직관 사유를 까밝힌 다음 급한 때 쓸 생각으로 가지고 떠났던 전대안의 엽전을 몽땅 쏟아놓았다.

섭섭하게도 이 또한 성사를 보지 못했다. 주인은 애당초 돈에는 눈길부터 돌리지 않았던것이

다.

더부룩한 귀얄수염속에 꼭 다물린 입은 마치 흙으로 빚어놓기라도 한듯 떨어질줄 몰랐다. 생이가 쏘는 사람모양으로 골살을 찌프린 그의 우거지상을 보느라니 등이 달았다.

《총은 자네들에게만 소용당은게 아니야.》

점도록 앉았다가 뱉어놓은 한마디는 두발을 못하게 짹 베는듯 하였다. 선입감이었던지는 몰라도 적의까지 느껴졌다.

대답을 듣고보니 그에게 총이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와락 《달팽이같은놈!》 하고 모진 상욕이 터져 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야말로 달팽이처럼 몸을 사린 이 사람에게 무엇이 통하겠는가.

더구나 변함없는 고자세로 말끝마다 스승티를 내는것이 아니꼽기 짝이 없었다. 의병장을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그에게서 받은 모욕도 참기 어려웠지만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맘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늙은이 하나 휘여내지 못하는 나에게 무슨 대장자격이 있으며 이런 주제로 왜놈을 과연 몇이나 잡겠는가, 얼굴이 뜨겁도록 창피했다. 이것은 내 일생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쓰라린 패배감이었음을 자인한다.

...

사기종발등잔불이 서글프게 가물거리며 나와 함께 밤을 새였다.

늦어도 해동갑해서는 돌아오리라고 보았던 봉춘이네패가 당초에 나타날줄 모르니 애가 타서 도저히 잠들수 없었다.

갓은 억측과 별의별 환각이 겨끔내기로 떠오르며 진저리나게 괴롭혔다. 그런데 괴이한것은 자욱한 눈발을 누비며 구성지게 흐르던 통소소리가 애닦은 흐느낌처럼 줄곧 귀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이 현상은 대원들이 모두 잠들고 주위에 적막이 깃든 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통소를 불던 총각애의 생생한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 진땀이 나도록 놀래워주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주절거리는 창밖의 내물소리도 이따금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모두 그 통소의 율조림으로 여겨졌다.

고통속에 모대기던 하루밤이 지새여 들창이 흰해질무렵, 섬다리로 떠나갔던 세사람가운데서 봉춘이 하나만 돌아왔다.

(변을 당한게로구나...)

가슴이 철렁했다. 천성이 거칠어 조심이란 모르던 그가 도둑고양이모양 두리번거리며 슬그머니 새여들어온것이 더욱 의심을 돋구었다. 나는

급히 대원들을 흔들어깨웠다. 풀이 죽은 봉춘이는 기여드는 소리로 전말을 고하였다.

그들은 섬다리를 한 오리가량 앞둔 골짜기갈림길에서 비어있는 솥막을 만났다.

여기서 총각애는 외가를 향해 고개길을 올라갔다.

그 애를 보내고난 봉춘이네는 잠간 쉬여갈 생각을 했다. 세사람은 솥막안에 들어섰다. 무릎치는 솥눈길에 총각애를 번갈아 업고오느라고 지쳤던 사람들은 벌렁벌렁 누워버렸다. 별안간 《왜놈들이다!》하고 목청이 터지는듯한 규성이 고막을 쳤다. 셋은 화닥닥 일어섰다.

맞은편 고개길로부터 총각애가 구울듯이 달려오는데 연방 엎어지면서도 고향을 질렀다. 그 애로부터 반마장쯤 떨어져 총진 놈들이 다그쳐왔다.

홀래바지에 각반을 친 풀이 헌병대가 틀림없었다.

조준사격으로 놈들을 견제하려고 결심한 봉춘은 동무들과 함께 그자리에 엎드렸다. 왜놈들이 먼저 선불질을 시작했다. 총각애가 꺼꾸러졌다.

일어날줄 모르는 그애 위에서 맹렬한 화력이 교착되었다. 적들은 제편의 서넛이 맞아죽자 출행량을 놓았다. 봉춘이네는 총각애한테로 달려갔다. 쓰러진 애의 허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다.

머리수건을 벗어 대충 구급처치를 한 그들은 어린것을 들쳐업었다. 그때 피묻은 통소가 눈우에 떨어졌다. 봉춘은 그것을 얼른 집어 피춤에 건사했다. 그들은 총각애의 외가를 향해 줄달음쳤다.

목적지에 거의 이르러서야 봉춘의 머리에는 이 비상사고를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남산물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질러오느라고 산속에 들어섰다가 방향을 잃었다. 날이 저물었다. 밤새껏 허둥대던 그는 요행날셀녁에야 남산물을 찾아냈다. 참으로 그가 산귀신을 면한것은 천우신조라 할것이였다.

《그 애는 왜놈들 눈에 띄웠던 안띄웠던 그저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없는건데 우리한테 알려주 기를 쓰다 그만...》

봉춘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울먹이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래 그 애가 죽었어, 살았어?》

겁에 질린 나는 살림방의 주인이 들을세라 억지로 목소리를 죽이며 다급히 물었다.

《딱히는 모르겠네만 위낙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쯤은 아마...》

목메인 대답은 가늘게 떨렸다.

몽둥이에 정수리를 얻어맞은듯이 아찔했다.

《이 숙맥들아. 그 어린건 너훗 살리자구 제 목숨 생각은 안했는데 네놈들은 무에 어쨌다구! 당

장 짓쳐나가 사람부터 구할게지, 구겨박혀 총질이 뭐냐 총질이! 이 육싹할놈같은니!》

창졸간에 리성을 잃어버린 나는 당장 집어삼킬듯이 으르릉거리며 봉춘이의 피가슴을 와락 움켜쥐었다. 《와드득!》 저고리고름이 뭉쳐 떨어졌다.

그 소리는 나를 어느정도 진정시켰다. 실밥뜯어지는 소리가 그 어떤 애달픈 하소연마냥 들린때 문인지도 모른다.

봉춘이는 저고리 앞섶을 헤치고 통소를 꺼내들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한동안이나 그를 멀경계마주보던 나는 헛손질을 몇번 한 다음에야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 그랬던지 지금도 그 까닭을 알수 없다.)

통소를 물들인 피는 아직도 끈적끈적 하였다. 줄지에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갈가리 찢겨나가는듯한 심장의 아픔을 참지 못해 급기야 가슴을 그러안고 끓어엎드렸다.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구치는지 머리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겁먹은 대원들이 나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줄줄이 흘렀다. 몸이 으시시 떨렸다.

이를 사려물고 일어섰다. 문을 열었다.

《아-니 어딜 가려구?...》

봉춘이가 매여달리듯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주인한테 다 말하고 그 앨 찾아가야지.》

비통하게 부르짖은 나는 돌아볼념도 못한채 허둥지둥 문턱을 넘어섰다.

주인과 마주설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다. 가혹한 죄의식으로 하여 온몸은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이래선 안된다.)

속으로 뇌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날은 어느새 밝아오고있었다.

봉춘이가 뒤따라나왔다.

《자넨 쉬게.》

간청하다싶이 그를 떠밀었다.

《그 길을 내가 아는데...》

《이사람. 걱정두 참... 주인어른하구 같이 가겠어.》

되도록이면 보다 부드럽게 대해주려고 원심을 쓰며 거듭 만류했다.

사지판을 헤쳐온 그를 위로할 대신 란폭하게 굴었다는 자책감으로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보게 봉춘이 용서하라구.)

이것은 내보이지 못할 진심이었다.

《자네들은 얼른 차빌하구 장수산으로 가야 하네. 어물거리다가는 돌격델 못만날수 있으니까.》 하고 나는 토방우에 나서는 대원들에게 일렀다.

《대장없이 그네하구 무슨 의논을 한단말인가.》
누구인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돌격대를 만나는건 우리 일이지 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 소리할것없이 나 하라는데루 하라구.》

돌아서던 나는 뜻밖에도 마당한가운데 장승처럼 버티고선 주인과 눈길이 마주쳤다.

와플 놀랐다.

《어딜 간다구 그래?!》

앞을 막은 그는 꾸짖듯 엄하게 말했다.

《주인어른...》

강심을 먹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겨우 움직이던 혀는 그만에 굳어져버렸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들었다. 숨가쁘게 펄리는 주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난 저, 저 사람말을 다 들, 들었네.》

《?!》

두번 다사 깜짝 놀란 나는 어망결에 얼핏 쳐다보았다. 그의 험상궂게 이지러진 얼굴은 시꺼멓게 변했는데 무엇이라고 형용할수 없는 눈은 창기가 탁 풀려있었다.

홀연 숨이 막히고 마당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윽고 주인은 주춤주춤 다가와 축 처진 나의 손에서 통소를 잡아쥐었다. 푸들푸들 떠는 그의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 눈물이 통소를 적시었다.

천천히 아래쪽으로 밀리던 아버지의 눈물은 아들의 피자국과 어울리면서 방금 흐르는 선혈처럼 점점이 떨어져 흰눈을 붉게 물들였다.

《땅!》

별안간 총성이 귀청을 때렸다.

《없드렷!》

나는 본능적으로 구령을 쳤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헌병대로구나.)

우리는 포위된것이 틀림없었다. 숲막골에서 봉춘이네한테 얻어맞고 도망쳤던놈들이 술한 채 우리들을 끌고 수색을 벌리던 가운데 어떻게 되어 우리의 냄새를 맡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즉시 대원들에게 울타리밧을 따라 산개하라고 명령했다.

《봉춘이 자넨 집뒤쪽을 맡게.》

지시를 주고나서 나는 눈을 헤치며 삿잡문끼로 기어갔다. 발취뚝, 돌각담, 웅덩이 할것없이 집을 에둘러 몸을 숨길만한곳마다 동글모자의 빨건태가 얼씬거렸고 양대의 총열(총신)들이 비죽비죽 내밀었다. 완전포위였다. 날이 밝은 조건에서 수가 적은 우리는 결정적으로 불리했다. 《항복하면 살려줄테다!》 하고 고아치며 놈들은 위협사격을 들이쳤다.

(돌파?) 요행 한두사람이 빠져나갈지는 몰라

도 주변이 개활지대이니 이것은 전멸을 의미하였다. 방어 역시 시간문제일따름으로 사태를 역전시킬 아무런 담보도 없었다. 뜻을 펴지 못하고 모두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사랑하는 전우들의 처참한 주검이 당장 보이는것만 같았다. 소름이 끼쳤다. 죽음을 각오한 우리들일진대 결코 값없이 죽을수는 없었다. 죽어도 뚫고 나가다가 죽자고 결심을 내렸으나 난생 처음 덜쳐든 무력감이 손발을 얹어놓았다.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는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워 몸부림하는 심장은 금방 터질것만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울타리밧의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반돌격구령을 치기전에 생사고락을 같이한 부하들과 작별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런데 주인은?...)

돌발적인 정황에 휘말려들어 그를 감감 잊고있었다. 우리때문에 그까지 재앙을 당해서는 안되었다. 아들을 죽게 만든 죄 막중하거늘 이제 아버지까지 잘못되게 만든다면 지옥에 가서조차 설 자리를 찾지 못할것이다. 했던만 절박한 사태는 그의 운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느낌뿐이었다.

아무런 이제와서 주저할것이란 없었다. 처지가 명백한 이상 백병전이라도 벌려야지 시간을 끌다가는 억울한 죽음만을 당할것이었다. 선창 달려나가려고 몸을 솟구던 나는 무엇인가 세팔개 어깨를 내리누르는바람에 도로 앞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새 다가왔던지 주인의 억센 손이 내 어깨를 질고있었다.

그는 곁에 비스듬히 모로 누워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결사전을 할텐가? ... 해야지... 그런데 자네들은 나라의 동량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되네. 목숨을 허투루 내뱉게 아니야.》

그의 폭 가라앉은 목소리는 준절하였다.

《?...》

나는 영문을 몰라 뉘엿이 그를 바라보았다. 랭기를 내뿜어 마주보기조차 섬찍하던 그의 눈은 밀림속 새벽호수처럼 고요히 번뜩이고있었다. 마치 만족한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듯이 전혀 딴사람이었다.

《대장! 놈들이 쳐온다!》

봉춘이의 다급한 고향소리가 집뒤에서 울렸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총을 꺾나든 적들이 구석구석에서 뒤쳐나오고있었다. 공격이었다.

《썩라!》

대응사격이 일제히 벌어졌다. 우리의 맹렬한

총화에 부딪쳐 놈들의 공격은 일시 저지되었다. 그중 몇놈이 즉사하여 눈속에 처박히고 더러는 비명을 내지르며 디굴디굴 굴었다. 했으나 악독한놈들은 그것을 본척도 않고 이번에는 뱀처럼 기어들기 시작했다. 정황은 각일각 촉급해졌다.

(맞받아나가지. 어찌 었더있다가 개죽음을 당할 소나.)

반돌격구령을 치려고 몸을 번쩍 일으켰다.

《가만!》

주인이 나의 옷자락을 드세게 거머쥐었다.

《이제 집애다 불을 지를테니 그 연길 타구서 빠져나가게. 마침 서풍이 부니까 연기는 저 산쪽 으루 쏠릴거네.》

화닥닥 놀란 나는 엉겁결에 그의 팔을 붙들고 부르짖었다.

《집에 불을 지른다구요?!》

《자네들이 빠질길은 그 길밖에 없어. 이 마당에서 집이 다 뭐가. 아무튼 살아서 왜놈들을 처야지. 우리와 한하늘을 쓰구 살수 없는 저 원쑤 왜놈들을 없애지 못한다면 집두 처자두 온 겨레두 끝일세!》

역시 침착한 타이름이었다. 아니, 격렬한 호소였다.

《?!...》

너무나도 뜻밖에 부닥친 일이어서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멀뚱멀뚱 그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순간 그의 준엄한 모습은 나의 기억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주인은 결단성있게 돌아섰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그의 손에서 총과 함께 조질해자루를 보았다. 질끈동인 허리띠에 꽂힌 통소의 반들거리는 윤기가 아프게 눈을 찔렀다.

추녀밑까지 기여갔던 주인은 무엇때문인지 급히 되돌아왔다. 허리춤에서 통소를 뽑아든 그는 가슴우에 짝 눌러대었다가 내게로 내밀었다.

(그때 후들후들 떨던 그의 튼튼한 팔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그것을 열결에 받아들던 나는 흠칫했다.

《신미(1871년) 상원(정월보름날) 추지진에서, 우정하》 라고 깨알박듯 파낸 글자들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우정하, 《신미양요》때 강화도 초지진을 지키 싸운 명성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비분강개한 심사로 늘 회상하곤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보니 저녁마다 천변만화의 곡조로 통소를 불어 우리 군사들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한껏 불러일으켜주던 우정하가 미국해적놈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을 때 그가 애용하던 통소는 전우들의 손을 거쳐 그의 아들에게 전해졌다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피땀 떠올랐

다.

(아차! 그 아들 이름이 우치관이라구 했었지.)

그래서 봉춘이한테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적에 낯익어보인것이 아니었던가.

어린시절에 들은 이야기여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덧쌓이는 인상속에 파묻혔던 기억이 뜻밖의 계기에 의해서 되살아나는것이였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었구나. 아, 그런걸 나는...)

...산더미같은 불길에 흑회색연기와 휘말려 무섭게 타올랐다. 온 천지가 연기속에 묻힌것 같았다. 우리는 줄달음으로 산기슭에 붙어섰다.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줄로만 알았던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이 의지하여 뛰쳐나온 집옆의 도랑 어방에서 되알진 총성이 연거퍼 터졌다. 헌병대놈들을 견제하는 주인의 맞불질이 틀림없었다. 나는 즉시 역습을 조직하여 놈들의 뒤통수를 쳤다. 살아남은 놈들은 줄행랑을 놓았다. 서둘러 주인을 찾던 우리는 인차 도랑둔덕에서 사격자세 그대로 숨진 그를 발견했다.

그가 틀어진 총끝은 얼마 멀지 않은 눈관우에 너저분한 적들의 시체를 향하고있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우리 집 가보처럼 소중히 간직된 통소를 어루만질 때면 우치관의 근엄한 모습과 아들애의 별빛눈동자가 삼삼히 떠오르고 그들을 못내 그리는 정이 눈물을 자아낸다.

그럴적마다 손은 은연중에 통소를 입으로 가져가군하는것이니 그 울림의 구슬픈 가락가락은 대를 물린 자기 주인들의 낮이런듯 나라잃은 사나이의 멍든 가슴에 의분이 되어 끓어오른다.

허나 나만이 아닌 온 겨레의 가슴속에 불타던 의분이 과연 무엇을 가져왔던가.

우치관의 가족들과 같은 애국자들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피를 흘렸고 우리처럼 총권 의병들이 그들과 함께 쓰러졌건만 끝내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말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 평산의병부대가 그러했던듯이 조선팔도전역에서 들고일어났던 의병대오 모두가 제마음 닿는대로 싸우던 과정에 각개격파되었기때문이다. 우치관이 처럼 원쑤와 결사전을 하려고 총까지 마련했던 사람들조차 자기 고장 의병들과 담을 쌓고 지냈기때문이다. 결국 통일적인 지휘밑에 하나로 뭉치지 못한 힘은 그것이 비록 무서운 열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물거품신세를 면할수 없는것이였다. 인생말년에 이르러서야 돌이키지 못할 이 피의 교훈을 찾고 하나의 몸부림으로 쓰는 글이거니. 우리를 이끌어줄 인걸이 있다면..

형상의 진실성과 생활탐구

- 잡지 《조선문학》 1985년 4.4분기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

오승련

단편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발표되고있다. 지난해 4.4분기 잡지 《조선문학》지상에만도 10편의 단편소설이 실리고있다.

단편소설들이 취급하고있는 생활도 각이하며 형상수준과 수법도 서로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은 한결같이 단편소설로서의 전투적사명을 다하려는 지향에서 서로 공통되고있으며 사상예술적면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이고있다. .

단편소설창작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자그마한 이야기에 크고 깊은 사상을 담은 단편소설들, 착상과 형상에서 작가의 새로운 탐구와 기교가 느껴지며 참으로 단편다운 매력을 지닌 작품들이 우리 소설문학의 화원을 다채롭게 장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1

4.4분기 단편소설들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우는 것은 수령과 당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것은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당성의 기치를 확고히 틀어쥐고 당의 문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됩니다.》

수령의 형상창조는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단편소설창작에서도 놓쳐서는 안될 초미의 사상미학적과제이다.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업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여기에 당의 수중에 장악된 예리한 사상적무기로서의 단편소설의 사명을 다하고 그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들인 《세월을 넘어》(김익철 1985년 10호), 《기쁨》(김수범 1985년 10호), 《신사동의 새 전설》(리하성 1985년 10호)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편소설 《세월을 넘어》는 세월을 넘어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 사랑과 은정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고있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사적과 사실에 충실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이것은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의 력사문헌적성격과 사적자체의 감동성, 그 거대한 력사적의의로 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원칙적요구이다. 그러나 사적에 충실한다는것은 사실의 기계적인 라벨, 그의 단순한 전달로 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사적에 철저히 의거하는것과 함께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탐구되고 빛을 뿌리게 되는 종자에 대하여 깊은 창조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작가는 널리 알려진 실화의 단순한 전달자로 되어서는 안되며 그 이야기뒤에 비친 거대한 사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펼쳐놓는 창조자로 되어야 한다.

단편소설 《기쁨》과 단편소설 《신사동의 새 전설》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도 사적을 통하여 안겨오는 작가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엿보이기때문이다.

단편소설 《기쁨》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길부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상으로 그이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항일선렬들의 영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흐르고있으며 억년 드물지 않는 우리 당 혁명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예술적확인이 있는것이다.

작품이 10년세월을 비약하여 이야기를 대성산 려사릉에 대한 그 숭엄한 화폭과 잇닿이게 한것은 실재한 사실들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에서 작가의 탐구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실재하는 사적내용을 예술화, 정서화하며 보다 생활적인 화폭으로 재현함으로써 실화이상으로 강한 인상과 감동을 주는 수령형상단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탐구를 거듭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단편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작가들의 지향은 사회주의현실주제와 전쟁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바쳐진 작품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행진곡 1번》(정기중 10호)은 전쟁시기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아닌 30여년전의 이야기를 취급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에 대하여 절절하게 호소하고있으며 현실생활이 제기하는 절

박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주인공 《나》는 지금 조국해방 40돐 기념 열병식에 나선 전사들의 림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있다.

무한궤도의 억센 발톱으로 달려온 투쟁의 년대들을 주름잡는 각종 구경이 포탑들결에서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 전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광장을 뒤흔들던 발구름소리며 취주악, 각종 포차와 무한궤도의 우르릉소리와 합류된 그 장엄하고도 거창한 행진곡을 새겨가면서 어제날의 종군작곡가였던 《나》는 두볼을 적시는 눈물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으로 감격과 기쁨의 눈물, 경건하고 쓰라린 추억을 불러주는 눈물이었다.

지금은 이미 인생말년에 이른 《나》의 눈물과 함께 펼쳐지는 준엄한 적후투쟁의 나날, 제2전선련합부대들이 《유격대행진곡》의 장엄한 주악에 발맞춰 열병식을 진행하던 그 격동적인 이야기는 독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메아리친다.

부대의 열병식을 위해 사랑하는 공병소대장과 함께 부족되는 악기를 구하려 80리길을 떠나는 처녀간호원, 자기들만 고이 간직한 사랑의 비밀이 군단장앞에서 드러났을 때 몸둘바를 용라하던 그처녀의 모습을 가슴에서 지워버릴수 있으며 두눈을 봉대로 짜매고 심장의 박동에 맞춰 북을 치던그 부상병을 과연 잊을수 있겠는가.

처녀 간호원은 그때 악기를 구하는 전투임무를 다하고 숨지였으며 공병소대장은 팔공산지역전투에서 장엄하게 전사하였으며 열병식을 사열하고 싸움터로 나갔던 군단장도 지금은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날수 없었으며 우리의 가슴속에 언제나 살고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대열병의 흐름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것이며 그들이 지녔던 꿈과 소원, 못다한 임무와 념원을 두고 생각을 깊이 하는것이다.

단편소설 《행진곡 1번》은 준엄한 싸움의 나날에 적후투쟁을 벌리던 한 련합부대에서 있는 열병식에 대한 이야기만일수 없었다. 작품은 이 열병식의 장엄한 흐름이 오늘에 잇닿아있으며 이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을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는바 여기에 이 단편소설의 현실적의의와 가치의 하나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주제의 현실적의의와 적극성에서만이나 아니라 형상창조의 수준에서도 일정한 높이를 보여주고있으며 특히 간결하고 분석적이며 함축적인 묘사으로써 개성적인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생활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 사건에 대한 평면적인 라렬을 극력 피하면서 작품은 묘사대상의 본질을 특징적인 세부들로 생동하게 재현하고있

으며 장면장면을 그 어떤 독특한 의미와 정서적색갈로 윤색하려는 창조적지향을 강하게 보여주고있다.

대상에 대한 이러한 투철한 묘사정신을 떠나서 그 잊혀지지 않는 간호원처녀와 봉대로 두눈을 짜맨 부상병의 인상적인 모습을 기대할수 없으며 형상이 안겨주는 미학적 정서적감흥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이 단편소설에서 대상에 대한 분석적이며 감각적인 묘사가 모든 경우에 성공하고 응당한 예술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작품에는 일부러스러운 《멋진》 표현들이 필요이상 많이 쓰이고있는 흔적조차 자주 눈에 띄우며 형상창조의 총적인 과제에 그것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복종시키는데서 부족점을 발로시키고있다. 짐작컨대 작가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표현 그자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혹되어있는듯하다.

레전대 작품의 허두에 주어지는 주인공의 회상장면, 그의 심리적움직임에 대한 묘사는 그 하나의 실례로 될수 있다.

주인공 《나》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그가 체험하는 정신세계의 중량감에 비해 그 표현은 어디인지 과장되고 영화적인 화폭같은 느낌을 주며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인상까지 준다.

그리고 작품 군데군데에서 보이는 생활세부들도 그자체로서 생동한것임에 틀림없으나 그 장면에서 꼭 필요한것으로 선뜻 안겨오지 않는다.

단편소설이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당정책과 시대정신에 민감하고 현대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시대와 생활을 기동적으로 반영하는데서 단편소설을 따를수 있는 소설문학의 그 어떤 다른 형태를 기대할수 없으며 단편소설의 위력은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에 예민하게 호응하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 당이 해결을 바라는 그러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에 대한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는것은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전투성을 강화하는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무엇보다 현대성의 기치를 고수하고 현실에 가까운 생활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오늘의 현실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예술적해명을 줄수록 작품들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의 참다운 길동무로 될수 있다.

단편소설들인 《내가 만난 청년》(오광호 12호), 《삼각형의 법칙》(김동욱 11호), 《당비서의 밤길》

(리신현 11호) 등은 오늘의 현실을 새로운 시대적각광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밝히려는 작가들의 일정한 의도를 엿보이게 하는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에서 제기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룰리, 사람들, 청년들이 지녀야 할 깨끗한 도덕적량심에 대한 문제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원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되는 태도와 립장을 취하는 두 청년 영준이와 경민이의 형상을 통하여 량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은 청년들의 생활을 그 내면적깊이에서 인간학적견지에서 해명하려는 작가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들의 생활을 그리는 작품들에서 항용 보게 되는 그 어떤 청춘의 량만과 영웅적투쟁, 위훈과 용감성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그들이 지닌 순결한 량심문제에 주목을 돌림으로써 작품은 형상의 깊이를 어느정도 보정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청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혁명화에서 사실 량심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인가.

사람이 량심적이 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초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떼떈하고 깨끗하게 살아갈수 없으며 사람다운 생활을 할수 없는것이다.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에서 량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는 영준이와 목전의 저속한 리해관계에만 눈을 밝히는 경민의 성격은 대조적이며 이 두 청년의 형상이 안고있는 문제는 오늘 사회적정격을 띠고있다.

어렵고 힘든 일에서 몸을 사리며 그러면서도 량심의 부담조차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과연 경민이 혼자라고만 할수 없을것이다.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의 마감에서 영준이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밤길에서 《나》의 독백처럼 울리는 말은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의 절박성을 예술적으로 다시금 확인해주고있다.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은 이 작가의 첫 작품들에 비하여 비교적 새로운 전진을 보이고있으며 생활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사건라렬이 아닌 성격창조에 대한 지향이 어느정도 느껴지는 작품이다.

단편소설 《삼각형의 법칙》은 우리 시대 지도일군들의 일본새와 사업작풍은 낡은 개념에 의하여 구애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를 참신한 생활세부들로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은 생활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인 탐구의 흔적을 보여주고있으며 도식과 류형에서 벗어나려는 지향도 보인다.

단편소설 《당비서의 밤길》에서 송태호비서는 우리 당일군의 본보기이다.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그럽지 못하고 개

인영웅주의로 하여 일시 초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윤찬의 잘못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그의 사업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도와주는 송태호,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몸으로 언제나 아래사람들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는 송태호의 형상에는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며 그대로 생활에 구현하려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성격적미가 비껴있다.

작가는 송태호비서의 성격적특질을 새로운 측면에서 해명하러 하고있는것이 틀림없다.

당비서와 지배인 두사람의 사무실이 가까이 맞붙어있으면 지배인실에서 울컥하고 나온 로동자들이 당비서의 방을 찾아오기 어려워할것이라고 박상규지배인에게 지나치달만큼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송태호비서의 형상은 비교적공감을 준다.

단편소설 《사랑과 믿음》(조승찬 11호)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애정룰리를 인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와의 관계속에서 새롭게 밝히려는 의도 밑에 씌여지고있으며 단편소설 《해일》(박원선 11호)은 한 외국미술가가 우리 나라에서 체험하는 격동적이며 경이적인 세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기여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상기한 작품들은 우리 단편소설들이 전진하는 시대와 함께 보조를 같이하면서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고있으며 그 전투적날을 버리어나가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2

4.4분기의 작품들은 단편소설창작에 대한 왕성한 의욕, 그 발전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창조적 탐구와 새로운 시도들은 귀중한 경험과 함께 또한그만큼 많은 론의점들을 제공하고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단편소설문학의 전반수준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의 견지에서 우리 인민의 날로 높아가는 다양한 사상미학적요구의 견지에서 높지 못하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지금 단편소설들에 그러지는 생활의 진실성, 성격상의 예술적감화력문제를 넘두에 두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것은 문학과 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본요구이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사실주의문학예술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린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우리 단편소설창작에서 중요한 과제는 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이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단편소설 《당비서의 밤길》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작가의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있는 작품이며 생동하게 안겨오는 대목조차 없지 않다.

우리는 소설에서 작가가 새롭게 의도한것, 당일군의 소탈하고 성실한 성격의 미를 밝히려는 지향을 읽을수 있으며 탐구의 흔적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작가가 시도한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는 것인데 이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있는 것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 설정된 지배인과 당비서, 윤찬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파오를 범하고 보이라직장에서 일하는 윤찬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이들의 관계가 생활로부터 흘러나오고 생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관계라기보다 작가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다.

소설에서 당비서와 지배인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극적인 체험세계가 미약하게 주어지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생활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작가에 의하여 예정된 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못하게 설정되는 인간관계속에 놓이게 되는 인물들의 《체험세계》가 극적으로 안겨올수 없으며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안겨오지 못하게 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우리 단편소설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설정에서의 그 인위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설정을 위한 설정 억지꾸 무뎌진 설정에서 진정한 창조적 열정이 나오며 이 창조적인 열정과 흥분이 없는 데서 사람들의 진정을 울리는 작품이 나오겠는가.

송태호비서는 의심할바없이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투신하고있으며 사람들과 흥허물없이 이야기하고있으나 그것이 독자들의 흥벽을 세차게 두드려주지 못하는것은 송태호의 그러한 성격을 보여줄만한 생활을 탐구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꾸미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당비서가 불치의 병에 신고하면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위해 담가에 실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내려오는것을 믿을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희생성》을 낳게 할수 있는 생활적타당성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적지 않은. 단편소설들에서 주인공들이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많은 주인공들이 무엇인가 지향하고 투쟁하고 있으나 생활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고있으며

구체적인 생활속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조종밑에서 움직이고있다.

생활과 주인공의 성격과의 이러한 분리는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의 영준의 경우에도 례외로 되지 않고있으며 단편소설 《해일》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고있으며 단편소설 《사랑과 믿음》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내가 만난 청년》의 주인공 영준은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살려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청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에서 영준의 성격적미와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구체적인 그의 생활속에서 밝혀지기보다 《나》에 의하여 해설되고있으며 동료들 앞에서 하는 그의 토론에서 주어지고있다.

량심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량심적인 청년과 비량심적인 청년파를 직선적으로 대조시킬 때 량심문제를 그만큼 직선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량심문제를 두고 모대기는 청년, 깨끗하게 살며 일하려는 영준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생활의 논리에 맞게 더 설득력있게 그릴수 있었을것이며 너무나 직결된 경민이와의 관계속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탐구된 생활속에서 부각할수 있었을것이다.

구체적인 생활로 충만되지 못하고 작가에 의하여 일부러 만들어지는 주인공들의 성격이 예술적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는것은 단편소설 《해일》이 잘 말해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외국에서 온 화가 다원치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예술과 창조의 세계를 보며 마음의 거창한 해일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우리는 다원치가 위대한 주체사상이 산 현실로 꽃피는 우리 나라에서 지난날 자기 생애를 돌켜보며 사상정신적충격을 받는 이야기자체를 결코 시비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이야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진실성과 설득력에 있으며 그것이 주는 감동에 있다.

단편소설 《해일》에서 주인공 다원치의 체험세계, 마음속 깊이에서 일어나는 격동적인 파동이 과연 우리 독자들의 가슴에 그대로 안겨오는가.

작품의 주인공은 지금 분명히 건잡을수 없는 하나의 거창한 마음의 동요를 체험하고있으나 그 세계에 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있는 까닭이 판데 있지 않다.

그것은 주인공 다원치의 체험이 진실하고 뜨겁지 못하며 그것이 주인공자신의것이라기보다 작가에 의하여 꾸며지고있기때문이다.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다원치에게 있어서 물론 스스로 산을 가꾸는 로인과 하나의 단풍잎마저 비웃을 썩어죽는 아이들의 소행이 큰 충격을 줄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다원치는 조선의 화가 형준이 새집을 만드는 그 소박성을 대

뜰 리해하지 못할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탐구》된 생활은 이것이 전부이다. 한 인간의 생활에서 더우기 정신생활의 첨단을 걷는 한 예술가의 생활에서 거대하고 심각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것이 고작해서 이러한것이겠는가.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들은 주인공 다원치의 사상의식의 변화에 주는 영향에서 자기의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까지 넘두에 둘 때 작품은 생활을 탐구하는데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있으며 평범한 이야기에 매달리고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단편소설 《해일》은 한 외국화가의 내면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상심리적인 파동을 그에 상응하는 탐구된 생활로써 설득력있게 확증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형상의 초점도 희미하고 애매한 작품이다. 그것은 로인이 산을 가꾸며 아이들이 비웃으로 단풍잎을 씹우고 형준이 새집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동질적인것으로서 성격의 새로운 측면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 이야기가 불쑥 예술가의 영예와 공명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나가며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조선의 자연이 그토록 아름다운것을 이 나라 사람들의 정결하고 뜨거운 마음때문이라는 이야기들과 마구 뒤섞이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한 외국화가가 낡은 예술의 세계에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에로 이행하는 거창한 마음의 해일을 그리려 하였으나 그것을 형상적으로 해명해주는 생활을 탐구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사상주제적과녁으로 집중시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지어 허황하게까지 만들고있으며 작품이 제기한 사상을 명백하게 결속짓지도 못하고있다.

생활탐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약점은 단편소설 《사랑과 믿음》에서도 표현되었다.

단편소설 《사랑과 믿음》도 사랑하는 처녀를 믿지 못하였던 한 청년이 그 오해를 후회하며 사랑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이다.

단편소설은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새로운 애정의 룰리를 밝히고있으며 그것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도 연결시키고있다.

소설에는 온갖 속되고 추한것이 버림받고 밝고 깨끗하고 의로운것만이 사랑받고 존대받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정과 옹호의 열정이 흐르고있으며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에 대한 축복의 감정이 또한 물결치고있다.

작품은 이와 함께 생활을 정서적으로 감수하고 거기에 독특한 예술적향기를 부여하는 일정한 기량도 엿보이며 묘사의 간결성과 함축성, 정확성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이 작품도 예술의 생명

인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담보하는데서 지나칠수 없는 부족점을 발로시키고있다는것이다.

작품은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 싹트는 새로운 애정의 룰리를 배반한줄 알았던 처녀가 오히려 진심으로 청년을 사랑하였다는 이야기로밖에 해명하지 못하고있으며 그것도 매우 상식적이고 인위적인 생활로 형상을 대치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서 오해선의 설정은 그것을 형상적으로 잘 가공하지 못하고 생활의 룰리로 힘있게 확증하지 못하는 경우 결속이 싱거워지고 맹랑해지며 생활을 회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이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생활을 그리는데는 작품에서 중요한것은 서로 오해하게 되고 그것이 풀리는 과정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문제이다.

이 작업이 홀시되거나 경시될 때 《오해를 위한 오해》의 선을 설정하게 되며 따라서 생활을 인위적인 틀에 맞추게 되며 형상의 진실성이 약화되고 예술적감화력을 잃게 된다.

단편소설 《사랑과 믿음》에서 지질기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청년연구사가 사랑하는 처녀를 갑자기 의심하는것, 의심하던 그 처녀가 불쑥 나타나 사랑의 진정을 터놓는 이야기는 믿음이 가지 않을뿐아니라 허황하기까지 하다.

일찌기 대학시절에 탐구의 길에서 아름답게 꽃핀 그들의 사람이었으며 언제나 믿어의심치 않았던 처녀였다. 생활은 이 처녀가 청년연구사를 배반할 아무런 꾀절도 주지 않았으며 오해를 살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것은 청년연구사의 생각대로 이 처녀가 나서자란 수도의 반거리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삶에 대한 환희와 감격때문인가.

청년은 불빛 휘황한 하늘가에 흠이지는 분수의 물보라를 바라보며 황홀경에 잠기었던 그 처녀의 표정으로 하여 품었던 말을 하기 못하고 드디어 처녀와 헤어진다.

이것은 사랑의 룰리에 대한 외면이고 외곡이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의 감정에 대한 왜소화이며 통털어 생활에 대한 오해이다.

작품에서 청년연구사와 처녀사이의 오해는 그들의 생활로부터 불가피한 오해가 아니며 생활에 대한 작가의 오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는 또한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또한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창작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꽃을 피운다》(리상식 12호)에서 혁명소조원 진옥이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꽃을 피워주며 그리하여 파원에도 웃음소리 넘쳐나게 하고 꽃을 피우는 이야기는 그자체로서 잘못된것이 없으며 생활의 룰리에서 벗어난것도 없다. 농촌기계화의 앞장에서 땅을 파는 새 기계를 창

안제작하는 명판을 성심성의 도와나서는 진옥,
그리고 보람찬 창조적로동의 나날에 명판이와 향
실사이에 싹튼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주며
덕준반장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나가는 3대
혁명소조원 진옥의 형상은 아름다운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이며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야기가 평범하다는것은 주인공 진옥의 성격
을 그 어떤 영웅적투쟁과 비범한 행동에서 보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야기가 평범하고 상식적이라는것은 인간성격
과 생활을 독자들이상의 안목으로 새롭게 밝히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며 이야기가 문학적인
이야기로 감정선을 타고 전개되기보다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전개되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는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밝히지 못하는 작품에서 그리고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탐구된 종자가 없는 작품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문학이전의 이야기이다.

단편소설 《꽃을 피운다》의 마감에서 주어지는
덕준반장의 주정토로썸으로 우리 독자들의 가슴

이 결코 부풀어오를수 없다.

우리 단편소설들이 색깔이 없고 독특한 향기가
없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독자들의
말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있다.

우리 단편소설들이 문제제기의 예리성과 주제
의 참신성에서 형상의 간결성과 집중성에서 구성
과 이야기전개방식에서 특색이 없고 색깔이 없다
는것을 인정하는데 린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생활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와 형상창조에서 개성을 발양시킬
데 대한 요구이다.

작가들의 개성과 창작적숨씨, 형상의 특징이
단편소설에서처럼 대뜸 드러나는 문학형태는 없
다.

단편소설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요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단편소설문학분야에서는 작
가들의 새로운 탐구와 시도들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공
고히 하고 계속 확대하면서 단편소설문학의 새로
운 발전을 위하여 계속 끊임없는 탐구를 거듭하
여야 한다.

고향의 내가에서

윤영탁

하루일 마친 저녁길
노을이 물든 내가에
달무리 와르르 쏟아져내렸나
보름달같이 고운 얼굴들
일시에 물에 확 비쳐들었네

선녀들이 줄지어내린들
저기에 비길가
고수버들 가지아래서
검은 머리 치렁치렁 감아올리며
돌바위우에 나란히 걸터앉은 그 모습
굽구나 청년분조 처녀들의 그 모습

물속에 비친 그 얼굴들을 들여다보며
수집은듯 가슴설레는듯
어느새 벌써 저 시절이 왔을가
시집갈 때가 다 되었구나

아 그런들 어떠리
수령님 모시고 찍은 사진에
꽃과 같이 함께 피어났던 그 얼굴들
시집간다고 헤어질가

태어나 첫결음마도
이 땅에서 나란히 익혔고
첫농사 일손도
이 벌에서 함께 배웠으니
첫사랑을 나누어도
이고장에서 다같이 나누리란다

종구나 거울같은 맑은 내물 들여다보며
내물같이 끝없이 속삭이는 소리
기다렸다는듯 실바람도
그 마음들을 바빠 실어나르는가
고향의 들판에 총각들 가슴에
더더욱 꽃피여 만발할
고향의 먼먼 앞날에...

아 저런 모습들이 있어
이 땅의 새살림도
저 가슴처럼 해마다 부풀고
저런 모습들이 있어
고향별을 사랑하는
이 마을 총각들의 가슴도
몇갑절은 더 넓어지리!

만수대언덕

강창영

오르면 나 하나가 아니여라
따르는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지는
해쫓는 바다!

태양을 우러르는
천만 꽃송이들이
하나같이 설레는
축원의 꽃물결!

머나먼 태양을 넘어
굽이쳐오는 마음들의 새 세계!
태동하는 세기의 평마루로
인류리상의 상상봉에 솟아
두팔을 벌리고 맞아주는
어머니의 품!

여기에 오르면
푸른 하늘같이 내 마음 열리고
맑은 샘같이 깨끗해지는
노을빛 봄언덕!

아, 나 홀로 왔다가도
수억만 정의의 동지를 안고가는
반제투쟁의 친구!
자주의 새 세계를 안고가는
인생의 참다운 새 출발점!

오, 태양을 따르는
온 세계의 심장과 심장들이
하나로 합쳐지는곳
만민의 마음이
하나로 지향되는
새 세기의 영원한 승리의 봄언덕이여!

차같이공에게

조창선

휘몰아치는 눈보라
맞받아나가며
푸른기, 붉은기 번갈아흔들며
이리저리 기관차를 지휘하는
집중화물역의 차같이공이여

그대의 모습
돌격하는 전사들의 맨 앞장에서
공화국기 높이 추켜들고
용맹스레 달리던 기수가 생각나라
전선으로 굽이쳐흐르던
포차들을 맞고 바래워주며
호각을 불던 전선길의 처녀가 생각나라

수고도 많다
기승스런 눈보라 눈을 뜰수 없어도
그대는 어김없이 앞을 보아야 한다
찬바람 온몸에 속속들이 스며들어도
그대는 두툼한 솜옷을 입지 못한다

하지만 그대처럼 궁지에 넘쳐보는 사람
더는 없다
인입선에 들어서는 화차마다에 실린

석탄과 비료함들 바라볼 때면
가슴은 절로 후더워진다지

잠간사이
짐들을 말끔히 부리우면
그대는 신호기를 흔들어
화차들을 떠나보내고
적재함이 넘치도록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공장으로, 건설장으로, 전야로 떠나갈 때
거기서 지퍼질 속도전의 불길
그대는 온 나라의 숨결을
온 나라의 창조의 노래를
한가슴에 안아본다지

아, 생산에 수송을 앞세우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방침 받들고
어둑새벽에도 깊은 밤중에도
눈보라도 비바람도 맞받아나가며
수송혁명 다그쳐가는 그대들이 있어

조국은 언제나 세찬 맥박으로
비약하며 전진할수 있는것이구나!

잊혀지지 않는 모습

신리섭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활짝 피어난 꽃을 보게 되면 아름다움과 취할듯한 그 향기에 매혹되곤하지만 그 꽃을 가꾸는데 바쳐진 원예사의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다. 하지만 원예사는 그 누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든말든 꽃을 보고 기뻐하는 못사람들의 웃음에서 자기의 삶의 만족을 느끼며 그 꽃을 가꾸는데 자기의 온갖 지혜와 땀을 깡그리 바쳐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는가.

왜냐 하면 원예사와 같이 자기의 일생의 땀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묵묵히 바쳐가는 인간들이 나는 취재길에서 수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직업적특성으로 하여 조국의 많은곳을 돌아보게 되곤하는 나는 열차의 신세를 누구보다도 많이지운다. 하지만 꽃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면서도 그 꽃을 가꾼 원예사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 못하듯 여행의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있고 무사고 정시로 달리는 열차운행에 바쳐진 철도부문 일꾼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곤하였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신의주철길대 염주소대에 취재를 나갔다가 철길순회원 김성도아바이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긴장된 수송문제를 푸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김성도아바이는 전쟁시기부터 오늘까지 한생을 철길대에서 철길순회원으로 일해오고있는 로당원이였다. 집에서 당의 혜택으로 년로연금을 받으며 귀여운 손자애들을 데리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60이 훨씬 넘은 몸이었지만 그는 지금도 철길에 쓰이는 부속품들과 공구를 넣은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매일 먼 구간을 걷고있다.

《김성도아바이는 언제나 집에서 2시간전에 출

근하곤하지요.》

내가 그에 대하여 묻자 젊은 중대장은 아바이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이야기했다.

김성도아바이 집은 철길대에서 곧은길로 가면 30분정도밖에 안걸리지만 늘 2시간씩이나 멀리 에돌아다닌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아침저녁 출퇴근길을 철길로 돌아다니기때문이였다.

35년이란 자기의 순회원생활이 흘러온 철길쪽에만 올라서면 아바이는 시간가는줄 몰랐다. 하루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불량개소들을 퇴치한 뒤였지만 혹시 그사이에 무슨 변동이 없었는가. 철길에서 4대요소라고 하는 방향, 궤간, 고조, 수평이 제대로 보장되는가를 주의깊이 살피었고 철길옆으로 한알의 자갈이라도 굴러떨어질세라 추어올리고야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서 직장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 아바이에게는 철길이였다.

철길순회원이란 군대에서 정찰병과 같다. 더우기 해빙기에 로반에는 레루가 뜨거나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드문하다. 만약 철길순회원의 눈이 이런것을 놓치게 된다면 철도수송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혼란이 생길수 있는것이다.

눈석이가 한창이던 지난 3월초의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날도 여느날과 같이 철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산덕밀으로 난 로반에서 레루의 방향이 약간 흐트러진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땅거미가 질 때였으나 그는 주저없이 직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물론 그 상태에서 기관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였으나 스쳐보낼수 없었다. 방향이 흐트러진것을 바로잡자면 4명정도의 로력이 있어야겠으나 그는 직장에 가서 공구를 가져다 혼자 힘으로 완전히 퇴치하고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늘 철길순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한다.

《철길이 잘못돼서 제시간에 통과해야 할 기차가 다문 몇분이라도 연착된다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연착되는거야. 그래서 철길을 동맥에 비

기는것이지. 사람의 몸에서 동맥이 잘못된것을 보고도 모른체하는 의사를 자네들은 언제 본적이 있나...

중대장의 이야기를 듣는 나는 이 순간에야 나라의 동맥을 지켜 한생을 철길순회원으로 일해오고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속에 굽이치는 삶의 원천을 리해할수 있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자기 힘자라는것 자기가 해야 할바를 찾아할줄 알며 거기에서 자기 삶의 보람을 찾을줄 아는 사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생의 매 순간순간을 당원의 자각으로 빛내일줄 아는 사람, 한생을 말동무도 없이 두줄기 궤도를 따라 걷고있으나 그의 온 생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과 순간도 잊지 않는 당원의 자각으로 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되고있는 것인가. 진정 당원의 삶이란 자각된 삶이며 혁명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삶인것이다.

가슴이 후터워진 나는 철길순회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있는 김성도아버이에게 진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 나이에 이런 일을 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두 그렇구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는 나의 말에 담배를 한모금 빨고나서 말했다.

《허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누구나 이 철길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보시오. 그땐 한순간이라두 이 철길에서 떠날수 없을거웨다.

철도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크고작은 회의는 물론이구 설날아침 신년사를 하실 때마다 늘 철도수송을 중요한 자리에 놓으시지 않습니까.》

순간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얼마나 뜻이 깊고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진리인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을 심장

에 받아안고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쳐가는데서 참다운 삶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그는 생활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이다

그에게는 철길순회가 곧 혁명투쟁이며 삶의 전부인것이다.

철길에서 생길수 있는 소소한 결함도 미리 막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수송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거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표현되고있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공민적헌신성이 나타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는 철길순회원으로 35년을 일해오면서 아직까지 공구자루 한개 우에서 받은것이 없이 자체로 해결하여썼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당원으로서의 자각과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읽고도 남음이 있었다.

시간이 되자 떠날 차비를 갖춘 아버이는 중대장앞으로 와서 떠나겠다고 보고를 하더니 두줄기 궤도를 따라 천천히 걷고있었다.

기름이 얼룩진 부속품이 든 배낭을 진 허리를 구부정하고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꿈도 많았고 리상도 컸던

푸르른 청춘시절부터 할아버지로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 한생을 조국의 한구간을 지켜 걷고 또 걷는것이다.

끝없이 뻗어간 철길의 한구간, 그 길지 않은 순회길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사변이나 기적적인 위훈이 깃들어있다고는 물론 말하기 힘들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평범한 순회길들이 이어져 그의 인생행로를 이루었으니 그의 한생 또한 그렇듯 평범했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마다에는 당과 혁명에 바친 한 인간의 량심과 근면과 남모르는 땀방울이 스며있다.

여기에도 위훈은 있다. 자랑찬 위훈이 있다.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위훈이 한순간에 창조되는 경우에도 그 기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축적,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깔려있는것이다.

그의 위훈은 매 걸음걸음에 쌓아올린 성실한 량심의 탑으로 솟아 눈부시게 빛난다.

그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있다

조성관

그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있다
머리에는 흰서리 내리고
도수높은 안경이 근엄해도
그날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나란히

서른나문해 하루같이
자기 발자국으로 다져온 길
그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있다
가고오는 사람마다 말없이 드리는
친근한 인사에 모자를 벗으며

그가 아니었던가
커다란 흑판 한가득차게
《김일성장군》 다섯글자를 써놓고
가로긋기와 내려긋기를 익혀주며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고마움을
우리 글로 가르쳐준 우리 거리의 첫 선생이

고사리같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고 굽혀주며
때로는 제 손가락도 합쳐
더하기와 곱하기로
처음으로 셈법을 배워준
우리 어린시절의 첫 스승이

잊을수 있으랴
조국땅우에 솟아오르는
아침 해돋이의 장엄함을
노을비낀 저녁의 한때와
수없는 별보석으로 성장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담아주던 야영의 그
나날을

불타는 붉은넥타이 타는 빛의 큰 뜻을
어린 가슴에 새겨주며
우리의 심장에 한생 꺼질줄 모를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고
위훈의 싹을 틔워주던 우등불모임의 그 밤들을...

지도우에 짙어가던 그 손길따라
난생처음으로 불러보던
조국땅 그 어디엔들 가있지 않으랴
옛제자들로부터 그가 받은 편지를 쌓아모으면
우리의 키를 넘고도 남으리
휴가에, 명절에 찾아드는 수훈자들과 혁신자들
모여서면 긴 대렬을 이루리

세상을 놀래우는 젊은 학자의 연구성과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준공의 테프를 끊은 건설장의 환희
고향에 알리고픈 그 모든 기쁜 소식이
친부모에 앞서 먼저 그에게로 달려오고
모교앞을 지나며 소리높이 인사를 전하며 가는
빠스운전사의 경적소리
기관사의 기적소리...

머리에는 흰서리 내리였어도 그날 그대로
그는 그 모교를 떠나지 않았거니
위대한 수령님 부르시는곳
위훈이 기다리는곳에
충성의 대렬을 묶어보내고
오늘은 우리의 어린 아들딸들에게
만리창공에 날을 희망의 깃을 키워주며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나란히
인민교원 그는
오늘도 그 길로 가고있다.

전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우에 외 2 편

손승래

몇해만이나 금강산 아아한 메부리여
제대배낭 메고 너의 걸을 떠날 땐
주름살 하나 없던것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 불렀으니-

그리워 정녕 오고싶던곳
어데나 온정령 굽이굽이 길을 내며
포차들을 끌어내릴 때
이고장 너인들이 뚫여다준
구수한 토장국을 맛있게 들던 초막자리는

아물지 않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몰래 도망쳐나왔던 군의소
드센 간호장의 손에 종시 붙들리우고야만
쌍바위아래 맑은 샘터도 그냥 있구나

여기는 사단정치부가 있던 골짜기
내 입당을 심의받은 병실터
그날 봉마다 진달래로 붉게 단장하고
너도 한껏 기쁨을 축복해주지 않았던가

동해엔 뚫어번지는 아침해
금강엔 지는 등근 보름달
고지의 흥벽에 기대어 바라보는 절경이
너무도 황홀해

내 첫 시를 지어 투고하고
안타까이 기다리던 《전선신문》 이어

열정을 담아 읊던 솔밭속
예술경연대회의 가설무대여

예전엔 미치 몰랐어라
결전의 시각에 높뛰던 심장의 박동소리
-뒤에는 금강산이 있다
너의 아름다움이 그리도 무서운 힘일줄은

날아오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전사도 있었다
불뽕는 화구에 가슴 내대인 분대장도 있었다
너의 불타는 단풍잎이 상할가보아
너의 구슬같은 맑은 물이 흐려질가보아

전사들의 불멸할 위훈의 탑인양
만이천 금강의 수려한 봉우리여
보람찼던 병사시절의 피끓는 걱정속에
다시 세워주는 옛전선지구여

걸음걸음 깊은 감회속에
내 마음의 군화끈을 든든히 조이거나
무슨 한이 있을것인가 지쳐 한몸
바위로 굳어지고 물방울로 흩어진들

준엄했던 전화의 그날처럼
부르면 어느때나 성벽같이 일떠설
충성스런 전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우에
금강산아 너는 영원히 조선의 명산으로
그 절승을 자랑하며 높이 솟아있으리라

잠 못들어...

금시 잠을 청할듯
탐승에 지친 몸
일찌기 자리에 누웠건만
어인 일인가 밤이 깊을수록 맑아짐은

창밖엔 달빛 은은하고
옥계수 또한 그윽한데

온몸을 포근히 감싸
깨끗한 침대 부드러운 모포...

잠 못들어 내 잠 못들어
창문 열고 바라보는곳
월비산 저쪽 비탈엔 아직
그날의 뜨거운 체온이 남아있으리

비물 흐르는 맨 땅에 었디여
신호탄이 오르길 기다리던 습격의 밤
눈우에 배를 붙이고 지새던 매복의 밤
뼈속까지 스며들던 차디찬 랭기여

벌거숭이고지 무너진 전호에서
내리는 눈비를 다 맞으며
쪽잠이 그립던 낮과 밤...
그 많은 낮과 밤이 눈앞에 어려와서
편안한 잠자리에 잠 못이루는가

아쉬움 없으리라 포근한 침대

부드러운 모포...

내가 사는 집 따듯한 온돌방도
그것이 조국 위해 걷는 길이라면

눈덮인 창호에 배를 붙이고
내 몇밤인들 지새리라
찬비 뿌리는 진펄길을
열백번 웃으며 헤쳐가리라

창밖엔 은은한 달빛
옥계수의 높은 물소리
잠 못드는 금강의
깊어가는 밤이여

삼일포 처녀들

물 맑은 못가에도 불이 달린듯
가지마다 주렁졌네 빨간 사과
기쁨가득 웃음가득 바구니가득
사과따는 처녀들의 예쁜 얼굴도
사과처럼 탐스럽게 익었구나

하늘가에 넘치는 청고운 노래
목메이는 향기를 그저는 못지나
처녀들아 나무람말아라
낮선 길손이 사과 한알 청한다고

나도 이고장과 인연깊은 사람
너희들이야 어이 알라만
알알이 골라 바구니채 안겨주는
따뜻한 그 정은 예나 다름없구나

어쩌면 알수도 있으리
목달개에 수를 놓아준 보잡이명수
습작할 종이를 대준 고마운 너선생
혹 너희들의 어머니는 아닌지...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위해선
삼일포의 마음고운 처녀들
포탄을 이고지고 사선을 넘었더라

부상자를 등에 업고 불비를 헤쳤더라

지금도 못가에 비끼여있는
그날의 뜻깊은 총성을 못잊어
싸워 지킨 고향땅
우박치던 포탄이 파헤친 둔덕에
오늘은 가지마다 부러지게 사과를 주렁지웠구나

달디단 그 맛 상긋한 향기
남다른 수고를 헤아리면
얼굴엔 함뱍 수집음이 어려도
나는 안다 너희들의 깊은 속내를

땀흘려 가꾼 고향의 모든것
그 소중한것을 위해서라면
너희들도 그 시절의 어머니들처럼
사과바구니 대신 탄약상자를 지고
소잔등에 채찍을 엮으리라라는것을

아, 삼일포 맑은 물엔 석양노을 비끼고
인사보다 후히 대접을 받고가는
내 가슴엔 깊디깊이 습배인 사과향기
포연이 자욱히 서리였던 땅
그우에 처녀들이 가꾼 진한 사과향기

행복의 층계우에 올라

최준경

그 옛날 눈물의 토성랑에
새로 천리마거리가 일떠선 날
우리 집 식구는 단층집과 작별하고
이 거리의 10층 아파트로 이사했다

땅은 넓어도
땅우엔 살집이 없어
토성랑 움막속에 태어났던 할머니
새집들이 경사로 들끓던 날에
왜 그리도 목이 갈려 말끝을 흐렸던가

-이런 꿈같이 황홀한 거리에서
우리같은 백성들이 살다니...
그 옛날 고대광실의 부자놈도
발밑에 굽어보게 됐구나

받아안은 사랑이 하도 고마워
가슴가슴 감사의 정에 젖어있을 때
은혜로워라
당은 그 행복을 더 높이 고여주려
해빛 무늬짜며 내리는 아슬한 창공에
또다시 창조만능의 손길을 높이 들었나니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이
층층 높이 은빛키를 솟구며
하늘가의 신기루 같이
락원거리 창문들이 솟던 날이어
또다시 하늘공백을 메꾸며
금강의 비로봉같이 황홀한
창광거리 새집들이 나래펼친 날이어

그 나날 행복의 대명사로 나불은
새 주소의 이름들을 목메여부르며
우리 식구는 또다시 딛고 올랐다
세월도 숨가쁘게 따라와 바라보던
락원거리 밝은 층계를 지나
창광거리의 더 높은 아파트로!

그 밤은 달도 휘영청 밝던 밤
하늘도 땅도 유난히 빛나던 밤

우리 집 할머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신비한 명상의 나락에 취해
꿈을 꾸시는듯
창가에 걸린 달을 넋 잃고 바라보다
그만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전설속의 복반은 길손도
달나라만은 못가보았다더니
내 오늘은 방에 앉아 내려다보는구나
이 은혜를 어이 다 갚겠니...

오, 돌이켜보면
토성랑 오막살이집으로부터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그리고 창광거리 높은 층계까지
그 얼마나 많은 입사증을 안고
새거리의 층계를 련이어 딛고 올랐던가
그때마다 우리 집 할머니의 가슴에선
또 얼마나 뜨거운 진정의 말
고마움의 감탄사가 련이어 울렸던가

오, 이 땅에
삶의 첫 풀막이 솟은 때로부터
유구반만년 세월
꿈으로도 기원하지 못했던 리상을
우리 당은 력사의 한순간에 꽃피웠나니

나래치라
보통강반의 새 력사를 자랑하며
하늘가를 뒤덮은 은빛 층계들이여
너는 토성랑의 빈민들과 그 후손들을
행복의 절정우에 반들어올린
우리 당의 사랑의 보금자리

꽃피는 우리 생활
온 세상이 다 쳐다보라고
남먼저 리상의 령마루에 반들어올린
은혜의 락원이구나

흙냄새 외 2 편

리의석

보습날에 뒤채진
살찐 흙발타고
물씬 풍겨나는 구수한 흙냄새

주무르며 쓸어보며 안아보며
언제 말아보아도 좋더라
흙냄새, 구수한 흙냄새

씨앗을 싹틔우고 난알을 익히면
내 바치는 진정만큼
알찬열매 맺어주는 그때문에
흙은 흙이여도 내 살결같고
구수한 흙냄새가 향기같아라

아, 토지개혁의 그 봄날
제땅을 그리안고
울며 웃으며 흙냄새에 한껏 취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

농민의 진정이란 무엇인지
나에게 익혀주는 그 나날
땅과 함께 한생을 참되게 산
부모들의 그마음
내 진정 알아

그마음 그 진정으로
이 땅을 욕심껏 살찌워가는 길에
변함없이 풍기는 그날의 흙냄새여

땅과 청춘

푸른 꿈을 이 벌에 펼치고
땅을 안고 사는 네 마음
꽃나이 청춘시절
여기 발머리에서 펼칠 때

희망은 얼마나 컸던가
생각은 얼마나 깊었던가
지평선 아득히 달려가는
부풀은 젊은 가슴속에-

우리의 땅
그것은 수령님 안겨주신 사랑
그 사랑이 있어
씨뿌릴 봄이 있고

풍만한 가을날의 열매가 주렁진다

나의 청춘
그것은 지도자동지 꽃피워주신 사랑
그 사랑있어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아름다운 미래의 노래가 있다

아, 나의 기쁨 가꿔주는 땅
땅에 바치는 청춘
청춘의 뿌리
이 땅에 깊숙이 내릴 때
땅은 이내 꿈을 무성히 키워주리

대지만은 알고있어라

얼마나 깊었는가
또 하루 봄같이 돌격전의 이 밤
수로에 내려앉은 별들도
조으는듯 흐르는듯
논두렁엔 함박이 이슬이 내렸는데

어인 일인가?
논두렁에 멈춰선 트랙포르운전수
갈아엮은 논판에 들어서누나
목수건 풀어 이마의 땀 흠치며
부드러운 흙발에 발길을 묻으며

구수한 흙냄새 가슴에 들이치듯

건장한 허리를 천천히 굽혀라
말없이 자막대기 꺼내여들고
갈아엮은 이 땅의 깊이를 재어보며

아, 스스로가 엄격한 검사원이 된듯
땀흘린 로동의 보람 땅에 바친 충성의 깊이를
말없이 재어보는 너의 진정이어!

달빛아래 눈금을 세여보는 너를
이 밤 아무도 보논이 없어도
뜨거운 네 마음 가닿은 풍년가을
어머니대지만은 영원히 알고있어라
땅의 참된 아들, 너의 모습을...

수로왕과 허황옥

-가락전국설화-

이 땅에 아직 나라가 없고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임금이니 신하니 백성이니 하는 계급이 채 생기지 아니한 때의 일이다.

당시의 우리 나라 남쪽땅 황소강 (락동강의 옛 이름, 신라시대의 문헌에는 거의 황산강으로 나온다)의 하류 넓은 들에도 우리 선조들의 집단으로서 아홉개의 부락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홉개의 부락에는 총수 백호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있었다.

그들은 이미 농사를 업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해벌이 따스한곳을 찾아 산을 등지고 강류역에 부락을 형성하고 적당한 산기슭에 우물을 파서 단물을 얻었으며 강가 속새덤불을 헤치고 땅을 갈아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렸다.

또한 전해져내려오는 유습으로 부녀자는 강가에 나가 조개를 주었다.

황산강의 류역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기후가 따뜻하고 땅이 비옥한곳이었다. 넓은 들에는 봄이 와서 씨만 뿌리면 곡식은 알알이 여물고 강바닥과 모래톱에는 사철을 두고 어느곳에나 파도 조개가 나왔다.

그만큼 그들의 형편은 다른 어느 지대의 부락들보다 윤택하고 넉넉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래동안을 두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가지 있었다. 부락들의 발전과 호상간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아홉개부락의 통합이 피치 못할 파제로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그를 실현시킬만한 우두머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홉개부락의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화제가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의 오랜 념원은 마침내 실현될수 있었다.

그것은 어느해 3월이었다.

구지봉을 비롯한 근처 산봉우리에 진달래가 울긋불긋하고 황산강 나무터 버드나무에 한창 푸른 빛이 깃들무렵이었다. 하늘에서는 노고지리가 우짖으며 농사철을 재촉하였다.

부락사람들은 제각기 호미, 팽이 등 쟁기를 들고 들로 나가 남자들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부녀자들은 조개잡이터를 찾아 강으로 나갔다.

봄과 함께 산과 들, 강에서는 그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구지봉에서 있는 일이었다.

구지봉은 환산강 동쪽기슭에 있는 높은 산인데 어느때부터 전해진 이야기건지는 알수 없으나 마을사람들 사이에는 그들의 선조가 하늘에서 내려

올 때에 처음으로 내렸다는 유서깊은곳으로 전해지고있었다. 그리하여 봄, 가을 두차례씩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곳이었다.

마침 그날 그곳에서 마을사람들이 한때 일손을 멈추고 한참 이야기판이 벌어지고있었다.

그날도 그들의 화제는 여전히 부락의 통합과 우두머리에 대한것이였다.

바로 그때 그들의 머리우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거기 누가 있느냐?》

그것은 분명 사람의 음성이였다.

모두들 저마끔 머리를 쳐들고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중 한사람의 말이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글쎄말어요.》

모두가 같은 대답이였다. 그때 소리는 이어서 또 들려왔다.

《거기 누가 있느냐?》

《네,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시험삼아 대답을 하였다.

그와 함께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여기가 어디냐?》

《구지봉 마루터기로 아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이어서 소리는 매우 위엄을 갖추고 장중한 음성으로 들려왔다.

《하늘이 나를 명령하여 이곳에 내려가 새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기에 내려왔다. 그러니 그대들은 머지않아 나를 만나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가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산마루턱을 파서 흙을 쥐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것이다.

노래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라고 할것이다.》

그 이상한 소리는 다시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부락사람들은 모두가 이 기이한 사건을 여간 신기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춤과 노래는 곧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시키는대로 그들은 산마루턱 흙을 파서 쥐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춤과 노래가 마침 절정에 달았을 때이다.

어디서인가 그들의 춤두레 가운데 자주빛 끈의 한끝이 내려왔다. 그 끈에는 붉은 천으로 쓴 금합이 달려있었다. 자주빛 끈 한끄트머리는 하늘에 달려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들은 끈 그 신기한 함을 열어보았다.

순간 그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뒤로 넘어졌다. 함속에서는 다시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생겼으니 뚜껑을 열자마자 그속에서 금빛 찬연한 여섯개의 알이 나타난것이다.

알은 마치 해와 같이 둥글고 휘황하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그 신기한 함을 고이 받들어 안치하였다. 기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튿날 어둑새벽 부락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상한 함의 뚜껑을 열었을 때이다. 함속의 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옥과 같은 여섯 사내아이로 변하였다. 그뿐아니라 여섯사내애는 그후 열흘이 되지 못하여 뚝뚝한 대장부로 성장하였다. 그들의 키는 모두가 아홉자를 넘었으며 또한 기상이나 풍채가 호탕하기로 고금의 어느 영웅 호걸에 뒤지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첫눈에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지는 엄연한 왕자의 기풍이었다.

아홉부락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임금이 앉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섯사내중에서 제일 맏이를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세웠으니 이가 바로 수로왕이며 나라의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불렀다.

대가락은 일명 가야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후 남은 다섯 사내들도 근처 부락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우두머리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두머리로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가 내가야 소가야 등 가야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로왕의 가야를 비롯하여 6가야 (삼국유사 권1, 《5가야》조에 의하면 수로왕의 가락 즉 가야 이외에 아라가야, 고령가야, 내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등 다섯 가야로서 6가야의 이름이 생겼는바 아라가야는 성주, 소가야는 고성지방이다. 가야의 경계에 대하여서는 동으로 황산강, 서남은 바다, 서북은 지리산, 동북은 가야산이라고하였다.)의 기원으로 된것이다.

수로왕이 즉위한지 5년

대가락은 그동안 나라로서 토대가 잡혔다.

수도에는 1천 5백보의 큰성을 구축하고 그가운데 왕궁과 민가 그리고 창고들이 준비하게 들어앉아 벌써 아홉부락의 옛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궁전은 웅장하고 호화로웠으며 창고에는 오품이 가득하고 성은 방비가 튼튼하였다.

백성들은 풍년가를 부르며 생활을 즐기었다.

어느날 궁중에서 아홉한이 왕에게 고하는 말이였다.

《대왕께서 내려오신지 이미 5년, 그동안 나라는 면목을 새롭게 하고 백성은 누구나 부족이 없이 한결같이 임금님의 덕을 찬양하고있으니 이는 오로지 대왕의 높으신 덕분으로서 저희들이 감격하여마지않는바이오니 아직 저희들에게는 한가지 부족함이 있사오니 그것은 대왕께서 적당한 배필을 얻지 못하신것으로 아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처녀가 있으니 어떠한 의향도 말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걱정할바가 아니요. 나는 하늘에서 령을 받고 내려왔으니 나의 배필은 이미 그곳에서 마련되어있을것이며 그 사람은 멀지 않아서 이곳에 닿을것이요.》

왕은 무슨 타산이 있는듯한 얼굴이었다.

과연 그것은 빈말이 아니였다.

그후 며칠이 지난 다음이다.

왕은 류천한에게 명령을 하여 가벼운 배와 날랜 말을 차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곧 그를 찾아올것이니 망산도란 섬에 가서 그를 기다리게 하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류천한이 그곳에 도달하였을 때이다.

바다의 서남쪽에서 배 한척이 나타나 북쪽으로 향하여 달려오고있었으니 그 배는 진홍빛 돛과 분홍빛 기발을 단 호화찬란한 배였다.

그것은 마치 바다위에 뜬 한떨기의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

배는 차차 가까이 와서 섬에 닿자 배사람들은 다투어 섬에 올랐다. 그리고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이 나라 왕후가 되실분을 모시고 온것으로 아뢰오.》

그들의 일행은 무려 수십명 넘었다.

류천한은 곧 왕에게로 사람을 띄웠다.

왕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다 란초의 돛대와 계수나무 상아대를 준비하게 하여 바다로 나가 그 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류천한에게 명하여 왕후의 배로 올라가 왕후가 될 사람을 모시고 궁궐로 안내하게 하였다.

그러나 배안에서는 그를 거절하였다.

왕께서 아직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그 배에 올라 마중하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대접이 그리 소홀하냐는것이였다. ,

왕은 그 소리를 듣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곧 궁궐 서남 6십보의 지점에 립시궁전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왕이 몸소 그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녀자는 그제야 배에서 내려 룽지에 올랐다.

녀자는 머리에 진주관을 얹고 금은과 주옥으로 수를 놓은 붉고 푸른 비단옷에 칠보의 몸단장은

한결 찬란하여 얼굴은 마치 보름달과 같이 환하였다.

가히 수로왕의 배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녀자의 이름은 허황옥이라고 하며 아유타왕국의 공주라고 하였다.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왕과 왕후의 결혼이 있는 다음이다.

왕후는 비로소 자기의 래력을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가락국으로 찾아온것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며 그것은 하늘의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하였다.

어느때 아유타왕의 꿈에 하늘의 상제가 나타나서 곧 가락국 수로왕에게로 보내라는 부부가 있었다는것이다. 그것은 두사람의 사이가 이미 하늘에서 정한 배필이기때문이니 수로는 원래 하늘 사람으로서 그곳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부득이 땅으로 내려보낸것이며 황옥이 역시 하늘사람이니 수로의 장래를 위하여 상제가 미리 아유타왕 부부에게 태어나게 한 딸이라는것이다.

그리하여 아유타왕도 부득이 하늘의 명령에 의하여 딸을 수로왕에게 보냈다는것이다.

북으로 천리 남으로 천리

신병강

여기서 북녘의 기쁨이 끝나고
여기서 남녘의 슬픔이 시작되는가
여기는 분계선 조국의 중단!

여기서 끊어졌다, 하늘의 송전선도
여기서 끊어졌다 땅우의 철길도-
다만 조국의 가슴을 적시며 흘러가는
끊을수 없는 림진강의 유구한 흐름만이
북과 남-락원과 지옥을
하나로 비껴담았을뿐...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교체되는데
변함없구나 분렬의 이 강토는...
하나의 민족과 력사가 달라져가는
이 참혹한 세월앞에
내 하루에도 그 몇번 소스라쳐 놀라는가

마식령 높은 령에 줄기를 엮고
굽이굽이 룡백리 흘러흐르는
저 림진강의 젓줄기로
남으로 장단의 룡이 여물고
북으로 후룡의 감이 익던 세월은 언제?
나는 본다 오늘은 그 기슭을 따라
무시무시하게 늘어선 콩크리트장벽을-

아-아- 태고로부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로 강성한 조선이
20세기 중엽에 와서 겪는 이 고통에
무심한 산발도 몸부림치며 즈을 눈물로 떨군다
떠가던 흰구름도 여기서 울분의 비를 뿌린다

북으로 수수천리
내 땅 내 사람들이 살고
남으로 수수천리도
내 땅 내 사람들이 사는
이 하나의 강토에
문노니 뉘라서 그 누가

저 원한의 장벽을 쌓을 권리를 주었는가?

정녕 이 땅의 주인은 누구길래
미제는 저렇듯 두발을 벌디디고 쪼는가
선량한 세계의 량심들이여!
단죄하라 저 야수들을
그리고 신성한 내 조국의 이름을
함부로 돌로 갈라서 부르지 말라!

민족분렬의 40여년 세월이
일제강점의 36년 세월보다
다섯해를 뛰어넘는 가슴타는 세월-
이대로 더는 못참겠노라
웅-웅 송전철탑도 몸부림치며 운다
《종착역》에 울리는 기적소리도 쇠된 소리들
지른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교체되는데
갈라진 땅, 저 콩크리트장벽
《두개조선》을 떠벌이는 미제...
이 땅에 분렬의 검은 구름 더 짙어만가니
더는 지체할수 없는 민족의 분노를 안고
림진강도 걱정을 못참아 가슴을 친다
침략자 미제를 단죄한다

북으로 수수천리-
남으로 수수천리-
사면팔방 그 어디를 둘러봐도
분명 내 땅 내 사람들이 사는 땅

조선아!
너는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서
변할수 없는 하나의 이름으로 영원할 땅이다
림진강의 유구한 저 흐름이
갈라질수 없는 북과 남을
하나로 비껴담았듯이...

반미, 반피뢰 투쟁을 주제로 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박영래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는 정신을 키워주는데서 혁명적문학작품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지금까지 우리의 당적문학은 인민들을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간고한 계급투쟁속에서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여나 가도록 교양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반제계급교양주제작품 창작실태를 살펴보면 만족할만한것이 못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주제의 작품들이 우선량적으로 매우 적게 창작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만 놓고보더라도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투쟁에 펼쳐나선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은 매우 적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펼쳐나서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오늘 대화의 막뒤에서 시시각각으로 강화되고있는 적들의 반동적공세를 제때에 짓부시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형식인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웅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형식의 작품들과 함께 미제의 침략적죄행을 력사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는 부피 큰 장중편형식의 소설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학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복무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설정에 대한 문제

오늘의 남반부현실을 취급한 소설의 주인공은 웅당 현시기 반미, 반파쑸민주화 투쟁의 최선두에 서서 과감히 전진해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인간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기간 우리 소설문학은 남반부현실을 반영하면서 반미, 반파쑸 투쟁에 펼쳐나선 적극적인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불타는 항구》를 비롯한 장중편소설의 주인공

은 물론 최근년간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들인 《영원한 련락원》(성혜량), 《미완성조각》(고병삼)의 주인공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설문학이 내세운 주인공들은 반미, 반피뢰 투쟁의 앞장세 선 적극적인 항쟁투사들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반영한 소설들이 내세우고있는 주인공들을 보면 대체로 청년학생들이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시절에는 투쟁을 잘하였다면 졸업후 가정을 꾸린 다음에는 투쟁을 포기하거나 중요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다시 투쟁의 거류속에서 자기의 사상적개변을 가져오고있는 인간들로 형상되고있다.

광주를 다같이 무대로 하고있는 단편소설 《출옥날엔...》(리호인)의 하봉설, 《미완성조각》의 서혜경, 오영걸, 《봄우뢰》(석유균)의 수영과 현우들도 대학생들이다.

이미 창작발표된 개별적작품들에 설정된 이러한 류형의 주인공들에 대하여 물론 탓할수는 없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남반부인민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 반피뢰 투쟁의 일단을 엿보게 되고 우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주인공을 청년학생이나 지식인 출신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생활만을 보여주는데 치우친다면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더 폭넓고 다양하게 그리지 못하게 될것이며 남조선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자, 농민이 주인공으로서의 웅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력사적인 주요 투쟁들이 남반부청년학생들에 의하여 발단되고 발전되었다고 하여 남반부혁명의 기본력량인 로동자, 농민들의 형상을 외면할수는 없다.

서울시 청계피복공장 로동자들과 남강원도 장성탄광 탄부들의 투쟁만 놓고보더라도 반미, 반피뢰투쟁에 펼쳐나선 남조선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미, 반피뢰 투쟁에 펼쳐나선 남반부 로동계급들의 형상과 함께 농민들의 형상도 창조해야 하며 지하에서 투쟁의 전구를 넓혀가는 남반부혁명가들의 형상도 창조해야 한다.

만일 남반부 현실주제작품에서 한정된 인물들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되면 작품의 구성과 엮음새조직에서 도식과 류사성을 극복하기도 어

럽게된다.

우리의 창작실천을 놓고 보더라도 일정하게 성공을 한 작품까지도 포함하여 청년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현실을 놓고보더라도 파쑈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는 오늘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반미, 반파쑈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있다.

따라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청년학생들의 형상과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이한 계층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주제분야에서 지난 시기 흔히 취급해온 소재와 주인공관을 찾아다니며 별로 새롭지도 않은 작품을 창작할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력군과 각계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적 탐구와 사색을 더 깊이 하여야 할것이다.

작품의 형식과 양상문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형상은 작가들이 생활을 여러모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에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된다. 같은 생활을 그리면서도 작가나름으로 서로 다른 측면에서 특색있게 그리기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반제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탐구하는 문제는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은 이 주치분야에서 미제원쑤놈들의 만행과 죄행을 단죄하며 놈들의 면상을 치는 총칼과 같이 예리한 정론시와 풍자시를 비롯하여 남조선피뢰도당의 반동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선고하는 전투적인 형식의 단편소설들을 적지않게 창작하였다.

그러나 반제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거의다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선 항쟁투사들의 투쟁과 생활을 적극적인 양상으로 그린 작품들로서 그 형식과 양상이 다양하지 못하다.

단적으로 최근년간에 창작발표된 남조선현실을 반영한 단편중에서 분노의 땅 광주를 무대로 하고 항쟁투사들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느 하나도 광주민병기를 무참히 탄압하도록 부추긴 그 진범인인 미제침략자들을 정면에서 단죄한 작품은 없다.

물론 광주민병기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을 통하여 미제를 폭로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황으로 설정되어있을뿐이지 놈들을

정면에서 규탄한 작품은 아닌것이다.

이러한 실태에서 침략의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정면에서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폭로단죄하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둘려야 한다.

여기서 풍자적인 소설을 창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원래 풍자문학은 발생한 첫날부터 수많은 반동적인것들을 자기의 묘사대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풍자의 불길로 무자비하게 불태워버렸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풍자문학이 자기의 예리한 풍자적수법으로 불살라버린 그 모든 대상들을 합친것보다도 몇십배 더한 풍자대상들이 온갖 악행과 추태를 련일 벌리고있어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자대상들을 폭로규탄하고 야유조소하는 양상의 작품들을 적극적인 양상의 작품과 함께 더 다양하게 창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반제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다면 문학의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야 하며 보다 적중한 형식과 다양한 양상으로 썩고병든 남조선사회를 폭로단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문학은 비수와 같이 예리한 풍자적수법을 풍자시와 풍자극 형식에서 일부 쓰고있을뿐 소설에서는 그리 활용하지 않고있다.

풍자의 형식과 수법을 풍자시와 풍자극에서만 이 활용해야 되는것이 아닐진대 서사적방식인 소설문학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될것이다.

원쑤놈들의 본성과 추악한 정체를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해내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대들에게 놈들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들과 끝까지 싸우려는 각오를 높여주는데 우리 문학이 더 잘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새로운 생활분야에...

새로운 생활분야- 이것은 독특한 인간문제를 가지고 종자의 비반복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복적이며 독창적인 것만큼 창작에서 반복과 유사성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생활영역을 부단히 탐구해야 한다.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선 남반부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도 이것은 예외로 될수 없다.

이것은 문학의 자체발전에서도 중요하지만 현 시기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은 남반부청년학생들속에서뿐만아니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반미, 반피뢰 투쟁은 또한 남조선사회에서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서부도이켈란드를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때문에 우리 소설문학은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투쟁에 떨쳐나선 남반부청년학생들의 생활을 그리면서도 남반부 혁명가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종교인들의 반미투쟁에도 낫을 돌려 할것이다.

남반부에 종교인들이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반미투쟁에 떨쳐나선 그들의 투쟁을 잘 그려내는것은 아무모로 보나 우리 혁명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미, 반피뢰 투쟁에 떨쳐나선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하는것은 우리 소설문학에서 새로운 생활령역에로의 침투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의 반동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가고있으며 한때는 피뢰도당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까지도 놈들과 결별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반미, 반피뢰 투쟁에 합세하여 나서고있다.

사실 태를 묻은 정든 산천을 버리고 떠나는 남녘인민들의 정상은 지난날 망국노의 설움에 울던 우리 인민의 처지와 다른것이 없다. 낯설고 몰설은 이국땅에 짐을 푼 그들의 비참한 생활, 그

생활속에서 더욱 통절하게 바라마지않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한 갈망,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소원은 통일이라 부르짖으며 과감히 투쟁의 길에 나서고 오늘은 수많은 동포들이 대륙을 넘어 주체의 조국을 찾아 방문의 길에 오르고있다.

과연 여기에 인간의 운명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가 없겠는가.

지금 우리 민족이 살고있는곳이라면 해외의 그 어디서나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지 않는곳이 없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이러한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들의 투쟁과 생활을 잘 그리면 반미자주화, 반파쑸민주화 투쟁을 주제로 한 우리 소설문학의 특색도 더 살아나게 될것이며 암흑의 남녘땅과 해외에서 일구월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우러르며 힘겨운 투쟁을 벌려나가는 그들을 크게 고무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반미, 반피뢰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특색있게 더 많이 써야 하며 그 형상의 질도 더 높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사상사업의 방향에 따라 반미, 반피뢰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작은 새

윤병규

쫓긴듯 숨가빠 날아들어
판문각 추녀끝에
조용히 깃을 다듬는
작은 새 한마리

끌린듯 다가서며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는 마음
반가워라, 고운 새야
불을 대고 쓸어주고싶구나 !

들뽕는 총포성에 놀랐더니
질식할 공해에 숨막혔더니
등지야 있건말건
작은 어데 두고 홀로 왔느냐

잘 왔구나 불쌍한 새야
여기 하늘땅은 통채로 너의것이다

어디 가나 보물산 풍년들
그 언제나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꽃 한송이, 새 한마리도
사철 보살피는 손끝에 받들려 사는
꿈같은 락원에 네 왔으니
이제 바랄것 더 무엇이라

오, 산천초목도 몸부림쳐
저 작은 목숨하나 깃들곳 없는
생명의 동토대, 기막힌 세상
도란에 우는 겨레야 물어 무엇하리!

삶을, 자유를 찾은 작은 새야
말 못하는 네 맑은 눈동자
총천 병사의 가슴에
피를 뿜인다, 피를 뿜인다 !

락동강 모래 한줌 외 1편

정렬

아버지가 전사한 날
아들은 말없이 펼쳐놓는다
봉분앞에 놓는 꽃도 아닌
싸고싼 모래 한줌

삼년석달 기다리던 고향집으로
아버지는 아니 돌아오고
한장의 사망통지서와 함께
전선의 한 군관이 갖다준
소중한 모래 한줌

불의 소나기 쏟아지던 대안으로
한치한치 뚫아가던 아버지
그만 총탄에 맞아 숨지던 손에서
함께 싸운 전우가 받아친
피물은 락동강 모래

해빛밝은 창가에 펼쳐놓은
그 모래 한줌에서
포연서린 세월이 두고간
락동강 격노한 물결이 보여오고
처절한 결전의 포성이 울려오는듯

아, 락동강 모래 한줌
그것은 락동강 물결을 실어오고
못잊을 그 기슭에 언제나 세워주는
아버지의 숭고한 넋

아버지의 선혈로 물든 거기
잊지 못할 그 지점을 가리키며
노한 락동강, 락동강이
오, 오늘은
아들의 가슴에서 울부짖고있다

목련화

해저무는 먼 출장길에
나는 한 전우의 집에 들렀다
영예군인의 몸으로
일손을 잡고있는 그였건만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애써 가꾸는 꽃이라고
그의 어린 딸 이끄는 창가엔
키높이 무성한 목련화
송이송이 람스롭게 활짝 폈구나

문득 꽃떨기속에 어려오는
전화의 고지
멸적의 명중포성 울리던
갱도속 포진지에
그가 떠왔던 목련화 한그루
무너지는 동발목 어깨로 받쳐올리면서도
그는 끝내 꽃을 살려내지 않았던가

어느해인가
영예군인공장을 찾았을 때
그가 기념으로 쥐여주던
비닐단추의 목련화 고운 문양표

이 꽃에서 피어났음을
내 미처 몰랐구나

뜨거운 열정 끓어넘치는곳에
생활을 즐기는 꽃이 만발하고
자신만을 위한 인생에는
쓸쓸히 지는 락엽밖에 없는것이니

포연서린 갱도속에서부터
그의 생활의 자욱을 따라
오늘에도 이어져 반기는 목련화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전우의 강의한 의지처럼
연한 보라빛속에 송이송이 불타누나

창가에 흐르는 저녁노을을 안고
그의 어린 말은 언제나와같이
꽃잎속에 아버지를 기다리고
내 또한 꽃떨기속에 전우를 그려보나니

아, 목련화
삶의 꽃 변함없이 피워가는
전우의 티없는 마음아

음모에 미친 백악관 외 1편

김송

워싱턴의 한복판에

뼈다귀를 깎아 쌓은 탑이런가
바라보기만해도 가슴 선뜩한
흰 돌집 백악관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음모
정치 도박도
전쟁 모의도
파괴와 살인 흥정도 꾸며지는곳

여기서 교활한 이리떼들
《원조》를 미끼로 던질
예속의 울가미를 만들고
《반공》과 《호상안전》의 구실로
살인악법의 대본을 작성한다

여기서 《숙군구테타》로 갈아댄
살인악당 전두환을 내 몰아
항쟁의 거리 광주를
피에 잠기게 했더라

워싱턴에 으스스한 밤이 오면
백악관이 내몬 승냥이떼들
그 죽은 수많은 망령들 찾아와 창문을 두드린다
어서 가자고 저승으로
이왕 갈길인데 어서 가자고

오, 매일 매 시각
지구상에서 빚어지는 모든 음모
여기서 꾸며지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종결되며
온 세계 전 인류에게
무서운 불행과 고통 가져오나니

오, 저주로운 백악관이어
너는 음모로 가득찬 치욕의 력사에
백가지 악을 다 저질러서 백악관으로
흰 보자기로 검은 죄악 감싸안아 백악관으로
분노와 저주의 대명사로 불리우거니

너 백악관의 지붕우에
늘어져있는 성조기여
죄악에 절은 더러운 기폭의
그 죄수복처럼 얼룩덜룩한 흰 줄 대신에
거기다 흰 뼈다귀들 가로 이어놓으라

략탈전쟁으로 쥐여붙인
50개주를 상징하는 그 별 대신에
너희들의 운명 필연코 그렇게 될
천개의 해골바가지나 새겨놓으라

돈에 미친 월가

황금만능의 도시 뉴욕
월가의 한 거리에서
머리 희게 키워놓은 외아들이
홀어미 심장에 비수를 박고
금궤를 털어내는 밤
젊은 시절의 벗은 딸라폰전을 놓고
피묻은 방아쇠를 당겼다

아, 딸라
아메리카 종자들의 신조

너는 아메리카 력대통치자
백악관과 펜타곤의 조상
세계의 선량한 어머니들이
자장가 요람속에 아기를 기를 때
너는 대대로 죄악을 낳았나니

인간의 량심도
사회의 정신도
모든것을 썩고 병들게 하는
딸라의 왕국

보라

오만가지 요물의 눈알인양

희번뜩이는 월가의 밤

거리의 네온등도 외면하는가

흐르는 승용차안의 저 귀부인들

다야몬드로 빛나는 고양이에 입맞추며

《개결혼식장》으로

쟈즈로 지새는 판스홀로 달리는데

일거리 잃은 파나모의 신사들

긴 밤 골목길 싸다닌다

사기와 헐잡, 색정과 방탕

한잔 커피에 너인들이 몸을 파는곳

처녀들이 순결을 부끄러워하는곳

이것이 아메리카의 넋이거니

돈에 미쳐 색에 미쳐

력사발전의 방향신경마저 마비된

병든 아메리카여

너는 인류에게 다시 풀치마를 입혀

자연으로, 털사람들의 시대로

되돌려보내자는것이나

오, 돈

돈이 못하는것이 없는 세상

돈이 모든것을 망치게 하는

너 개같은 세상

월가의 돈벌레들의 세상

굶고굶은 아메리카여